

케루빔 출판사 제1권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김 명 호



목차

서문; 책머리에 서서

1.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었습니까?
2. 성경은 믿을 수 있는 책입니까?
3. 사람은 왜 믿고 살아야 합니까?
4.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5. 예수님은 믿을만한 분입니까?
6. 하나님은 참으로 계십니까?
7.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8. 구원은 얻었습니까? 얻을 것입니까?
9. 이적 행하는 것은 성령 받은 표입니까?
10. 구원받은 표가 있습니까?
11. 우리는 언제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까?
12. 천국은 실제적입니까?

책머리에 서서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참으로 안다.
예수를 참으로 아는 사람들은
영생을 가졌다.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그 생명을 나누고 싶어 한다.

사람들은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왜 믿어야 하느냐고 시큰둥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다.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거나 무생물이다.

그래서 꼭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이렇게 글을 썼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은 것이고
죽은 것은 썩게 되어 있다.
세상이 이 썩는 냄새로 질식할 지경이다.

미숙한 글이지만
읽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참으로 알므로
영생하는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기도한다.

이 책은 1992년부터 1993년에 걸쳐 “영원한 복음 시리즈”로 “빛과 소리사”에서 12권으로 출판하였던 책이다. 그전에 이 글은 시조(時兆)지에 1991년과 92년 2년 동안 “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안내”라는 제목으로 24회를 연재하였다. 당시 시조 편집장이었던 임중섭 목사님이 우리의 진리를 쉽게 독자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글을 연재하면 좋겠다고 집필을 의뢰해왔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면서 성의를 다해 글을 쓰려고 노력했었다. 연재가 끝난 후에, 이 글을 잡지에 연재만으로 끝내기보다는 전도용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소망이 내게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전도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면서 진리를 전하고자 출판사를 운영하던 “빛과 소리사” 김세권 사장이 읽고 가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도록 매력적인 장정으로 전도용 소책자 12권 시리즈로 책을 출판했었다. 그러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 같지 않았다.

나는 늘 이것을 단행본으로 묶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삼육대학 케루빔 총서로 이렇게 12권을 묶어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라는 제목으로 출판하게 되어 참으로 기쁘다.

이 책이 전도용으로 많이 활용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도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이유를 스스로 확인하고 더 확실하게 하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시조 독자들을 상대로 썼기 때문에 가능하면 쉽고 흥미 있게 쓰려고 애를 썼다. 얼마나 그 의도가 이루어졌는지는 필자는 잘 모른다. 그러나 어떤 독자는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말했으며, 어떤 독자는 이번 출판에 출판비를 돕겠다는 의사를 전해오기도 했다. 너무 고맙다.

책을 읽는 분들에게 꼭 알려드릴 사항이 있다. 책을 읽노라면 문장에 작은 번호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각 페이지 밑에는 번호를 붙인 여러 질문들이 있다. 본문에 있는 작은 번호들은 질문에 있는 번호에 대한 대답이 거기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본문을 읽고 각 페이지 밑에 있는 질문을 보면서 복습을 할 수 있

다. 그 질문에 있는 번호를 본문에서 찾으면 그 대답을 찾게 된다. 이것은 독자들에게 책의 내용을 더 효과적으로 인식하게 하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이것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끝으로 이것을 단행본으로 출판하기로 결정한 삼육대학 총장 남대극 박사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부지런히 교정을 보며 편집한 분들의 노고에 감사한다. 특별히 동부교회 김서기 장로님께 감사한다. 그분은 이 글을 꼼꼼히 읽고 잘 교정하고 교열해 주셨다.

책머리에 서서 아무쪼록 이 책이 읽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슴마다 넉넉히 채우는 도구가 되기를 하나님께 손 모아 빈다.

2001년 10월 17일
San Jose, 목회실에서 주의 종 김명호 識

1.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었는가?”

“지금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는가?”

생각하면 꽤나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본 일도 없고, 그의 목소리를 직접 들은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무엇 때문에?

어리석은 질문처럼 생각되겠지만 한번쯤 짚어보고 확인하는 일은 결코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믿는 길목인 줄 알고

옛날이야기입니다.

어느 시골에서 아들을 서울로 유학을 보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생 처음 집을 떠나 혼자 생활하게 된 아들의 소식이 궁금하여 날마다 편지 오기를 고대하던 차에 드디어 아들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반가워서 편지를 개봉하였으나, 자기가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글 봉사라는 것을 갑자기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편지를 읽을 재주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아래 위로 훑어보던 아버지는 편지를 접어들고 동네로 편지 읽어 줄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때가 낮이라 대부분 일을 나가 텅 빈 동네 집들을 이리 저리 기웃거리던 아버지는 저쪽에서 신사복을 잘 차려 입고 걸어오는 한 길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차림새로 보아 틀림없이 신학문을 한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그는 켜걸음으로 신사에게 다가가서 공손히 절을 하고 말을 건넸습니다.

“선생님, 바쁘시겠지만 이 편지를 좀 읽어 주십시오. 아들놈이 서울 공부하러 가서 처음 보내온 편진데, 원, 낫 놓고 기억자도 모르니 읽을 수가 있어야지요.”

그는 부끄러운 얼굴로 머리를 굽적거리며 그 신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아래위로 훑어보던 그 신사의 눈에서 굵다란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 아버지는 속으로 깜짝 놀라며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슬픈 사연이 적혔길래 남이 저렇게 눈물을 흘릴까?>

이 아버지는 속에서 복받치는 울음을 참을 길이 없어 드디어 목을 놓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신호로 하여 그 길손도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길 복판에서 서로 붙잡고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마침 그 길을 지나다가 그 모양을 보고는 자기도 그 옆에 가서 목 놓아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던 아버지는, 울어도 까닭이나 알고 울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그 신사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신사 양반, 울어도 까닭이나 알고 읊시다. 도대체 얼마나 슬픈 사연이 적혔길래 그렇게 울기부터 하십니까?”

그러자 신사가 아주 멋쩍은 표정으로 대답하였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나도 그것을 몰라서 읊니다. 왜 내가 진작 글을 못 배웠던고, 그것이 후회되고 서러워서 그냥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듣고 보니 어이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기막힌 얼굴로 그 신사를 쳐다보다가, 이번에는 자기들의 울음에 가담한 또 한 사람에게 운

까닭을 물었습니다.

“이 신사 양반은 그런 사정으로 울었다 치고, 당신은 왜 울었소?”

그러자 이 길손은 면구스런 태도로,

“나는 두 분이 하도 서럽게 울길래, 여기는 울고 가는 길목인 줄 알고 울었지요.”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부모님 따라서 어려서부터 믿었으니까요.”

“이웃이 하도 권해서 교회에 나가다가 믿게 되었지요.” 혹은,

“믿는 사람들의 생활을 보고 감동이 되어서.”

“믿고 구원 얻어 영생하려고” 등 저마다의 대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러한 이유들은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저마다 예수 믿는 변(辨)을 가지고 있음에는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이 자신들에게는 절실하고 타당한 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믿음의 변이 객관적으로도 타당한 것인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1) “울고 가는 길목인 줄 알고” 분명한 이유도 모르면서 남이 우니까 옆에서 운 이 사람의 행동은 분명 바보스런 행동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예수 믿는 길목인 줄 알고” 바보스럽게 예수를 믿고 있다고 말하면 지나친 표현일까요?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2) 그런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예수를

1) 오늘날 어떤 태도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2) 베드로는 그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습니까?

믿는 일은 오늘날 우리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전도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도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데도.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벧전 1:8)라고 말하였습니다. 보지 못한 예수, 그 음성을 듣지도 못한 예수를 이렇게 신명(身命)을 다해 믿다니,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³⁾그러므로 그 믿음의 확실하고 타당한 이유를 찾아보는 일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읽으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미할 때 옥 터가 흔들리고 지진이 나며 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의 매인 것이 다 풀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간수는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을 알고 자결하려 하였습니다. 그때 바울은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행 16:28)고 소리쳤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매인 것이 다 풀어졌는데, 죄수들이 하나도 탈옥하지 않고 감옥에 그냥 있다는 것은 보통일 일 수 없습니다. 간수는 등을 가지고 옥에 와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와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30절)라고 물었습니다. 이때에 바울이 한 대답은 유명합니다.

⁴⁾“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31절).

이 말씀은 오늘날 전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 말씀은 상당히 막연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으라고만 했지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이것으로만 끝났다면 막연한 권고

3)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입니까?

4) 바울은 어떻게 구원 얻는다고 말했습니까?

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끝내지 않았습
니다. 5)“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
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
라”(31, 32절)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는 말입니다. 주의 말씀 곧 성경 말씀을 통하여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

6)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그 목소리를 듣지도
못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록된 주의 말씀 곧 하나님
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하므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
로 말미암았느니라.”(롬 10:17)

7)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성경 말씀입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예수 믿는 믿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떠나서 예수 믿는 믿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마치 나무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려는 것(緣木求魚)과
같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비로소 우리
는 예수를 바르게 믿을 수 있습니다.

8)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요 5:39)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가르쳐 주
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경과 성경적인 것만 예수님을 바르게 증거함

5) 바울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까?

6)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7) 예수님 승천하신 후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8) 예수님은 친히 무엇이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가르쳤습니까?

니다. 인간의 신앙적 체험이나, 놀라운 이적과 기사일지라도, 그것이 성경의 증언과 일치할 때만 믿음의 바른 증거일 수 있는 것입니다. 9) 아무리 기이하고 굉장한 체험이라도,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린 이적 일지라도 그것이 성경적이 아니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체험이요, 이적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10)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딤후 3:15)

예수를 믿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성경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교훈과 사건을 통하여 오해가 없도록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비유 중에서, 비유 중의 부자가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27, 28절)라고 요청하였을 때, 비유 중의 아브라함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은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29절)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부자는 “아니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은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30, 31절). 11)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성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9) 체험과 이적은 무엇과 일치할 때만 참된 것입니까?

10) 무엇만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지혜를 줍니까?

11) 모세와 선지자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눅 24:44)

¹²⁾예수를 믿는 바른 도리를 배우고 깨닫는 곳은 기록된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처럼 분명히 밝히신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적이 있을지라도 그 증언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도리를 증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당신의 부활과 관련된 사건 중에서도 분명히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13)부활하신 그 일요일 오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사건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때 그 제자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로 슬픔에 싸여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사 “너희가 길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나”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당국자들에게 잡혀 죽으신 이야기와 오늘 아침에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왔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것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봐라, 내가 부활한 예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손과 발의 못 자국을 보이시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포옹을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성경을 믿지 않음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관심을 성경으로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눅

12) 예수님은 어떤 비유를 통하여 예수를 믿는 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13)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무엇을 믿을 수 없었습니까?

24:25~27)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도 그 뜻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기 집 앞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려 하시자, 권하여 함께 유하도록 하였고, 저녁 식탁에서 예수님은 손을 들어 음식에 축도를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 손에 못 자국을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깨닫고, 믿고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려 했을 때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야속한 일입니까? 몰라봤을 때는 몰랐기 때문에 성경을 설명해 주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손 한번 만져보지 못하게 사라지셔야 합니까?

14)여기에 모든 세대에 사는 우리 모두를 위한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곳은 오직 성경이라는 교훈입니다. 만일 부활하신 예수님이 현장에 계심으로, 그 제자들에게 자기를 만지고 포옹하면서 몸과 감각으로 체험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고자 했다면 왜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당연한 장면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만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적인 어떤 체험을 통하여 만나고 믿게 하려고 했다면, 예수님은, 그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 앞에 부활하신 몸으로 일일이 나타나셔서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몸과 감각으로 체험하게 해야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오직 기록된 말씀 성경에서만 얻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14)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실체를 직접 만져서 알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복된 믿음

15)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를 보지 않고는 결코 믿을 수 없다고 고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도마를 나무라시지 않으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 주셨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지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요 20:27~29)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나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의심을 미리 해 주어서 우리의 의심에 대한 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건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는 그의 전도를 듣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며 16)지금 우리도 말씀에 의하여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자가 되면 도마보다 더 복 있는 자라는 선언을 예수님께서로부터 친히 듣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7)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바르게 믿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18) 예수님의 또 하나의 이름이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지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15) 예수님은 도마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 우리는 누구보다 더 복이 있는 자입니까?

17) 예수님을 바르게 믿기 위하여 무엇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18) 예수님의 또 하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 14)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계 19:13)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은 기록된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떠나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성경을 떠나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이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 곧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¹⁹⁾ 그런데도 그가 세상에 사실 때에 얼마나 철저히 기록된 말씀을 의지 하셨던지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던 광야에서도 마귀의 질문에 그는 “기록되었으되”(마 4:4 등)라고 대답하셨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40일 전에 침례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무슨 영똥한 질문을 하고 있어?”라는 주장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²⁰⁾누가 무슨 질문을 했을 때도 항상 기록된 성경의 말씀으로 대답 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눅 10:26), “너희가 성경에 ... 읽어 본 일이 업느냐?”(마 21:42), “이사야가 ...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막 7:6),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요 6:45) 등,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이처럼 철저히 의지하신 사실은 이외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신 것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19) 예수님은 그가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이셨으나 세상에 계실 때 무엇을 얼마나 의지 하셨습니까?

20) 예수님은 사람들의 질문에 무엇으로 대답하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생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상화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나는 수운(水雲) 최제우 선생의 초상화에 얹힌 이야기를 읽으면서, 말이 선생의 모습을 정확하게 전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최제우 선생이 죽은 후에 동학은 천도교와 시천교로 나뉘어졌습니다. 시천교의 교조인 김연국씨는 그의 선생 최제우 선생의 초상화를 남기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최 선생은 초상화나 사진 한 장 남겨 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연국씨는 초상화의 대가 이당 김은호 화백을 찾아와서 수운 선생의 초상화(영정)를 그려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예, 그렇게 하지요. 선생님의 사진이나 혹은 다른 초상화를 가져오셨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초상화를 그립니까? 생존해 계시지도 않는 어른을.”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왔지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수운 선생을 본 적도 없는데요.”

“예, 그러신 줄 압니다. 저,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어떻게요?”

“선생님의 사진도 초상화도 없지만 생존하셨을 때의 선생님을 본 사람은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선생님의 용모를 하나하나 설명하는 말을 듣고 초상화를 못 그릴까요?”

김은호 화백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하기로 승낙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운 선생을 본 사람들의 설명을 따라 “예, 예, 꼭 사진 같습니다

다.” 할 때까지 고치고 또 고치면서 마침내 수운 최제우 선생의 초상화를 완성하였습니다. 말로 설명하여 정확한 초상화를 그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아닙니까? 영정 봉안식을 하는 날 하나 남은 따님이 와서 그 영정을 보고 꼭 사진 같다고 하면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21)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것 보다 더욱 확실히 예수님의 산 초상화를 전해 줍니다. 또한 예수님이 음성으로 친히 하신 말씀을 들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활 태도입니다. 22)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기록된 대로 순종하며, 기록된 대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대로 고백한다는 말의 뜻은 예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나 자신의 말과 같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23) 그래서 성경은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벧전 4:11) 하라고 부탁드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 같이 말하되 ...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 10:6~10) 24) “또 여러 형제가 어린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계 12:11)

21) 성경은 예수님의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들려줍니까?

22)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23) 믿는 사람들의 언어(言語) 생활은 어떠해야 합니까?

24) 성경 말씀대로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은 어떠합니까?

참으로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 곧 말로 증거하는 사람이며, 이 일 때문에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시인하여 증거하는 일을 결코 그만 두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씀대로 믿기 위하여서는 성경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 말씀은 부지런히,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라고 권합니다.

25) “베뢰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행 17:11~12)었습니다. 26)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신 6:6, 7), 27)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지키라”(신 4:2)고 부탁합니다.

다른 예수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순종함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떠나서 예수를 믿을 길은 결코 없습니다. 28) 이적과 체험이 믿음을 바르게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요, 소위 사람들이 받았다는 계시도 그 자체가 믿음을 바르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29) “내 이름으로

25)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권합니까?

26) 그리스도인은 자녀들에게 어느 정도로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까?

27)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성경을 가감(加減)할 수 있습니까?

28) 이적과 체험이 반드시 바른 믿음을 증거합니까?

29) 계시의 꿈을 꾸었다 하며 꿈으로 예언하는 자는 누구를 잊어버리게 하는 자들일 수 있습니까?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夢事)를 얻었다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의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 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렘 23:25~28) 30) 사람이 스스로 얻은 계시와 꿈은 믿을 것이 못됩니다.(렘 29:8) 31) 그것이 성경과 일치하는지 철저히 검증된 후에 성경과 일치하면 그때 간증할 것입니다. 32) 그렇지 아니하면 그 계시와 꿈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눅 8:18)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믿음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는지 정직하게 살피고 “어떻게 읽는”지(눅 10:26)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33)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가 되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예수를 잘못 믿게 하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일은 사도들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34)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고후 2:17)

30) 사람이 스스로 꾸 꿈을 믿을 수 있습니까?

31) 자신의 꿈과 계시가 무엇과 온전히 일치해야만 증거할 수 있습니까?

32) 계시와 꿈이 잘못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까?

33)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에서 증거하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34) 사도 당시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35)“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고후 11:4) 다른 예수라니? 예수가 여럿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가짜 예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꼭 예수 같은데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 아닌 예수가 허다합니다. 성경 66권은 예수님의 완전한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 줍니다. 이미 말한 대로 예수님의 이름이 말씀인 것처럼 기록된 말씀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완전히 전해주는 예수님의 산 초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36)그런데 이 66권 말씀 중에 성경 스스로가 안 해도 된다고 가르친 것(할례나, 짐승으로 제사 드리는 것 등, 구약성경에서는 해야만 한다고 가르친 것이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루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가르친 것들)이 외의 것을 믿는 도리로 가르치는 것은 다른 예수님을 믿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37)다시 말하면 사람의 사상으로 성경에 가감(加減)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가감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찌면 예수님의 눈을 하나 빼놓거나, 손가락 하나를 더 붙여놓거나 하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다른 예수를 전하는 모습입니다.

한나라 원제 때에 시골 미인 왕소군(본명 왕장)은 황후 간택령에 의하여 뽑혀서 황후 후보로 왕궁에 오게 되었습니다. 중국 천하에서 이렇다 하는 미인들이 다 뽑혀온 그곳에서도 왕소군을 필적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왕이 친히 나와서 미인들을 살폈다면 단연코 왕소군이 왕비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궁중 법도가 그렇지 않아서 먼저 화공(畵工)을 시켜 미인의 초상화를 그리게 하여 황제께 바치고

35) 바울이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한 자들이 바울 사도 당시에도 있었습니까?

36) 어떻게 하는 것이 다른 예수를 믿도록 가르치는 것입니까?

37)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형상에 사람들이 가감(加減)하는 것이 됩니까?

그 중에서 선택된 몇 미인들 가운데서 황후를 선택하였답니다. 그러므로 황후가 될 수 있는 길은 화공의 그림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미인들은 자기의 용모를 더욱 빼어나게 그려주기를 위하여 화공에게 뇌물을 주었습니다. 왕소군은 워낙 가난하여 뇌물을 줄 수도 없었으나, 뇌물을 주지 않아도 자기의 용모대로 그리기만 하면 틀림없이 황제의 눈에 들 것이었습니다. 화공은 왕소군의 초상화를 벌써 다 그려놓고도 뇌물을 기다리느라 그림을 바칠 마지막 날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소군에게서는 영 뇌물이 오지 않았습니 다. 심술이 난 화공은 그 고운 왕소군의 볼에 먹 점 하나를 그린 다음에 그 초상화를 바쳤습니 다. 왕소군이 왕비가 못될 것은 뻔 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초상화는 왕소군은 왕소군인데 왕소군이 아니지요? 그의 본 얼굴에는 먹 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초상화에는 먹 점을 그려 넣었다는 말입니다. 그 그림을 척 보면 한눈에 왕소군으로 보이지만 분명히 진짜 왕소군의 초상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왕소군인 것입니다. 진짜 왕소군의 볼에는 먹 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성경이 가르치는 방법대로 연구하지 않으면 비록 고의가 아니라도 다른 예수를 그릴 수가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잘못 소개된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인 줄 믿고 나면, 성경대로 그려주는 진짜 예수님을 거절하게 됩니다. 38)바울은 이 사실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잘 용납하는 구나” 라고 탄식하였습니다. 한나라 원제는 그 잘못된 그림을 보고 왕소군을 얼굴에 먹 점이 있는 사람으로 알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후일 황제가 직접 왕소군을 볼 기회가 왔을 때 비로소 그림의 왕소군이 가짜라는 것을 알았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황제가 조처한 일은 화공을 잡아 처벌하는 것뿐이었고 호지(胡地)로

38) 사람들은 어떤 예수를 잘 용납합니까?

떠나가는 그 미인을 붙들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릇된 초상화를 그리면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39)“저런 사람은 거짓 사도요 궤환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40)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고후 11:13~15)

베드로와 바울과 요한 등 사도들이 살아 있을 때에도 이렇게 하였으니 지금은 어떠하겠습니까? 41)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딤후 2:15)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자신도 모르게 다른 예수를 믿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었습니까? 또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성경, 오직 성경에 의하여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또 믿어야만 합니다. 42)그러므로 성경은 기록된 대로 강론되어야 하고, 기록된 대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이에서 지나치면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 됩니다.

43)“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롬10:17)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39) 사단은 자신을 어떤 자로 나타내기로 꾀합니까?

40) 사단의 일꾼들이 자기를 어떻게 나타냅니까?

41)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분별해야 합니까?

42) 성경은 어떻게 강론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합니까?

43) 다시 한 번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보면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책인가?

다음 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성경은 믿을 수 있는 책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성경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난번에 공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야말로 믿을 수 있는 책이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성경은 믿을 수 있는 책입니까?

참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써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무조건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은 이유 있는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디서 들어야 할까요? 단연코 성경에서 들어야 합니다.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권위인 성경

그러나 독자들 중에는 이 대답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믿을 수 있는 책인가를 성경에서 물으면 응당 믿을 수 있다고 대답할 것이 뻔하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이 외의 누구에게 물어서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이론은 아주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¹⁾“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히 6:16) ²⁾“하나님이 아브라함에

1)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켜 맹세한다고 했습니까?

2) 하나님은 누구를 가리켜 맹세했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히 6:13)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자기 아닌 다른 무엇으로 맹세하면, 그 가리켜 맹세한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외에 가리켜 맹세할 무엇이 없어야 마땅합니다. ³⁾그와 같이 “성경은 믿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성경 이 외의 것에게서 대답을 구하는 것은, 성경이 그만큼 믿을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단연코 성경이 대답할 수밖에 없고, 마땅히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언으로 증명하시는 하나님

오늘날 사람들이 잘 믿고, 쉽게 믿어버리는 것은 자연과학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⁴⁾그 이유는 자연과학이, 실험으로 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실험하여 증명되는 것을 쉽게 믿고, 또 믿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는 속담이 생겨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의 심리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연 믿을 수 있는지 과학적 방법으로 실험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⁵⁾하나님은 자신을 세 가지 측면으로 사람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첫째, 창조의 하나님으로서 만유의 주.

둘째, 예언의 하나님으로서 역사의 주.

셋째,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생명의 주.

3) 성경은 믿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왜 성경이 대답해야만 합니까?

4) 사람들이 자연 과학을 쉽게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5) 하나님은 자신을 몇 가지 측면으로 계시하셨습니까?

이중에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는 생명의 주로서 구원의 하나님이 가장 절실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의 하나님이신 사실만 충분히 계시하시면 될 것인데, 6)이렇게 세 가지 측면을 계시하신 것은 전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라는 인간의 질문에,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사랑의 대답으로써 역사의 주로서 예언의 하나님으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즉, “너희들이 의심이 많은데, 그러면 나를 믿을 수 있는지, 못 믿을 존재인지 실험을 해 보고, 믿고 구원 얻어 생명 있는 자들이 되어라”는 사랑의 요청을 역사적 사건을 예언하심으로 실험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7)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역사의 현장을 시험관으로 삼고, 예언을 실험 재료로 삼아 실험하여, 그 예언이 역사적 사실로 성취되면, 예언하신 하나님은 참으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증명되게 하신 것입니다. 8)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를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를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요 14:29, 13:19)

9)그러므로 하나님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사 46:10)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예정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계 역사의 시작과 진행과 종말을 한

6) 하나님이 이렇게 세 측면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7) 하나님이 예언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8) 이 일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다?

9)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눈에 다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역사의 현장에서 성취될 때, 그것으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 있다는 증거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10)하나님은 예언하는 능력을 참 하나님 되심의 한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의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 됄을 우리가 알리라.”(사 41:21~23)

11)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나님을 믿어서 영생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12)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을 성경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예언을 주신 것입니다. 13)물론 성경 예언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14)이 구원의 경륜을 확실히 믿도록 하기 위하여, 사람이 살피면 분명히 알 수 있는 역사의 진행을 미리 예언하여 그것이 역사의 현장에 명백히 성취되는 것을 봄으로 성경의 다른 기록들도 믿을 수 있는 사실임을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15)그러므로 “성경은 과연 믿을 수 있는 책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을 듣기 위하여 우리는 성경의 예언을 연구해야만 합니다. 이런 연구로 확증을 얻지 못하면, 성경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은 하나의 자의적(恣意的) 주장

10) 하나님은 예언의 능력을 무엇으로 삼으십니까?

11)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12)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을 무엇으로 주셨습니까?

13) 성경 예언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14)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구원의 경륜을 확실히 믿도록 계획하셨습니까?

15) 성경은 믿을 수 있는 책인가라는 질문의 대답을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삼대째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교훈을 받고 아무런 의심 없이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성하면서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에 합리적인 대답을 들려주지 못했습니다. 16) 그런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를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성경에 나타난 역사에 대한 예언을 연구함으로써 성경이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예언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다니엘서와 요한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실을 확증하기 위하여 세상 역사의 진행을 집중적으로 예언한 책입니다. 17) 이 책을 연구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신뢰성을 경탄하면서 확인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짧은 지면을 통하여 이 두 책의 내용을 어찌 다 말하겠습니까. 다만 몇 가지 예언과 그 성취를 적어봄으로 성경은 믿을 수 있는 책인가라는 질문에 대답을 확증해보려고 할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경의 내용은 실험으로 증명된 과학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성취로 증거함

18) 다니엘서 8장은 바벨론 왕 벨사살 3년에 받은 계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벨사살 3년은 기원전 551년에 해당됩니다. 그때 다니엘은 계시 중에 두 마리의 짐승을 보았는데 먼저 본 짐승은 숫양이었고 나중 것은 숫염소였습니다. 이 짐승들과 그 생김새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

16) 무엇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17) 다니엘 계시록을 연구하면 어떤 결과에 이를 것입니까?

18) 다니엘 8장의 계시를 본 때는 기원전 몇 년입니까?

인지 알기를 원했을 때, 천사는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단 8:20~22)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19) 메대와 바사는 서양사에서 메디아와 페르시아로 기록되는 고대 제국들입니다. 이 나라는 형제 국으로 처음에는 페르시아가 메디아의 봉신국(封臣國)이었으나 페르시아에 고레스라는 영명한 군주가 일어나면서 도리어 메디아가 페르시아의 봉신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은 바벨론이 세계를 통치하고 있을 때는 작은 나라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페르시아가 세계적 제국이 될 것이라고 그 국명을 분명히 밝혀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바벨론이 고레스에게 정복당하고 고레스 대왕에 의하여 페르시아가 세계적 제국이 된 것은 기원전 538년입니다. 그러므로 대제국 페르시아가 건국되기 12년 전에 그 사실을 예언한 것이며, 과연 그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겨우 12년 후쯤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정세에 눈이 밝은 사람은 예측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의 경우는 다릅니다. 대제국 헬라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하여 건설되었습니다. 그것은 페르시아를 정복함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20)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정복한 것은 기원전 331년입니다. 다니엘이 계시를 본 기원전 551년보다 무려 220년 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220년 전에 헬라라는 이름의 나라가 세계적 제국이 될 것을 예언했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이 예언을 하던 그때는 220년 후 미래의 사건이지만, 우리에게 이미 지나간 역사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과 역사를 대조하면서 실험하고 확증할 수 있습니다.

19) 이 예언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말해 보십시오.

20) 헬라에 대한 예언은 건국 몇 년 전에 주어졌습니까?

다.

이 헬라에 대하여는 좀 더 자세한 예언적 묘사가 있습니다. “두 눈 사이의 큰 뿔은 그 첫째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뿔이 꺾이고 네 뿔이 나는 것은 헬라가 네 나라로 나뉠 것을 가리킨다고 하였습니다. 헬라 역사를 보면 틀림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21)첫 왕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가 33세의 나이로 죽을 때, 임종을 지켜보며 누구를 후계자로 세울 것을 묻는 막료들에게 그는 “강한 자가 나라를 차지할 것”이라고 유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후에 장군들은 나라를 차지하기 위하여 서로 나뉘어 싸웠고 마침내 카산데르, 셀류쿠스, 리시마쿠스, 프톨레미 등의 네 장군이 각각 영토를 나누어 나라를 세우므로 이 예언은 한 오리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미심쩍은 사람은 자세히 기록된 서양사 책을 읽어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22)“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를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고레스에 대한 예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 기원전 750~680년경에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23)그의 말년을 두고 말할지라도 고레스가 출현하기 150년쯤 전입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의 이름을 그의 예언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와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하며 못문을 쳐서 부수며 쇠빰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21) 어떻게 헬라가 네 나라로 갈라지는 예언이 이루어졌습니까?

22) 이런 성취를 보면 무슨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까?

23) 대략 고레스가 출현하기 몇 년 전에 그 이름이 예언되었습니까?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
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사 45:1~4).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예언을 하실 때에 아직 고레스는 태어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칭호 곧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태어나
지 않은 사람에게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²⁴⁾
그리고 그를 이끌어 열국을 치게 하여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자로
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기이하지 아니합니까! 이뿐 아닙니다.

헤로도토스의 증언

25) **고**레스가 어떻게 바벨론을 쳐서 점령할 것인지도 예언하였습니
다. “깊음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
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네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
라.”(사 44:27, 28) 먼저 인용한 말씀과 이 말씀 중에는 고레스가 바
벨론을 점령하는 전략적 방법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특히 “깊음에
대하여 마르라 강물들이 마르게 하리라”는 예언이 그것입니다. 바벨
론 성은 이중 성벽이 두른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아무리 고레스
의 군사가 강하였어도 함락시킬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결국 고레스
는 바벨론 성벽 아래로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의 물길을 돌려서 성벽
밑으로 뚫린 강바닥을 따라 군사들을 성내에 들여보냄으로 바벨론 성

24) 하나님은 고레스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입니까?

25) 고레스가 어떤 방법으로 바벨론을 점령하겠다고 예언했습니까?

을 점령한 것입니다. 깊은 강물이 마른 것입니다. 26)이때의 상황을 헬라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그의 역사책 페르시아 전쟁기에 다음과 같이 적어놓았습니다. “시간은 경과되고, 그 성에 대한 진격을 시도할 수 없게 되자, 고레스는 아주 당혹하게 되었다. 이러한 번민 중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이 그에게 제안했는지 아니면 스스로 궁리한 것인지 모르는 한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강이 성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지점에 그의 군대를 배치시켰고, 강이 성 저편으로 흘러 나가는 지점에도 군대를 배치하여 놓고, 물이 건널 수 있을 만큼 얕아지자마자 강바닥을 통해 진군해 들어가라고 명령을 해 놓았다. 그런 다음 그 자신은 그의 군대 중에 비전투 인원들을 데리고 철수하여 전에 니토크리스가 이 강을 위해 파 놓은 웅덩이를 향해 진군했는데, 거기서 그는 니토크리스가 한 것과 똑 같이, 수로를 통해 당시 높지였던 그 파 놓은 분지로 강물이 흘러 들어가도록 유프라테스를 돌려놓아서 본래의 강바닥으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강물의 수위가 낮아지게 하였다. 이쯤 되자, 이 목적을 위해 바벨론의 성벽 밑에 배치되어 있던 페르시아 군사들은 강물이 사람이 넓적다리 중간쯤에 이를 만큼 찾아지자 강물로 들어섰으며, 그리하여 성안으로 들어갔다”(헤로도토스, 페르시아 전쟁 제 1권, 190, 191장). 적어도 150년 전에 이것을 예언하였는데 얼마나 정확히 문자대로 성취되었습니까? 물론 고레스는 이 예언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때까지 모르고 있었으니까 이사야의 예언을 읽었을 리가 없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종말을 보이시는 하나님이 장차 고레스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바벨론 성을 점령할 것을 미리 아신 고로 예언하신 것이며 고레스는 예언대로 바벨론을 점령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훗날 고레스가 이사야의 이 예언을 읽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으며 또한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자기가 승리한 것이

26) 이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누가 증언하였으며 그 내용은 어떠하였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섭리에 의한 것을 알았을 때에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27)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이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와 전을 건축하라.”(스 1:2, 3)고 조서를 내림으로, 고레스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권세를 자기에게 허락하신 것을 솔직히 시인하였습니다.

너무 정확한 예언 때문에

28) **너**무나 정확한 예언과 그 성취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기록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역사적 사건이 이루어진 다음에 어떤 사람이 예언적 형식을 취하여 기록한 것이므로 것처럼 정확히 말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처럼 정확히 기록할 수 있겠는가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시는 분이라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한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은 일이 이루기 전에 예언하셨습니다.

29) 태어나기 오래 전에 이름을 예언하고 그가 할 일을 예언한 것은 고레스가 그 첫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시아에 대한 예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방 왕국의 첫 왕인 여로보암이 벰엘에 단을 쌓고 분향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배도할 때에 “하나님

27) 고레스는 어떤 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습니까?

28) 예언의 정확성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29) 태어나기 오래 전에 그 이름과 할 일이 예언된 사람은 또 누가 있습니까?

의 사람이 여호와와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벨엘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와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단아 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 제사할 것이요”(왕상 13:1, 2)라고 예언하였습니다. ³⁰⁾여로보암은 기원전 931년에서 910년경까지 재위한 왕입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기원전 640년에서 609년경까지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태어나기 300년 전에 그 이름이 주어졌고 그가 할 일을 예언하였는데 과연 요시야는 그 예언된 일을 성취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벨엘에 세운 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뺏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묘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묘실에서 해골을 취하여다가 단위에 불살라 그 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와 말씀대로 되었더라.”(왕하 23:15, 16)

다니엘서 12:4에는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할 것이며 지식이 더하리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마지막 때가 언제부터인지 알기 위하여 다니엘서를 자세히 연구하면 1798년부터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³¹⁾오늘날 우리들이 누리는 대부분의 문명의 이기들은 1798년 이후에 발견 발명된 것들이며, 특히 교통수단의 대량화와 속도화는 더욱 그러하여 눈부신 발달이 아닙니까!

³²⁾과학자 뉴턴이 다니엘서를 주석한 사실은 유명합니다. 그는 다니엘 12:4절을 해석하면서 앞으로 사람이 지상을 50마일의 속도로 달

30) 이 예언은 그 사람이 태어나기 몇 년 전에 주셨습니까?

31) 다니엘의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32) 뉴턴의 다니엘서 해석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릴 때가 올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불란서의 어떤 무신론자가 성경은 사람을 미치게 하는 책이다 그렇지 않고야 뉴턴 같은 과학자가 이런 엉터리 소리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엉터리 소리를 하게 하는 성경은 아마도 100년 내에 지상에서 자취를 감출 것이라고 빈정거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시속 50마일로 달리면 그것을 보는 소는 풀을 뜯을 수 없을 것이며, 닭은 알을 못 낳게 될 것이며, 임신부는 유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뉴턴의 안목이 짧았던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³³⁾그러나 그 당시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였음이 틀림없습니다. 뉴턴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 있으며 아직도 역사합니다.(히 4:12 참조) ³⁴⁾“너희는 여호와와 그의 책을 자세히 읽어 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와 그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사 34:16)

고등비평과 그 패배

성경은 과연 믿을 수 있는 책입니까? 결론코 믿을 수 있는 책입니다. 따질 것 없이 처음부터 당연히 그랬습니다. 그러나 의심하는 것이 생리가 되어 있는 불신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모든 성경 자체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절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를 주저하였습니다. ³⁵⁾특히 문예부흥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그때까지 믿어오던 많은 고대 세계에 대한 기록들과 지식에 잘못된

33) 과학자 뉴턴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34) 여호와와 그의 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35) 언제부터 사람들은 더욱 성경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까? 왜 그런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되었습니까?

것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어 고대에 대한 그들의 지식과 신뢰를 수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그런 풍조는 자연스럽게도 신성불가침으로 여겨왔던 성경도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기울어지면서 그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마땅히 비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³⁶⁾이래서 소위 고등비평이라는 학문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풍조가 불신자에게 있다면 그럴 수 있다고 이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확실한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공격이 소위 신학자들에게서 나올 때는 교회 자체가 얼마나 당황하게 될 것입니까?

18세기에 장 아스튀르(Jean Astruc 1766 사망)에게서 싹이 터서 조금씩 자라던 ³⁷⁾고등비평은 19세기에 율리우스 벨하우젠(Julius Welhausen 1844~1918)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의 역사 서설”이 출판되면서(1878, 2판 1883), 그래도 그때까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던 기독교계에 정말 원자탄 같은 파괴적 이론을 빈틈없는 조직적인 연구로 내놓았습니다. 이 책의 출판으로 그 이전에 쓰였던 구약성경 관계 책들은 모두 쓰레기로 처리 될 수밖에 없을 정도였습니다. 온 신학계가 그의 주장을 따라 흥분하는 것 같았습니다. ³⁸⁾그의 연구의 치밀하고 과학적인 주장에 압도된 보수적인 학자들은 이론으로 반박할 말을 잃고 망연자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구약성경 특히 모세 오경과 여호수아(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여호수아까지 포함하여 욥경이라 함)는 모세가 기록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기원전 6세기경에 어떤 종교적 천재가,

36) 이런 생각의 결과로 무엇이 생겼습니까?

37) 누구에게 이르러 고등비평은 절정에 이르렀습니까?

38) 그의 주장은 어떠했습니까?

이리 저리 굴러다니는 종교 문서들을 모아서 역사적 줄거리가 서도록 편집한 소설적인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인물은 결코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고, 창세기에 나타난 역사적 배경은 기원전 6세기경의 역사적 배경이며, 거기다가 기원전 2000년경의 인물들을 등장시켜서 꾸민 이야기라고 극언을 한 것입니다. 39)그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편에 서서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이적행위(利敵行爲)를 하는 학자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언필칭 진실을 진실대로 밝혀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실보다도 정함이 없는 인간의 소위 학문적 진실을 믿기를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신학자라는 이름의 인간학자들일 뿐인 것입니다.

하여튼 성경은 큰 위기를 만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40)그러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계시의 말씀이라고 믿는 학자들은 글 싸움을 하는 대신 41)성경의 권고대로 땅에게 물어 보기로 하였습니다.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욥 12:8) 그래서 “돌들이 소리 지르”(눅 19:40)도록 하였습니다. 즉 성경 고고학에 의하여 그런 고등비평의 허구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42)성경에 기록된 옛날 역사들이 고고학자들의 삽에 의하여 깊이 묻혔던 땅속에서 빛을 보게 되었을 때 성경이 빛이라는 사실을 온 세계에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실제 인물이고 성경에 기록된 그들이 살던 시대의 역사적 배경 기록은 틀림없다는 것이 훤히 드러난 것입니다. 고등비평가들이 역사적 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던 성경

39)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 편에 서 있습니까?

40) 신실한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하였습니다?

41) 성경은 누구에게 물어 보라고 요청합니까?

42) 성경 고고학은 성경의 역사적 진실성을 증명하였습니까?

에 기록된 여러 가지 고대의 역사적 사건 기록들이 성경 고고학에 의하여 분명한 역사적 사실로 확인된 것들은 지면관계로 여기에서 기록할 수 없습니다. 알기를 원하는 독자들은 성경 고고학에 관한 책들을 구하여 읽으면 유익할 것입니다. 고등비평가들은 그런 고고학적 증거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고고학적 증거가 나타나지 아니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 적어도 역사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에블라의 발굴로 종언을 고하고 말았습니다. 발굴된 점토판에는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창 14:2)이 성경에 기록된 차례대로 나타나 있고 그 나라들(도시 국가)이 경제 강국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고모라 왕은 성경에 기록된 이름(창 14:2)과 같은 철자로 구성된 이름인 것까지도 발견되었습니다. 과연 땅은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이 시대에 소리치고 있습니다. 고고학의 돌들은 성경의 확실성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43)그 확실성에 압도된 벨하우젠 학파의 고등비평가까지도 “우리는 족장들의 이야기의 배경이 기념비들에 의하여 증거된 바와 같이, 문제시되고 있는 그 시대의 고대 동방 문화와 환경과 하나 하나의 세목에 이르기까지 서로 일치한다는 사실을 보았다. 벨하우젠은 족장들의 이야기들이 역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견해로부터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지금은 족장들의 이야기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아브라함이 정말 생존하였다면 성경에 묘사된 조건과 환경 아래서만 가능하였을 것이다. 역사적 연구는 이것에 만족하지 않을 수 없다”(알프레드 예레미아스, 고등비평가)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44)만일 고고학적 증거가 없다면 성경은 믿을 수 있는 책이 못됩니까? 결코 아닙니다. 사실은 성경 때문에 고고학이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45)성경은 다른 것의 증거에 의하여 그 믿을 수 있음

43) 고등비평가가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44) 고고학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을 증거하는 책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명백히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책입니다. 성경을 믿을 수 있다는 증거는 사실 성경 자체가 가장 확실하고 권위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역사적 기록으로도 진실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의 예언적 성취로서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것이 증명되었고 지금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과연 믿을 수 있는 책입니까? 너무나 확실히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실험으로 증명된 과학적 사실인 것입니다.

사해사본의 증언

그래도 혹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46) “처음에는 그랬더라도, 지금은 원본이 하나도 없지 않는가. 성경이 사본되어 내려오면서 원래의 순수성을 많이 잃어버렸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전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는 어려울 것이다.”

언뜻 보기에 이런 말은 그럴 듯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경을 사본하는지를 알면 그런 걱정은 기우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⁴⁷⁾ 1947년에, 성경 사본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를 증명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1947년 2월 3일 무하맛 아드 디버는 자기가 돌보는 주인의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고 걱정이 되어 친구와 함께 잃은 양을 찾으러 사해 근방 굴들이 많은 산비탈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굴 앞에 이르러, 혹시 양이 그 안에 들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 굴이 얼마나 깊은지 알아본 후에 굴속을 탐색하려고 굴속으로 돌을

45) 성경은 다른 증거에 의하여 믿을 수 있는 책입니까?

46) 사람들은 아직도 어떤 미심쩍은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47) 사해사본을 찾게 된 경위를 말해 보십시오.

던졌습니다. 그랬는데 굴은 알았고 굴속에서 오지그릇 깨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조심스럽게 굴속에 들어가 깨어진 독을 발견하고 그 속에 들어 있는 두루마리들을 갖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20세기의 성경 연구를 위한 최대의 수확이라고 하는 사해사본 발견의 시초였습니다. 48) 그때 발견된 것 중에 온전하게 보존된 이사야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발견되기 전의 이사야서 사본의 가장 오래된 것보다도 거의 천년이나 오래된 사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 세월동안 사본해 오는 중에 얼마나 많이 틀렸을까 하는 것이 사람들의 관심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현재의 이사야서와 면밀히 대조하여 그 다른 점을 조사하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지극히 지엽적인 것들(토씨나 접속사 등)외에는 내용상에 서로 다른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49) 과연 성경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이 명하고 그 신이 모은”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지켜 오셨기 때문입니다. 결코 오류가 없이 정확 무오하게 보존하신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성경을 파괴하려는 시도가 극심했던 것을, 이 문제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알 것입니다. 50) 19세기에 일어난 소위 고등비평은 교회 안에서 신학을 한다는 사람에 의하여 성경은 믿을 수 없는 책이라는 운동이었습니다. 51) 그러나 그것도 성경 고고학의 발달과 함께 그 주장의 거짓됨이 드러남으로 성경의 신뢰성을 결코 흔들리지 못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오늘과 같이 보존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을 믿을 수 있는 많은 증거를 성경이 가지고 있습니다

48) 사해사본 이사야서와 현재 이사야서의 차이점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49) 누가 성경을 지켜 오셨습니까?

50) 고등비평은 무슨 운동이었습니까?

51) 고등비평이 성경의 신뢰성을 파괴할 수 있었습니까?

다. 그러나 이 만큼만 적어도 확실하지 않습니까.

52) 정말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53)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벧후 1:20, 21)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 신이 모으신”것입니다.

54)성경은 “짜이 없는 것이”없으므로 그 짜을 찾아 읽으므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것을 바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해석에 사람의 견해나 해석이 끼어 들 자리를 마련해 두지 않았습니 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뜻을 행하려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줄 알게 되어 있습니다.(요 7:17 참고) 55)“베뢰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 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행 17:11, 12)았습니다. 참으로 성경은 믿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 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롬 10:17)는 것입니다.

56)하나님이 요청한 실험을 해보지 않으시렵니까? “이제 일이 이루 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한 것은 일이 이를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이라도 없 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마 5:18)어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성경은 참으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하여 감 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믿을 수 있다 하고 “왜 사람은 꼭 하나님을, 예수님

52) 성경은 어떻게 풀 것이 아닙니까?

53) 성경은 어떤 방법으로 기록되었습니까?

54) 성경은 어떤 방법으로 해석해야 합니까?

55)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까?

56) 다시 한번 어떻게 성경은 믿을 수 있는 책인 가를 확증해 보십시오.

을 믿고 살아야 하는가?” 라는 문제도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장에서는 이 문제를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사람은 왜 믿고 살아야 합니까?

나는 군대 생활을 할 때, 나의 신앙 때문에 상당한 제약을 겪으며 지냈습니다.

이런 나의 모습을 지켜보던 동료들이 어지간히 답답하고 딱했던 모양인지, 동정 어린 음성으로 좋은 의미의 권고를 했습니다.

“김 병장, 뭐 그리 어렵게 살려고 그래요. 사정 따라 살지.”

“어렵다니, 나는 어려운 것 못 느끼고 지내는데. 뭣이 그리 불편해 보여요?”

“무얼 믿고 산다는 건 더 편하고 행복하게 살아 보겠다는 것 아니요?”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뭣이 잘못 되었소?”

“이 군대 생활이 김 병장의 믿음 생활로 인해 더 어렵고 힘 드는 것 아니요. 괜히 그렇게 능청 떨지 마시오.”

이때, 잠자코 있던 한 동료가 불쑥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이야, 예수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믿어야 살 수 있다는 사람들 말이야, 그 다 약하다는 증거야. 믿어야 살겠다는 것은, 그 혼자 살아갈 자신이 없는 약자들의 모습 외에 아무 것도 아니야.”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 군인 친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왜 사람은 믿고 살아야 합니까? 한번쯤은 생각해 볼만한 문제가 아닙니까?

나는 그때 그 동료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박 병장 말이 옳아요. 그런데, 박 병장은 강하기 때문에 아무 것도 믿지 않아도 살아 갈 수가 있다는 말이지. 그런데, 박 병장이 약하지

않다는 증명을 한번 해봐요.”

“...”

“나는 아무 것도 믿지 않고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으니 나는 강하다. 그렇게 생각하시오? 그건 증명이 아니고 주장일 따름이지. 그런 주장은 증명이 되기 전에는 설득력이 없어요. 내가 다시 물어 봅시다. 그래 박 병장은 죽지 않을 자신이 있소?”

“안 죽고 살 사람 누가 있는데.”

1)“옳은 말이야.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은 약하다는 증거지.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한 가지뿐이야.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가 약한데 약한 것을 알고 시인하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약한데 약하다고 생각도 안하고 그것을 시인하지도 안 하는 차이야. 박 병장이나, 나나 다 죽는데 본질적 의미에서 박 병장이 나보다 강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

2)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데서 시작합니다. 제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죽음을 이길 용사는 없습니다. 인생의 날은 짧고 그 날들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 9:27)

죽는다는 것 그것은 누구든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거부하고 싶은 상식입니다. 그러나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3)그런데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히 2:15)들입니다. 흥기를

1)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2) 성경이 말하는 믿고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사람은 무엇을 무서워하여 평생 종노릇합니까?

눈앞에 들이대고 죽인다고 위협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구하는 것은 뭐이든지 들어줄 터이니 부디 목숨만은 살려 달라”고 애걸복걸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인생의 연약성 곧 죽을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음을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4)“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시 39:4~6) 그래서 모세는 “우리의 년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년 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시 90:10,12)라고 탄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경의 기록이 아니라도 우리의 일상생활의 경험에서 얻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언제 죽어도 한번 죽을 그 하잘 것 없는 목숨을 위하여 그렇게 천하게 애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죽인다는 사실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살고 싶은 욕망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런 대답을 더 재미있게 생각합니다. 5)죽이면 죽기 때문에 죽인다는 위협을 그렇게 무서워한다는 대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죽어도 죽지 않을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는 죽인다는 위협이 우스운 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죽습니다. 그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4) 시편 39:4~6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현재의 나를 돌아보면 어떠합니까?

5) 왜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합니까?

사람은 죽게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살고 싶을까요? 하지 말라는 것은 더 하고 싶은 인간의 비뚤어진 심리 때문일까요?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6)사람의 본성 깊은 곳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전 3:11)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7)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죽게 된 것은 창조된 인격적 존재에게 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살고 계속 사는 것이 자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죽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죽을 길을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후에 스스로 선택한 그 죽음에서 도무지 헤어 나올 수가 없게 되어 이처럼 안타깝게 찢절매는 것입니다.

존재의 공식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 학문은 미생물에서부터 진화하여 사람이라는 고등동물에 이르렀다고 가르칩니다. 8)그러나 이것은 결코 한 번도 증명되지 아니한 가설일 뿐입니다. 나는 여기서 진화론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진화론을 비판할 만큼 그 방면에 대한 지식이 내게는 없습니다. 다만 사람이 어떻게 있게 되는지 현실적인 일에서부터 생각해 보면서, 죽음이 왜 이르러 왔는지 함께 의논해 보려고 할뿐입니다.

우리 중 아무도 스스로 있는 자는 없습니다. 이 말은 부모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자는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부모가 나를 낳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닙니까? 9)그렇다면 나의 존재 즉 사람의

6) 사람이 살고 싶어 하는 근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7) 사람은 죽는 것이 원래 창조된 상태입니까?

8) 진화론은 증명된 학문입니까?

존재는 존재하는 자신의 의지에 의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 아납니까? 나를 존재하게 한 어떤 의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 없이 존재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설령 살아갈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근원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부모에게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사람이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10) 사람은 아무도 자기를 존재하게 한 자와 관계없이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기들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자랍니다.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 속에서만 생명과 생활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11) 믿는 것은 이런 관계를 확인하고 바르게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것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태어나서 엄마 품에 안겨 젖을 먹는 것부터, 엄마와 아빠와 할아버지, 할머니, 형제들의 품을 오가며 자란 모든 과정이 믿음을 배우고 연습하는 과정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논의를 더 위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내 부모의 부모, 그 위의 부모,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최초의 존재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우리가 존재할 수 있도록 된 어떤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만 사람은 존재하며 생명과 존재를 영속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아기들이 부모로 말미암아서만 존재하고 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일까요?

9)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의지에 의하여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10) 사람은 누구와 관계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까?

11) 믿는다는 것은 누구와의 어떤 관계를 뜻합니까?

인간 존재의 근원

¹²⁾ 성경은 이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계시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는 다음에 차례가 올 때에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우리의 존재와 생명에 관련하여 잠깐 말하면서 왜 믿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보려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사람도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는 아무 것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에는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¹³⁾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나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신 32:6). ¹⁴⁾그래서 사람은 그 존재와 생명의 줄을 하나님과 연결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이 줄이 끊어지면 사람은 생명을 잃고 존재도 잃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생명의 영속적인 공급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태어난 아기가 어머니로부터 젖을 계속 공급받아야 생명이 연속되며 아울러 존재가 계속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장성한 사람에게도 같은 이치입니다. 계속해서 음식이 공급되어야 생명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힘을 쓸 수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은 그분의 말씀이요, 사람이 그 생명을 공급받는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끊어지면 사람은 생명을 잃게 되고 존재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¹⁵⁾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분명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12) 우리의 존재의 최종적이며 영속하게 하는 근거는 누구입니까?

13)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와 어떤 관계라고 말합니까?

14) 왜 존재와 생명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까?

15) 무엇이 생명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요 6:63)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요 8:51)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생명의 말씀을 밝히”(빌 2:16)는 일이라고 제시합니다. ¹⁶⁾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존재하고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하였고 계속 지키는 중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때에 그 모든 후손도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게 될 것이며, 그들은 또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생명과 존재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사망이 된 경로

¹⁷⁾ 그런데 인류의 시조로 지음을 받은 아담이 아직 한 생명도 낳기 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스스로 하나님이 연결해 준 생명줄을 끊어 버린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창 2:16,17)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요 1:1,4) 첫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생명이 있을 것이고 지키지 아니하면 생명과 존재가 없어질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¹⁸⁾그런데 시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16) 사람은 처음부터 어떤 상태에서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17) 인류의 시조가 하나님과의 생명의 줄을 끊은 때는 어느 때입니까?

18) 선악과를 먹는 일은 실제적으로 무엇을 뜻합니까?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 지라.”(창 3:6) 이렇게 하여 인류의 시조는,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과 존재라는 사실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처음부터 존재하다가 만 상태가 된 것입니다.

19)흔히 사람들이 선악과를 탐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죄와 타락이 없었을 것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그것은 선악과의 참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존재의 한계를 지적하는 표였을 뿐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존재는 하나님 곧 창조자의 말씀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나타난 형상일 뿐입니다. 20)그러므로 그것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고 그 결과는 생명과 존재를 거절하는 것이 되는데 곧 하나님의 창조를 단호히 거절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창조 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필경은 흠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흠이니 흠으로 돌아갈 것이니라.”(창 3:17,19) 창조되기 전 상태 곧 흠으로 환원된 사실을 분명히 지적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죄의 정의(定義)

21)이렇게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죄를 짓는 것이라 하고 그렇게 된 결과를 죄라고 합니다. 22)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생명선이 끊어졌으니 죽을 수밖에 없고 필연적으로 존재를 잃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삶은 사망(롬 6:23)이라고 성경이 선언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19) 선악과의 참 뜻은 무엇입니까?

20) 선악과를 먹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합니까?

21) 죄를 짓는 것과 죄는 무엇입니까?

22) 죄를 지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롬 5:12)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롬 5:19)이 되었습니다. ²³⁾그래서 **아담의 모든 후손은 태어나면서 죽은 자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아담의 모든 후손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이런 사실을 성경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함이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시 51:5)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고전 15:22)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²⁴⁾“아담이 죄를 지어 죽었는데 왜 후손도 죽어야 합니까?”라는 이유 있는 항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라는 문제를 공부할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만,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이 아담의 영생의 생명을 순종의 줄로 연결해 놓으신 후, 아담의 모든 후손의 생명은 아담 안에 연결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한 생명도 낳기 전에,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줄을 불순종으로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모든 후손은 이미 아담 안에서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집안에 전원을 연결할 플러그가 하나 뿐인 집에, 사용할 전기 제품이 많을 때 불가불 플러그가 여러 개 있는 멀티 플러그를 사용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 들어온 하나 뿐인 전원 플러그에 연결되어 있는 멀티 플러그에 모든 전기 제품의 코드를 연결했을 때는 모든 전기 기구들이 다 작동할 것입니다. 그런데 멀티 플러그의 줄을 그 집에 하나 뿐인 전원 플러그에서 빼내면 모든 전기 제품들은 동시에 전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럼,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아담

23) 아담의 모든 후손은 어떤 상태로 태어납니까?

24) 아담이 죽은 자가 된 일로 그의 모든 후손이 죽게 된 이치를 설명해 보십시오.

이 생명줄을 끊었을 때 함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들이 산 자가 아니고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다만 살아 있는 것 같을 뿐이요 실상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선언하며, 방금 태어난 갓난아이라도 이런 뜻에서 죄인인 것입니다. 뒤에 다시 부연하겠지만 사람들은 죄를 도덕적인 성질과 행위에 의하여 생각하기 때문에 갓난아이라도 죄인이라는 성경의 선언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많은 기독교 학자들은 죄가 유전된다고 주장합니다. 즉 아담의 도덕적 부패성이 유전된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유전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명쾌하지도 못합니다. 심지어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음으로 아들의 이가 시다”(겔 18:2)는 말은 다시 하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며, 아들이 아비의 죄를 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19절) 어떻게 아담이 지은 죄가 그 후손에게 유전적인 죄가 되느냐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주장들은 죄를 도덕성에서만 이해하려는 태도에서 나온 잘못들입니다. ²⁵⁾성경은 죄를 존재와 생명의 문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말한 대로 아담 안에서 그의 모든 후손은 이미 생명도 없고 존재도 없어졌습니다. 갓난아이라도 이미 아담 안에서 생명과 존재를 잃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그도 죄인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사람은 다 약하다고 했고 그 약한 증거가 죽는 것이라고 한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구상에 살았고, 살고 있고, 또 앞으로 태어날 모든 아담의 후손은 산 자로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담 안에서 죽은 자로 있는 것입니다.

²⁶⁾이것이 사람이 믿고 살아야 할 이유인,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25) 성경은 죄를 어떤 관점에서 다루고 있습니까?

26)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할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상태에 있게 된 경위입니다. 또한 이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즉 예수를 믿음으로서만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기독교 복음의 전제(前提)이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27) **이와 같이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죽은 상태로 살아간다는 말은 모순 개념입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모순을 느끼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것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살았기 때문에, 살았으나 죽은 것을 깨달을 수 있고 이렇게 깨달으므로 마침내 죽었으나 살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도덕적인 선 때문에

이러한 근원적인 이치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단정하는 성경의 주장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미 말한 대로 28)사람들은 죄를 도덕성에서 찾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죄라고 말하는 것은 주로 도덕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양심적으로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면 의인이나 성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아주 그럴듯한 착각입니다. 29)사람들은 이런 착각에 최면 당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실상을 깨달으려 하지 않고 또한 깨닫지도 못합니다. 이런 최면을 강하게 거는 사람들이 종교가들이요 도덕가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하는 선한 노력으로 사람들에게 죄의 실상을 보지 못하게 하는 최면을 걸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조차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죄의 진상을 모르는 상태로 최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기독교의 지도자들까지도

27) 어떤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까?

28)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무엇을 죄라고 생각합니까?

29) 사람들은 왜 죄의 실상을 잘 모릅니까?

이런 최면술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딱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죄를 모르면 속죄를 모르고 속죄를 모르면 구원을 모릅니다. 이 말은 사망과 생명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말과 같습니다.

어느 지방에 전도회를 인도하러 학생 전도대를 이끌고 내려갔던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한 청년이 전도대원의 안내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모 종단의 한 분파의 그 지역 청년 회장이었습니다. 대화중에서 나는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귀 교(敎)에서 가르치는 중심 교의는 무엇입니까?”

“모든 종교가 가르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권선징악을 가르치고 있지요.”

“그렇군요. 그러면 무엇을 선이라 하고 무엇을 악이라 합니까?”

“그거야 다 아는 것 아닙니까.”

“다 알다니요?”

“아이구, 선생님, 뭐 그렇게 따지십니까? 도덕적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여 선을 지향하고 악을 버리고 죄를 짓지 말라고 가르치지요. 기독교도 같은 일 하지 않습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이나, 싸움이나, 사기나, 살인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을 돕고 덕을 베풀며 인격을 도야하라고 가르친다는 말씀이군요.”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이 죄입니까?”

나의 이 엉뚱한 질문에 그는 당황하는 듯하고 의아한 듯도 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런 것들이 죄가 아닙니까?”

“아, 죄지요, 죄고 말고지요. 그런데 그것이 왜 죄냐 말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살인이 죄가 안 되는 것 같던데요. 식인종 사회 같은데

말입니다. 또한 전쟁에서 적군을 죽이는 것을 죄라고 하지 않지요? 그러면 죄는 지역과 문화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죄를 도덕적인 것으로 이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설교단에서 이와 같이 설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덕적 죄들은 분명히 죄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수신도야를 통하여 도덕성을 온전히 회복하고 도덕적 선을 이루므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30) 그러나 아무리 성인으로 추앙되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결국 죽고 없어졌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상태”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창조 전의 상태인 흠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인군자라는 역사적 인물들도 여전히 죄인이었다는 말이지요.

성경은 아무리 탁월한 도덕적인 선인이라도 또한 그렇지 못한 범인이나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31) 왜냐하면 성경은 도덕 이전의 죄에 대하여 분명히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면 도덕적인 죄의 원인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은 도덕적인 존재로 자처하지만 태어난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누구든지 도덕적으로 살지 못합니다. 도덕적 요구와 인간의 비도덕적인 본능의 욕구 사이에서 인간은 번번이 도덕성을 희생시키며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을 도덕적인 실행(失行)이라고 한탄하며 죄책감을 깊이 느끼기도 합니다. 32) 도덕적인 실행이 분명히 죄입니다. 이것은 죄인들에게서 생활로 나타나는 죄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죽은 자로 있는 인간의 부패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신(修身)을 하고 도야(陶冶)를 하여 도덕성을 함양하고 선을 이루려고

30)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증거입니까?

31) 도덕적인 죄인이 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32) 무엇이 도덕적인 죄들을 짓게 합니까?

합니다. 이런 노력의 모습은 인간의 본질적 상태가 그대로는 도덕성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수양과 도야를 통하지 않고는 도덕적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까? 곧 그냥 두면 동물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이지요. 왜 그렇게 됩니까? 사람이 죽은 자로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는 썩기 마련입니다. 방부(防腐) 처리를 하지 않는 한 썩습니다. 도덕적 수양과 도야는 방부 처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은 것을 살게 하지는 못합니다.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자들

³³⁾ 성경이 말하는 죄는 사람이 죽은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모든 도덕적 죄는 이 죽은 자들의 썩는 모습이라고 가르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사 59:2)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행하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엡 4:18, 19, 22) 존재가 된 것입니다.

³⁴⁾ 성경은 모든 피조물을 “썩어짐의 종노릇”(롬 8:21)하는 것으로 단정합니다.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한 이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 가지가 원 등치에 붙어 있으면 살아 있는 것이요, 썩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지가 원 등치에서 잘려 나오면, 그 잘려 나온 순간에는 붙어 있을 때나 별 차이가 없는 상태를 지니고 있지만, 그 순간부터 그 가지는 마르고 썩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3) 성경이 말하는 죄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34) 성경은 사람들도 어떤 존재라고 단언합니까?

그 스스로는 이런 상태를 고칠 도리가 없습니다.

35)그와 같이 아담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모든 사람이, 아담이 하나님께 연결된 자기 생명을 잘랐을 때에 아담과 함께 아담 안에서 이미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서 **“썩어질 씨로 된 것”**(벧전 1:23)이라고 말합니다. 아담의 생명은 썩어질 생명이요 그에게서 태어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게 되지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합니다(요 6:27). 또한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노력합니다(고전 9:25). 그리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꿉니다.(롬 1:23) 그러므로 사람은 스스로의 노력이나 수양으로 이런 썩고 죽는 상태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썩어질 씨로 태어난 자가 어떻게 썩지 않겠습니까? 죽은 자로 태어난 자가 어떻게 스스로 노력하여 살아나게 되겠습니까? 만일 살아날 길이 있다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자가 죽은 자를 살리는 방법 외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36)지금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생명이란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요 본질상 생명이 아닙니다. 다만 죽지 않을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주어져 있는 생명 현상일 뿐입니다. 이것은 나무에서 잘려 나온 가지가 아직 나무에 붙어있는 것과 비슷한 상태, 곧 아주 말라버리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 마치 접붙이듯이 얼른 원 동치에 잘 붙여서 원 동치에서부터 생명을 다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면 다시 살 수 있는 것과 같이, 사람들도 살아 있는 것과 같아 보이는 생명현상이 있는 이런 기회 동안에 진정한 생명의 존재가 되도록, 사람을 참

35) 어떻게 모든 사람이 썩어짐의 종노릇하게 되었습니까?

36) 사람들의 현재의 생명은 어떤 것입니까? 이 생명의 기간에 어떤 일을 이룰 수 있습니까?

생명으로 살리실 생명이신 분에게 자기를 맡겨야만 합니다. 37)그 생명이신 분이 태초에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시요, 그에게 우리를 맡기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8)이미 말한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죽기를 무서워하며 영원토록 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죽은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베푸시는 은총입니다. 39)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진정으로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를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도 그 연약한 것을 인정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학문과 문명과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면서 복지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얼마나 허망한 노력이 될 것입니까! 죽은 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부패하는 것밖에 다른 도리가 없고 방부 처리를 하여 보관한다 해도 미라밖에는 더 될 것이 없습니다. 40)모든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바랍니다.(롬 8:21)

그런데 이 썩어짐에서 해방시켜 썩지 않게 하시고 영생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41)“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딤후 1:10)자 이십니다. 그러므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롬 2:7)을 주십니다. 즉 썩지 아니할 씨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지요(벧전 1:23). 이런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37) 사람의 죽은 생명을 살 수 있도록 생명의 접붙임을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뿐입니까?

38) 하나님은 어떤 성질을 은총으로 베푸셨습니까?

39) 어떤 사람들은 믿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까?

40) 모든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41) 예수님은 무엇을 드러내셨습니까?

면류관을 씌지 아니하는 면류관이라고 합니다.(고전 9:25)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벧전 3:10)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씌지 않는 양식 곧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할 것입니다.(요 6:27) 이 사람들은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씌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벧후 1:4) 누구든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씌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갈 6:8) 것입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씌은 것은 씌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고전 15:50)합니다. 씌는 것과 씌지 않는 것, 얼마나 선명한 대조입니까?

⁴²⁾그러므로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현세의 인간의 실상을 아는 것이며, 그것은 또한 사람이 죄의 존재요 죽은 존재요 씌어짐의 종노릇하는 자들이요 그런데도 영생하기를 원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⁴³⁾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왜 꼭 예수만 믿어야 생명을 얻는다고 주장하는가? 세상에 내세를 지향하는 여러 종교가 있지 않은가? 등의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 왜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지, 확신 있는 성경의 대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 무엇을 깨달으면 예수님을 믿고 살게 될 것입니까?

43) 인간 존재의 실상을 깨달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살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십니까?

4.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어느 해 여름, 삼육대학에서 하계 대학을 개강하였을 때, 나는 성경 교리 강좌를 맡아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올라온 초등학교 교사로부터 중고등학교 교사들 30여명이 수강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강의하고 있을 때였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여선생님이 불만 어린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1)"왜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합니까? 세상에는 인간이 갈 바른 길을 가르치는 종교들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그 주장은 기독교의 독선 같아요."

"예를 들자면, 어떤 종교들을 두고 말씀하십니까?"

"굳이 특정 종교가 아니라도 말입니다. 가령 우리나라 같으면 불교나, 유교나, 또는 마호메트교 등등 말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문을 해 주셔서. 이제 강의를 진행되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 대답을 듣기로 하지요."

독선인가 사실인가

이런 질문은 생각하는 사람이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왜? 꼭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라고 말합니다. 서울 가는 길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길로 가든지 서울만 가면 됩니다. 혹시 고생하면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더러는 편안히 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편한 길을 알기만 한다면 편한 길을 따라 서울로 가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으면 일부러 고생스러운 길을 택하기도 하겠지만, 어떤 길을 택

1) 선생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였든지 서울에 도달할 수만 있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지요.

그런데 서울 가는 길이 오직 한 길 뿐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라는 말이 통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길, 그 길밖에는 서울 가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은 우문입니다. 만일 서울 가기를 원한다면 한 길 밖에 없는 그 길로 가야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를 믿는 그 길밖에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을 얻어야 할 수밖에 없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의 유일한 구주라고 단언합니다. 2)"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행 4:12)

왜? 납득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이슬람교나 불교나 그 외의 다른 종교는 왜 구원의 길이 아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독선적이라고 매도합니다. 3)심지어 요즘은 기독교 안에서 이런 주장은 독선적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너그러운 학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다 선을 지향하고 인류의 구원을 전하고 있으니 연합해서 서로 이해하고 관용하며 보완해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협력해야 한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동조하지 않으면 배타적이라고 호통입니다.

4)과연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 - 종교가 아니라도 구원을 주장하는 어떤 사상들과 연합하고 협력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까? 성경은 단호히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2) 구원을 얻을 어떤 다른 이름이 있습니까?

3) 요즘 기독교 안에서 어떤 주장이 나옵니까?

4) 성경은 기독교가 구원을 위하여 다른 종교나 사상과 연합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아버지께로 온다는 것은 사람이 생명의 근원에 이른다는 것이며,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오직 예수 안에서만 생명의 원천에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에 이르는 다른 길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성경은 이런 주장을 사리에 맞지 않게 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은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말은 사망의 존재라는 뜻임을 지난번에 연구하였습니다. ⁵⁾그러므로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려면 그 구주는 죄인이 아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만일 죄인이면 그도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 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죄인들의 죄와 사망을 그가 대신 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구주라면 그는 죄가 없어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죄의 두면

예수님은 과연 죄인이 아닙니까? 그는 참으로 죄가 없습니까? 어떻게 그렇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⁶⁾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이 말할 때 두 가지 면으로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는 본질적인 면입니다. 즉 사람은 생래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생래적인 죄인인 사람이 살아가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첫째 것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엡 2:3)라고 말하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시 51:5)라고

5) 구주가 될 중요한 자격은 무엇입니까?

6) 죄인의 두 가지 면은 무엇입니까?

말합니다. 또한 그 둘째 것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요일 3:4)고 말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엡 4:18,19,22)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7)둘째 것은 첫째 것의 자연적인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주가 되실 분은 이 두 가지 죄가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만일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이라도 있다면 그는 구주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이 두 측면의 죄가 과연 없습니까? 물론입니다. 결코 없습니다.

8)“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고후 5:21)셨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요일 3:5) 이 말씀들은 예수님이 “본질 상 진노의 자식”이 아닌, 근본적이며 본질적으로 죄가 없으며 죄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죄악 중에 출생하지 않았고 모친이 죄 중에 잉태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즉 썩지 않을 씨 곧 생명 자체로 탄생하셨단 말입니다.

이 주장이 옳은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런가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증명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창조된 남 녀

9)이 문제를 알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때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모든 인류는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3장에서 약속하였듯이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어 구원받지

7) 둘째 면의 죄는 어떤 것입니까?

8) 예수님이 죄악 중에 출생하지 않은 것을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9) 죄에 대한 문제를 이해하기 위하여 무엇을 이해해야 합니까?

않으면 안 되게 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10)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 하나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11)“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창 2:7) 생기를 불어 넣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사람이 산 존재가 되게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욥 33:4) 여기 “기운”이라는 말은 창세기 2:7의 “생기”라는 말과 같은 “네샤마(נֶפֶ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생기 혹은 기운은 사람을 지성적인 존재가 되게 하였습니다. 12)“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욥 32:8)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담 곧 사람은 흙으로 지은바 되었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산 존재가 되었고 또한 이성(理性)이 있는 존재 즉 총명이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의 창조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는 옛세 동안 당신이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고 성경은 기록하였습니다. 물론 둘째 날은 좋았더라는 기록이 없습니다(창 1:6~8).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좋지 못하다”(창 2:18)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왜, 전지하신 하나님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한 줄을 미리 몰라서 남자 하나를 지어놓으신 후에 좋지 못하다는 말씀까지 하시면서 먼저 남자 하나만을 지으셨을까요? 13)또한 여자를 지으실 때는 흙으로 짓지 아니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살

10) 하나님은 최초에 몇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11)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으며, 그렇게 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12) 무엇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니까?

13) 여자는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남녀 창조의 차이를 말해보십시오.

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창 2:21,22)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만드신 여자에게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무슨 깊은 의미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아주 깊은 복음적 의미가 있습니다. ¹⁴⁾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오직 한 생명의 한 통로만 주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생명을 아담에게 불어 넣어 주시고, 아담에게 주신 그 생명으로부터 여자에게 생명이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생명을 불어넣지 아니하고 아담에게서 생명을 나누어주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아담의 모든 후손에게 한 줄기로 흘러내리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¹⁵⁾나는 이것을 생명의 일원성(一元性)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여자는 아담에게서 난 것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고전 11:8)라고 말합니다.

났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¹⁶⁾“나는 부모에게서 났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나의 존재와 생명은 부모로부터 나왔다는 뜻이 아닙니까? 것처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고 하는 것은 여자의 존재와 생명이 남자 곧 아담에게서 나왔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아담을 떠나서 여자의 존재와 생명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서 난 것입니다. 아담이 없었다면 여자는 결코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담의 허리에서 창조된 인류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여자를 남자에게서 나게 하신 후에 결혼을 시키

14)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통로에 대하여 말씀해보십시오.

15) 생명의 일원성은 무엇입니까?

16) “났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로 만드신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 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에 살이라 17)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 2:22~24) 그리고 하나님은 이 새 가정에 축복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18)“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 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 하라.”(창 1:28) 이 축복이 선언되는 때가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창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선언 속에 여러분과 내가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록 잉태하는 모든 아기를 그 순간 순간 직접 창조하지는 아니하실지라도, 태초에 인류의 시조 노아에게 생육과 번성을 명령하신 것으로 아담의 모든 후손은 이미 창조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들의 부모에 의해 그들이 태어날 시간이 각기 다른 것일 뿐입니다.

19)그래서 성경은 후손의 존재를 그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히 7:10) 레위는 아브라함의 증손자입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는 이미 아브라함은 죽은 후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레위를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와 같은 논리로 모든 인류는 아담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담이 없었으면 우리는 아무도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최초의 여자도 역시 그렇지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음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남녀가 동침하여 태어난 어떤 사람도 아담의

17) “여자”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18) 언제 우리들이 창조된 셈입니까?

19) 성경은 후손들이 어디에 있었다고 말합니까?

후손이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의 후손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이미 아담 안에서 아담의 허리에서 죽어 있는 것입니다. 20) 왜냐하면 아담이 여자 외에는 한 생명도 낳기 전에, “사람은 왜 믿고 살아야 합니까?”(3장) 에서 설명한대로 자신을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으로는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스스로 선악과를 먹었으니 죽었고, 아담은 여자가 선악과를 따서 줌으로 먹고 그의 허리에 있는 그의 모든 후손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 21)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22)그러나 하나님이 손수 창조한 그 상태 그대로의 사람을 땅에 충만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처음 창조된 아담이 아닌 다른 아담을 다시 만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처음 창조한 아담 그대로의 의식과 인격을 가진 바로 그 아담을 다시 있게 해야만 합니다. 즉 인격이 같은 아담을 존재하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23)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창조사업은 일차 실패한 것과 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흠이니 흠으로 돌아갈 것이니라.”(창 3:19)고 선고하기 전에, 여자를 피어 선악과를 먹게 한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창 3:15)고 선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는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더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창 3:16) 이런 일

20) 아담의 후손은 왜, 어떻게 죽어있습니까?

21) 의미상으로 세상에 산 사람이 존재합니까?

22) 하나님은 땅에 어떤 존재로 충만하게 해야 합니까?

23) 왜 하나님은 또 하나의 다른 아담을 만들면 안 됩니까?

런의 선고는 아담을 구원하여 창조의 원래 목적을 성취하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였습니다. 그런 후에 아담에게 흠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24)다시 말하면 구원을 약속한 다음에 정녕 죽으리라는 명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하와라는 이름을 지은 때

25)많은 사람들은 아담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 - 영어로는 이브 - 라고 알고 있으나, 그 이름이 언제 지어졌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차근차근 살피는 대신 선입관을 가지고 읽기 때문입니다. 하와라는 이름은 흠으로 돌아가리라는 선고가 있는 다음에 아담이 여자인 그 아내에게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 뜻을 직설적으로 말하면 "생명"입니다.

26)아담이 이런 이름을 지은 것은 아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잃어버린 영생을 하나님이 여자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곧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는 말씀의 뜻을 아담이 확실히 이해하였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이 가르쳐주는 진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아담의 후손은 아담 안에서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27)그러므로 아담의 죽은 생명과 상관 없는 한 다른 생명을 일으키시고 그가 아담의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의 생명 안에서 아담과 아담 안에서 죽은 아담의 모든 후손이 생명으로 회복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24) 하나님은 죄의 결과를 선고하기 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25) “하와”라는 이름은 누가 언제 지었습니까?

26) 아담이 그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지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27)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담의 허리 곧 죽은 아담의 죽은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자체로서 남자와 상관없이 오직 여자만으로 잉태 생산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자의 후손인 것입니다. 모든 아담의 후손은 남자의 후손이고, 아담의 생명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생명 자체로 여자에게서 탄생할 새로운 생명의 근원은 남자와 상관없는 여자에게서 탄생하실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갈 4:4)셨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천사가 일러 가로되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눅 1:26~35)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마 1:18)습니다.

여자에게 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남자를 알지 못한, 남자와 동침한 경험이 전혀 없는 처녀에게서 탄생하셨습니다. 곧 아담의 죽은 생명과 상관없이 탄생하셨다는 말입니다.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 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으매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마 1:24,25) 28)그래서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아담 안에서 죽은 자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아니요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 본질상 생명이십니다.(요 1:4) 29)“예수께서

28) 예수님의 생명과 존재의 본질은 어떠합니까?

29) 우리와 예수님의 다른 점을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30)내가 그인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요 8:23,24)

여자의 후손

31)예수님의 생명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아담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났다는 사실을 비웃습니다. 심지어 신학자들까지도 믿지 않으려 합니다. 32)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의 생명으로 아담의 생명과 상관없는, 죄 없이 오신 구주라는 증명으로 삼으셨습니다. 만일 구주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지 않았으면 그는 전혀 구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순결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본질상으로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인 모든 아담의 후손을 죄에서 구속하실 본질적인 자격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는 동안에 스스로 지은 죄도 없습니다. 33)만일 그가 본질적으로 죄가 없더라도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셔서 사는 동안에 도덕적으로나 율법 상으로나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죄 없는 본질을 더럽히고 맙니다. 사실 아담도 본질상 죄 없이 지음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그

30)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이라는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31) 예수님의 생명은 현재의 우리의 생명과 어떻게 다릅니까?

32) 예수님이 구주라는 증명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33) 본질적으로 죄가 없어도 어떻게 되면 구주의 자격을 잃습니까?

려나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죄인이 되어 죄 없는 그의 본질을 더럽히고 죄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도 죄를 범하면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결코 죄를 짓지 않고 성공적으로 사셔야 하였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그런 삶이 얼마나 어려울 것인가를!

34)아담은 죄가 전혀 없는 환경에서 죄 없는 본성을 가지고 연약하지 않은 완전한 육신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에 걸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의 생명의 본질은 결코 죄, 곧 전혀 사망이 아니지만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육신은, 아담 안에서 죄의 영향으로 연약하여진 육신입니다. 이 말은 그의 육신에 죄가 있다거나, 그의 육신에 죄성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35)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재료인 살(肉)이 아담의 후손들의 살과 같다는 뜻입니다. 피곤하고, 맞으면 아프고, 자야하고, 먹지 않으면 시장하고, 찢리면 피가 나고, 이런 것들이 우리와 꼭 같다는 말입니다. 몸이 가진 생리 현상이 우리와 전혀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죄를, 악한 자의 모든 공격을 이기고 결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사는 일의 어려움을 우리는 가히 상상하지도 못합니다. 마귀는 최초로 여자를 공격하여 정복하자마자 그 여자는 마귀의 편이 되어 아담을 공격하는 일에 가장 효과적인 마귀의 조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 조수가 하나뿐이었으나 예수님의 경우는 온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다 마귀의 조수였습니다. 심지어 그의 모친과 형제와 제자들까지 다 자기들도 모르게 때때로 마귀의 조수노릇을 하여 예수님을 죄에 빠뜨리려고 공격함예라.(요 2:3 ; 막 3:21,31,32 ; 마 16:21~23 등)

36)사단은 그의 조력자들과 함께 생활의 범사에 예수님을 공격하였

34) 아담은 어떤 상태에서도 죄를 지었습니까?

35) 예수님의 육신은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36) 사단은 예수님을 특히 어떤 때에 공격했습니까?

으나 특히 이런 연약성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가하였습니다. 40일 금식하시고 시장하실 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공격했고, 고단하여 배의 고향을 배고 주무실 때 광풍으로 공격했고, 겟세마네 동산의 그 고통의 시간에 집중적으로 공격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슈퍼맨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공격에 우리만큼 약하게 무너질 수 있는 몸이었습니다. ³⁷⁾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한번도, 정말 결코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시고 그 모든 공격의 순간들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요 8:46) 또한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요 14:30,31) 세상 임금은 사단을 가리킵니다(눅 4:5,6 ; 엡 6:11,12). ³⁸⁾사단이 와서 예수님께 상관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시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만 하고 말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인 표현의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특히 존경하는 랍비 힐렐에게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는 성낼 줄 모르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짓궂은 사람이 그를 성내게 할 수 있다고 장담하면서 내기를 걸었습니다. 만일 자기가 힐렐을 성내게 하면 돈을 먹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안식일 예비일을 기회로 잡고 랍비가 안식일 준비를 위하여 목욕하는 시간에 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힐렐은 목욕가운을 걸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37) 누가 예수님을 죄로 책잡을 수 있었습니까?

38)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제여, 어떤 일로 오셨소?"

"예, 랍비님, 사람의 머리는 왜 둥글게 생겼습니까?"

랍비는 열심히 그 대답을 하느라 애를 썼습니다. 그는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떠나왔다가, 잠시 후 랍비가 막 목욕물을 뒤집어썼을 때쯤 또 문을 두드렸습니다. 랍비는 물이 똑똑 흐르는 모습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또 그 사람이 아닙니까?

"형제여 무슨 일이 또 생겼습니까?"

"아, 예, 랍비님, 흑인은 왜 까맣지요?"

힐렐은 또 열심히 설명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또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와 보니 역시 그 사람입니다. 안식일을 예비하는 몫시 바쁜 시간에 쓸데없는 질문을 위하여 무려 다섯 차례나 방문한 그에게 힐렐은 시종 미소 띤 얼굴로 그를 대하였습니다. 그만하면 성을 낼만도 한데 도무지 성낼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짓곳은 사람은 마지막으로 찾아갔습니다. 역시 랍비는 만면에 미소를 띠고 그를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되레 자기가 성을 벌컥 내었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형제여 왜 그러시오? 뭇이 잘못 되었소?"

"당신 때문에 내가 돈을 잃었던 말ियो."

그제서야 그 사람이 그렇게 성가시게 군 이유를 안 힐렐은 말했습니다.

"형제여, 그대가 돈을 잃는 것이 내가 참을성을 잃는 것보다 낫지 않소?"

그 짓곳은 사람은 결코 힐렐이 성을 안낸다는 증명을 하기 위하여 그를 성가시게 군 것이 아니었습니다. 꼭 성내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랍비 힐렐은 결코 성을 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세상에 증거하고만 것이 되었습니다.

사단의 예수님께 대한 공격이 이와 같습니다. 사단의 집요한 공격은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행한다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는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39) 예수님은 결코 범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생각으로도 범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야만 모든 죄인의 대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 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히 4:15)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꾀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벧전 2:22,23)하셨습니다. 그는 아담의 모든 후손보다 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결코 죄를 짓지 않으심으로 대속자로서의 자격을 흠 없이 유지하셨습니다. 40)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고후 5:21)실 수가 있었고 예수님 자신도 마침내 그날이 이르렀을 때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벧전 2:24)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천하 인간 중에 이러한 분이 예수님 외에 또 누가 있다는 말입니까? 결코 없습니다. 예수님 외의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미 아담 안에서 다 죽은 자들일 뿐입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만이 아담의 생명과 상관없는 당신 자신의 생명으로 오신 여자의 후손이며 본질적으로도 생활의 행위로도 죄가 없으시므로,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이며 그래서 생활에 죄의 열매만을 주렁주렁 맺히는 우리 모든 아담 안에서 죽은 아담의 후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롬 4:25)

39) 예수님은 어느 도로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40) 예수님은 우리 대신 무엇이 되셨습니까?

합리적인 질문

이러한 설명이 성경이 가르치는 합리적인 복음의 사실일지라도 아직도 의문의 여지는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1900여 년 전에, 공간적으로는 유대 땅에서 한 사람 예수가 죽었는데 어떻게 아담의 모든 후손이 그를 믿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또 나는 시간적으로 1900여년 후의 사람이요 공간적으로는 한국에 사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나와 개인적이며 유기적이며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참으로 있을만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41)이 문제에 대한 대답이 로마서 5장 12~21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부모와 직접적이며 유기적이며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부모님이 없었다면 내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고조부나 혹은 그 윗대의 조상을 보지 못하였고 대개는 이름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조상들과 직접적이며 유기적이며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없었으면 나는 없는 것입니다. 42)그와 마찬가지로 아담이 없었으면 나는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43)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롬 5:14)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십니다.(고전 15:45)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을 대신하여 그의 죄와 사망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41) 롬 5:12-21에 어떤 문제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까?

42)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43) 아담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표상이 됩니까?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전 15:22) 이제는 아무도 아담의 죄 때문에 죽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아담의 모든 후손이 이미 죄 없이 깨끗한 상태로 태어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중에 태어나고 아담 안에서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될 모든 조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취해졌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아담 안에서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솔직히 시인하고 예수께서 이 모든 죄와 사망을 처리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과 같은 이치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됩니다. 그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이 중생에는 아담의 모든 후손이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결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생명이 아담의 허리에 있었던 것과 같이 영생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에 있으며,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의 존재로 태어난 것과 같이 44)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자가 생명의 존재로 태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담과 내가 개인적이며 유기적이며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과 똑 같은 이치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과 부활은 우리 모든 사람과 유기적이며 개인적이며 지속적이며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고전 15:45), 45)마지막 아담 예수는 하나님인데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려 주는 영이 되신 것뿐만 아니라, 태초부터 살려 주는 영이셨습니다. 흠으로 아담을 빗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아담을 산 영이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요 1:1~3 참고) 그 안에

44) 누구에게서만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45) 예수님은 언제부터 살려주는 영입니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요1:4) 그 생명으로 부활하시고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46) 아무도 아담의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에 이른다고 말 할 수 없습니다. 아담 안에서 사망이 된 죄는 누구에게든지 깨끗이 없어질 수 있도록 이미 예수께서 처리하셨기 때문입니다. 47)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것은 예수께서 이루신 이 속죄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까?

그분만이 여자의 후손이요 그분만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행4:12)

그러면 과연 그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인지? 무엇을 보고 믿을 수 있는 것인지 다음 장에서 연구하기로 하겠습니다.

46) 사람이 멸망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47)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라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결심하십니까?

5. 예수님은 믿을만한 분입니까?

캠보디아가 공산군들에게 정복되었을 때, 그들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신자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교회당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강대상 용 큰 성경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당 문지방에 펼쳐 놓은 다음에 총알이 장전된 총을 겨누고 서서 신자들을 한 사람씩 밖으로 불러내어 퍼놓은 성경 위에 침을 뱉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명령대로 따르면 무사할 것이요. 그러나 명령을 어기는 자에게는 죽음이 있을 뿐이요.”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사람이 예배당 안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자, 침을 뱉으시오.”

총부리와 성경 앞에

명령을 들은 그는 머뭇거렸습니다. 총을 겨누고 있는 군인을 쳐다보다가, 다시 성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다시 같은 명령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책 위에 침을 뱉으시오.”

예배당 안에서 다음에 불러 나올 모든 신자들은 이 절대 절명의 순간을 긴장한 채 침을 삼키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 신자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어찌면, “차마 쏘라고.”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요란한 총 소리와 함께 그 신자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정말 죽인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그 성경 위에는 침이 고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음으로는 절대로 침을 뱉지 않았겠지만 총부리 앞에 침은 성경 위에 흥건히

고였습니다.

또 한 사람이 성경 앞에 섰습니다. 그는 16세 된 소녀였습니다. 그는 동정 어린 눈길로 총을 든 군인을 쳐다보았습니다.

“침 뺄어.”

그러나 그 소녀는 차분한 음성으로, 사랑 어린 목소리로 대답하였습니다.

“군인 아저씨, 나는 이 책 위에 침을 뺄 수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어요. 그분은 나의 가장 사랑하는 님입니다. 그리고 1)이 책은 그분이 내게 보낸 애절한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위에 침을 뺄습니까?”

그 소녀는 성경 앞에 꿇어 엎드려 자기의 소매 자락으로 흥건히 고인 침을 말끔히 닦아 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위에 뜨겁게 키스를 하였습니다.

이 당돌한 행동 앞에 멍하니 서 있던 군인은 그 소녀가 성경 위에 엎드려 키스를 하는 동안 그 머리 위에 다 총을 쏘고 말았습니다.

이 소녀의 행동은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정말 이 소녀처럼, 예수님은 그토록 믿을 만한 분입니까? 무엇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까?

미국의 41대 대통령인 부시 대통령이 어느 시골 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있었던 일이 신문에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그 학교의 한 어린 학생이 아무래도 그 노인이 대통령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대통령입니까?”

“그래 내가 정말 대통령이다.”

“당신이 정말 대통령인줄 어떻게 알아요? 대통령인 것을 증명해 보

1) 이 소녀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세요?”

참으로 난처해진 부시 대통령은 그 아이로 하여금 자신이 대통령인 것을 믿게 하려고 여러모로 고심하였습니다. 운전 면허증도 내보이고 크레딧 카드도 내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그 어린 학생은 아주 미심쩍은 눈으로 대통령을 보고 있었고, 부시 대통령은 그 아이에게 자기가 대통령인 것을 증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대통령이 크레딧 카드를 내어 보이는 장면의 사진이 신문에 실렸는데 그 아이의 얼굴 표정이 아주 의심쩍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끝까지 믿지 않으려는 경우에 자기의 신분을 증명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겠지요. 그래도 우리 사람들은 잘 믿어주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²⁾ 끝까지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사회라면 얼마나 딱하고 비극적인 사회이겠습니까?

신용이라는 것, 신용 사회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믿음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믿고 산다는 것

믿는다는 것, 그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를 믿기도 힘든 일이거늘 하물며 남을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서로 믿어야 살 수 있습니다. 믿지 못하고 산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고 소름 끼치는 일입니까! 요즘은 더욱 믿을 수 없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느낄 때 ³⁾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눅 21:26)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서로 믿어야 삽니다. 그리고 믿고 싶어 합니다. 믿을 수

2) 끝까지 믿지 못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3) 지금은 어떤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4)사람들이 서로 믿는 데는 그 믿을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행동입니다.

그가 일상생활에 나타내는 모든 삶의 모습 곧 행실이 틀림없고 정확하면 사람들은 그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속담이 생겼을 것입니다. “열길 물속은 건너봐야 알고, 한 길 사람 속은 꺾어봐야 안다.” “꺾어 본다는 것” 이것은 그의 생활 모습을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것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요 14:1)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입니까? 이 캄보디아 소녀처럼, 아니 왜 그 소녀뿐이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예수를 믿는 일 때문에 자기 목숨을 초개 같이 버렸습니까? 과연 예수님은 것처럼 우리의 신명을 다 바쳐 믿을 만한 분입니까?

나는 믿는 데는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슨 믿을 만한 근거를 주셨습니까? 무엇을 보고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5)“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요 10:37,38)고 제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당신을 믿을 수 있는 근거로 자신의 행함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믿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행하거든 믿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은 오히려 겸손하게 자기를 믿으라고 하시는 대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

4) 사람이 믿을 수 있게 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5) 예수님은 당신을 믿을 근거로 무엇을 제시했습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으로 끝났으면 우리는 실망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가 행한 일을 믿으라는 것이지 자기 자신을 믿으라는 말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시기를 6)“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요 14:11)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을 수 있는 근거로 자신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수 있도록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참으로 믿을 수 있는 분인가?” 라는 질문에 참으로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7)그가 하신 일이 무엇이 라는 말입니까? 성경은 이에 대하여 한마디로 “**그는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셨다.**”라고 대답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예수님을 인류의 사표(師表)라고 추앙합니다. 그를 사대성인 또는 삼대성인 중에 한 분으로 우러러봅니다. 8)세상이 그분을 그렇게 추앙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필자로서는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예수님이 하신 구원의 행위를 진정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신 바로 그 일은 믿지 않으면서 그분을 성인이니 성현이니 하는 것은 얼마나 가소로운 일입니까!

인식의 모순

내가 신학교 학생일 때에 어느 안식일 오후에 학교 인근에 있는 갈매리라는 마을에 방문전도를 나갔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 보니 넓은 마당에 수 십 명의 장정들이 무슨 일을 맡아서 저마다 부지런히 일을

6) 예수님은 종내 무엇을 인하여 누구를 믿으라고 하셨습니까?

7) 예수님이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8) 세상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모순된 생각을 가졌습니까?

하고 있었습니다. 새끼를 꼬는 사람, 나무를 다듬는 사람, 이엉을 엮는 사람 등등. 그 중에 풍골이 흰 노인 한 분이 마당 한 가운데서 일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바로 그 노인에게 가서 공손히 절을 하고 전도지를 드리면서 말하였습니다.

“할아버지, 교회에 나오시지요?”

“자네, 여기서 뭘 하는지 아나?”

“모릅니다. 뭘 하십니까?”

“여기 올라오다가 동구에 큰 나무가 서 있는 것 봤지?”

“예, 그런데요?”

“우리 동네에서 그 나무에게 동제(洞祭) 지낼 준비를 하는 중이야. 자네가 그 동제에 참석하게 그러면 나도 교회에 나가지.”

나는 실소를 삼키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 나무가 무슨 복을 줍니까?”

나의 이 말에 그 노인은 매우 불쾌한 모습을 하고는 쏘아붙였습니다.

“이 사람아, 그럼 교회에 나가면 무슨 복을 주나?”

듣고 보니 그 말도 그럴듯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얼른 말을 돌렸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교회에 가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할아버지에게 무슨 말씀을 내렸습니까?”

나는 듣고 있던 성경을 쳐들어 보이면서 말했습니다.

“허허, 성경이야 그저 성현의 말씀이지. 예수님은 성현이시지.”

이 노인은 성경을 좋은 말씀의 책이라는 것을 인정했고 예수님을 성현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야기가 계속되는 동안 그는 불쑥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네, 내가 지금 몇 살인지 알겠나?”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70이야. 그런데 나는 오래 살고 싶단 말이야.”

“할아버지 신수(身手)를 보니 오래 사시겠는데요.”

“이 사람아, 내가 오래 살고 싶다는 것은 죽기 싫다는 말이야. 나는 죽지 않고 살고 싶어.”

나는 얼른 그 말을 받아서

“할아버지, 제가 불사약을 드릴 테니 잡수십시오, 그러면 죽지 않을 것입니다.”

“예끼 이 사람, 그런 것이 어딴?”

“할아버지, 진시황도, 한 무제도 다 불사약을 구하는데 실패했지요. 그러나 제가 드리는 불사약은 틀림없습니다. 잡숫기만 하시면 영생 불사합니다.”

“이 사람아, 그런 것은 없어.”

나는 들고 있던 성경을 얼른 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 11:25,26)고 하셨지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합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불사약입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아이고 이 사람아,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걸 누가 믿겠나?”

“할아버지, 예수님은 성현이시지요?”

“암 성현이고말고.”

“할아버지, 성현이 거짓말을 합니까?”

“에이, 이 사람, 거짓말을 하면 어찌 성현이겠는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으세요. 성현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 까요.”

“허허, 그걸 어떻게 믿어, 이 사람아.”

“할아버지, 예수님 성현이시지요?”

“암, 성현이고말고.”

“성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셨지요?”

“그럼, 성현이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성현이신 예수님이 나를 믿으면 영생한다고 하셨는데 왜 안 믿으려 하십니까?”

그제서야 이 할아버지는 자기 말에 모순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허허허, 이것 우리 아들놈이자 주지.”

⁹⁾ 그는 전도지를 조끼 주머니에 접어 넣으면서 대문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 할아버지와 같은 모순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그것이 모순인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 예수님을 성인이라 하고 진리를 위해 목숨을 버렸다고 말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예수님의 교훈의 핵심사상은 거짓말로 돌리고 있으니깐요. 그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성현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말로 돌리며 믿을 수 없다는 것과 꼭 같은 태도가 아닙니까?

만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짓이라면 그가 성인일 수 없고 그가 진정으로 성인이라면 그의 모든 말씀은 믿어야 할 것입니다. 11) 여러분들은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려 하십니까? 예수님은 내가 행하거든 그 행하는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고 요청하십니다.

세상을 거쳐 간 수많은 성현들이 주신 교훈들은 우리의 도덕성을 고양하고 바른 생활을 하도록 길잡이 노릇을 하고 있으며, 인류는 그분

9) 이 할아버지의 생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 예수님에 대하여 이 세상은 어떤 모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11) 그대는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시렵니까?

들에게 많은 빛을 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훈들 중에는 누가 그런 교훈을 했는지 전혀 모르면서도 생의 지침이 되고 인류의 좌우명이 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12)교훈의 말씀은 누가 그 말을 했는가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훌륭한 사람이 한 말은 모두 금언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한 교훈 중에도 별 가치 없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언은 누가 그 말을 했는가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교훈 자체가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금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교훈이 전부가 그 교훈 자체만으로 가치를 지닙니까? 과연 그러합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3)예수님의 교훈의 독특성이 무엇일까요? 14)예수님의 교훈 중에는 예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만일 그 말을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말했으면 전혀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해를 끼칠 말씀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씀이야말로 예수님의 교훈의 독특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15)그런 교훈은 바로 “내가 ... 이다.”라는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들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 11:25,26)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12) 교훈들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13) 예수님의 교훈의 독특성은 어떤 것입니까?

14) 예수님의 교훈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5) 예수님의 교훈의 독특성의 내용을 말해 보십시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 8:12)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요 6:48)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요 6:51)

이 외에도 이러한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며 내가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리리라.”는 등의 교훈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6)이 주장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것입니까? 이 모든 말은 갈매리 할아버지의 말처럼 믿을 수 없는 말로 돌려야 할까요? 그렇지 아니하면 다 진실이라고 믿어야 할까요? 만일 이런 말씀들을 다 믿을 수 없는 허황한 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이라고 단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찌 성인이겠습니까? 만일 예수님을 성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모든 예수님의 주장을 진실로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17)이런 예수님의 교훈에는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다 사실이든지 아니면 거짓이든지. 여러분은 어느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하라

한번은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앞에 놓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 예수님이 “내가...이다”라고 하신 교훈에 대하여 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17) 예수님의 독특한 교훈의 내용에는 어떤 가능성만 있습니까?

베드로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이 대답에 예수님은 기쁨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마 16:13~17)

18)오늘날 사람들도 그때 그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들은 다 훌륭한 사람이고 그들의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를 거부하였고, 그 때문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19)지금도 예수님의 모든 다른 교훈들은 성인의 교훈으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생명이며 믿는 자를 영생하게 한다는 말은 거짓으로 돌리며, 이 교훈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맙니다. 성인이 급전직하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20)빌라도는 예수를 재판하는 법정에서 곤혹스럽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마 27:22) 독자 여러분들은 이 예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빌라도와 같이 사기꾼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주장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생명이신 분으로 믿고 충성할 것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앞에 놓고 빌라도처럼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재판입니다. 우리는 그의 주장을 부인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을 증거

그러나 아직도 나는 예수가 참으로 믿을 만한 분이라는 증거를 말

18)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만 생각합니까?

19)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의 독특한 교훈을 믿기보다는 어떻게 해 버립니까?

20)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믿는 데는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말하였으며, 그 근거는 그의 행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행하거든 믿으라고 하셨다는 사실만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믿을 만한 무슨 일을 행하였습니까? 만일 이런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그의 교훈만 말한다면 하나의 허황한 주장밖에 아무 것도 아닐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세상에 사실 때에 그의 생활은 완전히 언행일치 하였습니다. 그런 증거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성인으로 추앙하기에 인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예라면 공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에게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나를 믿어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교훈을 주었으며 사람들이 그 교훈을 따라 자기 건설을 하도록 가르쳤을 뿐입니다. 그러나 21)예수는 “나를 믿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하거든 믿으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을 행하시고 믿으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22)“**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행 17:31).

부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그분이 행하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근거인 것입니다. 23)그분이 아무리 황금 같은 교훈을 많이 하셨다 할지라도, 그분이 죄인을 사랑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 할지라도, 그분이 죽은 것으로 그 생애가 끝났다면 그는 인류의 구주가 될 수 없고 우리가 믿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의 생활의 모본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21)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2) 예수님은 어떤 행함으로 우리에게 믿을 만한 확증을 주셨습니까?

23) 예수님의 교훈 자체만으로는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존경하고 그들의 생애를 본받는 것은 굳이 종교적인 신앙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은 그의 교훈을 순종한다는 것 이상입니다. 예수라는 그 인격자를 믿는 것입니다. 그가 행하신 일이 전혀 나를 위하여 하신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루신 그 일을 곧 내가 이룬 것이라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24) 그는 부활하심으로 자기가 생명이요 부활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행하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고 요청하십니다. 25)그러므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를 믿는 믿음,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복음은 헛것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 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 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고전 15:12~19)

26)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를 믿는 믿음에 있어서 핵심 사상입니다

24) 무엇으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25)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의 복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6)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다. 27)이것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전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롬 10:9),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고 나도 그분과 함께 부활 할 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내가 내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부활한 것과 같다는 것을 믿을 때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28)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이 죽은 후에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천당에 가서 영생과 행복을 누린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위의 성경 말씀은 결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그들의 가르침이 옳다면 부활이 없어도 우리의 믿음은 헛것일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자세히 연구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예수께서 행하신 행동이 바로 부활이라는 사실만 이야기하고 싶을 뿐입니다. 29)또한 그 부활하신 사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명도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롬 1:3,4)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도 사기로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겉 많던 제자들이 그들을 그렇게 핍박하는 권세 앞에서 그렇게 담대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담대한 증거를 읽어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것처럼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를 믿고 사도 바울이 된 그 극적

27) 어떻게 하는 것은 전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까?

28) 오늘날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어떻게 믿음의 핵심을 벗어나 있습니까?

29)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인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바로 그 바울이 얼마나 강력하게 부활의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 두 제자에게와 그 후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 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고전 15:3~8) 얼마나 확실한 말씀입니까. ³⁰⁾성경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사실이 적어도 열두 번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마 28:9,16,17 ; 막 16:9,12 ; 눅 24:34,39,50,51 ; 요 20:26, 21:12 ; 행 7:55, 9:3~6, 22:17~19 ; 고전 15:4,6,7 ; 계 1:9~19 등을 읽어보십시오)

특히 오백 명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는 증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사건이 환상일 수가 없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독자들 중에서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의 확실성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그것은 다만 성경의 주장일 뿐이 아닌가?

이유 있는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만 한다면 그리스도교의 모든 것은 허위로 드러나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³¹⁾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

30)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얼마나 많이 사람들에게 보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31)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고 증거한 일이 있습니까?

님을 대적하는 세력, 곧 마귀가 만일 할 수만 있었다면 벌써 그런 증명을 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무신론을 주장하는 자들도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은 했어도 증명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닙니다. ³²⁾사실은 예수님의 대적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지낸 후에 대적들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요청하였습니다.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마 27:63~66)
이래서 예수님의 대적들은 파수꾼을 데리고 무덤에 가서 그 돌문에 인봉하고 무덤 문 앞에 파수꾼을 굳게 세워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아침에 수직하던 파수꾼들이 제일 먼저 부활의 엄청난 사건을 두려움으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들은 놀란 가슴을 안고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갔습니다.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마 28:11~14)

파수꾼을 세운 것은 그들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파수꾼이 예수님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³³⁾마귀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거짓으로 만들

32) 부활을 최초로 증거한 자는 누구입니까?

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이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될 줄은 그도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를 신뢰할 수 있도록, 결코 한 번도 언행일치가 되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당국자들의 손에 잡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삼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그의 말씀대로 그는 부활하신 것입니다. **“내가 행하거든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하신 예수님은 참으로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참으로 신앙의 대상이신 것입니다.

34)영국에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천만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사기극에 현혹되어 사기 당한다고 생각하고 이 거짓을 벗겨서 만천하에 예수교의 사기성을 증명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정리하여 기독교의 허위성을 폭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은 자료를 정리하면서 거꾸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의도는 완전히 빗나가서 그가 정리한 자료는 예수님이 참으로 부활하였다는 증거의 자료가 되어 세상에 출판되었고 그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리슨의 저서 “Who Moved The Stone?”은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판하였습니다.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참으로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

33) 마귀의 계획은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34) 모리슨은 어떤 일을 했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시고 “내가 행하거든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고 요청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2장에서 공부한 것처럼 “지금부터 일을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를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요 13:19)는 말씀대로 구약성경에,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한 모든 것이 예수님 그분에게 온전히 성취된 확실한 증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35)예언의 증거 없이 아무나 와서 내가 여자의 후손이며 메시아라고 주장할지라도 그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사실 유대에는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일이 있었고 그 후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또 그런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메시아가 아닙니다. 부활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구약성경의 예언상 증거도 없습니다. 구세주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 즉 순결한 동정녀에게서 탄생해야 한다는 예언의 성취가 있어야 할 것은 물론이지만, 또한 그 동정녀의 혈통이나 메시아의 양부(養父)의 혈통이 구약성경에 예언된 것과 같지 않으면 그는 메시아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에 완전히 합격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담의 아들 셋(창 5:1~3)에게서 시작하여 셈의 계통(창 9:26,27),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창 17:19 ; 갈 3:16), 이삭의 후손(롬 9:7), 야곱의 후손(롬 9:13), 유다의 후손(창 49:10), 다윗의 후손(시 132:10~12 ; 렘 23:5) 그리고 동정녀에게서 탄생해야(사 7:14)하는 것입니다. 36)성경의 족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된 대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확증하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와서 기록된 대로 이루시고 기록된 대로 가셨습니다.(눅 24:27, 44~49) 그리고 기록된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은 모든 사람들도 기록된 대로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영생할 것입니다.

35) 예수님을 믿을만한 다른 증거가 또 있습니까?

36) 성경의 족보가 하는 역할 중의 하나는 어떤 것입니까?

37) 예수님은 참으로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라는 의문에 자주 봉착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십니까? 다음 장에는 성경의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의 가르침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37)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분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약속이 나의 생활에 성취되어지도록 결심하십니까?

6. 하나님은 참으로 계십니까?

미 동부 지역 여행 중에 한 동굴을 관광하게 되었습니다. 안내자는 관광객들을 동굴 깊은 곳으로 안내한 후에 동굴 속의 조명을 꺼버렸습니다. 순간, 관광객들의 호흡이 멎은 듯 하고 정말 칠혹 같은 흑암 속에 모든 것이 정지해버린 것 같은 순간을 경험하였습니다. 어두움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별 빛 하나 안 비치는 한밤중의 어두움이라도 진짜 어두움은 아닌 것입니다. 어디선가 희미한 빛이 사위를 두르고 있기 때문에 잠시 후면 그 어두움에 눈이 익고 어렴풋이 사물을 분간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한낮의 밝은 빛 가운데서 살다가 밤을 맞이하고 등불을 켜올 때 낮의 빛에 비교하여 어둡다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것을 진짜 어두움이라고 생각해버리는 습성에 익숙하여져 있는 존재들이나 있습니다.

세 살 난 수지는 제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는 것을 엄마에게 배웠습니다. 수지는 곧장 열까지 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장하고 자랑스러웠는지 할아버지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상을 물린 뒤에 수지는 할아버지 방으로 쫓르르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나 수지야, 들어가도 돼?”

“오냐, 그럼 우리 수지가 못 들어오면 누가 들어올까!”

수지는 방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할아버지에게 숫자 세는 것을 자랑하였습니다.

“할아버지, 나 일, 이, 삼, 사 할 수 있어.”

자랑스러운 얼굴로 할아버지를 쳐다보며 수지는 뽀내고 있었습니다.
 “오, 그래, 수지 참 장하구나, 그럼 어디 세어 보련?”
 수지는 두 손의 손가락을 펴면서 장한 목소리로 일, 이, 삼, 사, 오, 육, 칠, 팔, 구, 십을 세었습니다.
 “할아버지 나 잘하지?”
 “그래 참 잘 했구나. 그런데 겨우 십까지 세었어? 십일, 십이도 있는데.”
 할아버지의 이 말에 수지는 낭패한 얼굴로 할아버지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드디어 야무진 소리로 한마디 했습니다.
 “아이, 할아버지, 그런 것은 없어.”

이치를 어렵게 하는 자

우리는 없는 것이 어떤 것인지 참으로 알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생각하고 정직하게 대답해보십시오. 내가 경험한 동굴 속의 어둠이 진짜 어둠임인지도 모르지만 빛 속에서만 살아가는 우리들은 진짜 어둠이 어떤 것인지를 모릅니다. 것처럼 또한 우리는 없다는 것의 진정한 상태도 모르는 존재가 아닙니까? ¹⁾우리는 있는 것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눈앞에 안보이면 없다고 생각하는 버릇이 어릴 때부터 길들여졌고, 자라면서 교육과 경험으로 관념의 세계를 배우면서도 인간의 학문과 연구를 통하여 논리적으로 증거되지 아니하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사고방식에 익숙하여져 왔습니다. ²⁾ 그러므로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를 다룰 때 우리는 인간의 불완전성과 인간의 지식과 경험의 한계에 대하여 정직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렵게 하는 자”(욥 38:2)가

1) 우리는 어떤 사고방식에 익숙합니까?

2) 하나님에 대하여 연구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될 수밖에 없습니다.

3) 성경은 인간의 지식과 이해의 한계성을 여러 번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 사물에 대하여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하여도 다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거든 하물며 계시의 차원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건방지고 교만한 태도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전 8:17) 이것이 인간의 지혜와 지식입니다. 4)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고전 3:18)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 진저”(사 5:21)라고 선언합니다. 인간 세계의 사물들에 대하여도 다 알 수 없는데 5) “네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욥 11:7)는 질문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욥은 스스로 생각할 때 까닭 없는 고초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를 위로하러 온 친구들과 끝없는 논쟁을 벌입니다. 그러다가 젊은 엘리후에게 책망을 들으며 잠잠할 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욥 38:4) 이 질문에 욥이 대답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욥은 없었습니다. 인류 아무도 그때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일을 아는 것처럼 왈가왈부하면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욥은 자기의 어리석

3) 성경은 인간의 어떤 면을 지적해 줍니까?

4)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는 자의 결국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5) 욥에게 한 질문에 대하여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음을 깊이 뉘우치고 자기 앞에 말씀으로 현현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노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욥 42:2,3)

어머니의 화려한 결혼식 사진을 들여다보던 꼬마가 “엄마, 왜 결혼식 할 때 나는 안 데리고 갔어?”라는 투정을 들으면서 엄마는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아무 것도 없는 때에 있지 않았고 참으로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결과만 있는 존재

그런데 우리는 있습니다(存在). 있다는 것은 결과적인 사실이지요. 6)사람에게 있는 하나의 불행은 **결과만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가 있다.”는 결과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있게 되었는지를 스스로 알 수 없는 비극의 존재들입니다. 아니 이것은 불행이나 비극이 아니라 가능성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부단히 그 결과의 원인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내가 있다.”는 결과에 대한 원인을 알기 전에는 평안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7)그래서 사람들은 결과에서 원인을 추리합니다. 그렇게 추리하여 얻은 결론은 옳을 수도 있고 전혀 엉터리일 수도 있습니다.

대학에서 성경을 강의할 때에 믿지 아니하는 학생들의 조소 섞인 질문 공세를 자주 겪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이 있다는

6) 사람은 어떤 불행을 가지고 있습니까?

7)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원인을 찾습니까?

사실을 증명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과연 증명되는 것입니까? 나는 빈정거리는 어조로 짓궂게 질문하는 학생에게 되물었습니다.

“이 사람, 자네는 아버지가 계시는가?”

“예.”

“그러면 자네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봐.”

나는 그 학생의 합리적인 대답을 기대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대답은 참으로 대학생답지 않은 치졸한 것이었습니다.

“그거야 날마다 보고 사는데 증명을 못해요. 원하시면 모시고 오겠습니다.”

“흠, 참으로 확실한 증명이군. 그러면, 자네가 날마다 아버지를 보고 살지 않는다면 증명할 수 없겠군.”

나는 약간 빈정거리는 어투가 되어 말을 계속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아들은 아버지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아버지가 없겠군,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그 학생은 조금은 당황하는 기색이 되었습니다.

“아니지요. 그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거나, 혹은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있는 것뿐이지 아버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어떻게 그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가?”

교실은 조금은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아, 어찌 대학생이 되어서 겨우 그런 대답이야. 나는 자네 아버지가 계신 것을 두 말 할 수 없도록 증명할 수 있어.”

“증명해 보세요.”

그 학생은 약간 무안을 당한 모습으로 통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건 간단하다. 자네 어디서 났어? 자네 아버지가 계시다는 결코 반박할 수 없는 증명은 자네의 존재야. 그렇지 않은가? 자네가 있다는 것은 자네 아버지가 계시다는 증명이 아닌가? 그 이상 더 확실한

증명은 없어. 그것이 논리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도 확실한 증명이지.

부모의 존재 증명

8) **부**모는 자녀들의 존재 원인입니다. 또한 자녀들은 부모의 존재 증명입니다. 9)만일 자녀에게 부모가 없다면 자기 존재 원인을 알 수 없고 결국 자기가 누군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10)성경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패륜하는 일에 대하여 단호합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출 21:15,17) 왜냐하면 이런 행동은 자기 존재 근거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존재 근거를 부정하는 것은 결국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의 주장한 것과 같이 존재가 없어져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죽이라는 명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오래 전에 주간 한국에서 흥미 있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기사의 주인공이 아직도 생존하고 그 가정과 자녀들이 있을 것이 확실한데 이런 이야기를 쓰는 것이 실례가 된다면 그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기사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한 젊은이가 목동 사무소에 혼인 신고를 하러 왔습니다. 그가 신고 용지에 기재 사항을 기록한 후에 신고서를 담당 계에 제출했을 때 계원이 용지를 훑어보다가 관향란(貫鄉欄)에 본(本)을 적는 것을 빠뜨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본을 적는 것을 잊었구먼요. 본도 적어 넣으시지요.”

“저는 본을 모릅니다.”

“뭐라고요? 본을 모른다니, 그럼 김 씨인 줄을 어떻게 압니까?”

8) 부모님이 계시다는 증명은 무엇입니까?

9) 자녀의 신분을 입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0) 성경은 부모에게 패륜하는 자녀에 대하여 어떻게 말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모릅니다.”

아마 동 직원은 무척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 성을 김으로 적었습니까?”

“남들이 김씨, 김씨 하니까 그냥 김씨 하기로 했지요.”

“그게 무슨 이야기지요?”

사연은 그가 전쟁고아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역경 속에 전전하며 자라서 이제는 결혼을 하고 혼인 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노동판을 전전할 때 사람들이 그를 김씨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자기 성이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지만 남들이 그렇게 부르니까 김을 성으로 하도록 스스로 결정하고 김씨가 된 것입니다. 그의 딱한 이야기를 듣고 동 직원은 불쑥 말하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묵동에서 결혼하고 묵동 사무소에 혼인 신고를 했으니 본을 묵동으로 하면 어떻겠소?”

그래서 한국에 묵동 김씨의 조상이 되게 되었다는 기사였습니다.

자기를 아는 것과 계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11)특히 자기의 근본을 아는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를 모르면 자기를 모르고 부모를 아는 자라야 자기를 안다**는 평범하면서도 잘 생각하지 못하는 진리를 잘 설명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미 사람은 왜 믿고 살아야 하는가? 라는 문제를 다룰 때에 잠깐 언급하였듯이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들이 누구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미 있는(先在)존재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들이 누구라는 것을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그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또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12)부모는 자녀들에게 계시적

11) 무엇이 우리의 신분을 확인해 줍니까?

존재입니다. “내가 너의 아빠다, 엄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녀들에게는 그들의 존재 원인을 가르치는 것이요 그들의 신분이 무엇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계시(啓示)의 언사(言辭)인 것입니다. 물론 어려서 엄마 품에 안겨 젖을 먹으며 감각으로, 체취로 엄마와 아빠를 확인하게 되는 아기 시절에 이런 지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거쳐서 부모를 확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자녀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이치는 이와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13)그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함으로 자기의 존재 근거와 존재의 방법을 알지 못하는 모든 아담의 후손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계시로 그들의 근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계시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누구인지 안다는 것은 “누구의 아들딸”이라는 것을 안다는 뜻이 됩니다. 그 부모가 누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야 어떻게 내가 누구의 아들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결국 각자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각 개인이 누구라는 신분을 아는 것은 부모와 가문을 제해 놓고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묘한 이치가 아닙니까! 결국 부모와 가문을 모르면 아무리 그가 존재하고 있어도 그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존재하는 슬프고 외로운 표류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족보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족보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가문과 뿌리를 중히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명문 세가들은 족보를 잘 마련하여 보관하였고 그것을 끊이지 않고 후손들에게 이어주는 것을 문중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여겨왔습니다

12)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13) 어떻게 사람의 존재를 바르게 알 수 있습니까?

다. 족보는 그 가문의 후손들에게 그들의 조상과 근본을 가르쳐주는 계시(?)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현대 문명이 밀어닥치면서 족보와 가문에 대한 인식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나 요즘은 뿌리에 대하여 확실히 알려는 정신들이 부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문과 족보에 대하여 알고 싶은 것을 언제든지 알려주는 기관이 생기고 성씨의 고향이 출판되고 뿌리 곧 조상들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사람들은 그 가문의 역사와 최초의 시조를 알고자 합니다. 14) 그런데 그 성씨의 시조는 불행하게도 누구인지 모르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경주 김씨는 알지공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계림의 답소리로 끝납니다. 그러면 그들은 답의 후손이란 말입니까? 밀양 박씨는 박혁거세까지 거슬러 올라간 후에는 양산 밑에 말이 두고 간 박 같은 알에서 끝납니다. 그들이 말의 후손이란 말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족보를 대단히 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조상을 대단히 중히 여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족보 없는 놈이라고 하면 대단한 욕이 됩니다. 즉 그 근본을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되니까요. 근본을 알 수 없다는 것은 그 존재가 부정되고 무시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상의 맨 꼭대기는 동물, 알 등등으로 끝나버리고 그 이상은 알지 못하니 이 무슨 모순입니까? 결국 우리들의 족보를 가지고는 인간의 근본도 그 가문의 근본도 모르고 만다는 사실만 보여줍니다. 그렇더라도 족보는 최대한 그들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 조상들이 그 후손들에게 끼쳐준 계시적(?)인 자료 역할을 하는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후손들이 그 족보의 기록을 믿지 않으면 그는 존재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자기가 누구인지는 모르게 됩니다. 자기 존재의 이유와 근거를 모르는 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14) 사람들이 만든 족보는 조상을 바르게 계시해줍니까?

성경의 족보

하나님께서 인간의 존재를 계시해주신 성경도 족보를 중히 여깁니다. 성경에는 요소 요소에 족보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족보를 중히 여기는 것 이상으로 ¹⁵⁾성경은 족보를 통하여 신학적 신앙적 계시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¹⁶⁾창세기 4, 5장에 첫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11장에 홍수 후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장에서 8장까지가 족보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에도 족보에 준하는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실래 자손들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족보에서 그 이름을 찾을 수 없어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스 2:61,62) ¹⁷⁾족보는 그 신분과 근본을 증명하는 권위 있는 자료였습니다. 신약성경도 첫 책인 마태복음이 그 시작을 족보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3장에도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믿고 안 믿고는 사람의 자유라 할지라도, ¹⁸⁾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존재 곧 자기가 “있다”는 결과적 사실의 원인을 스스로 규명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 원인을 밝혀 본 결과가 인간을 아메바의 후손으로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다? ¹⁹⁾그러나 성경의 계시를 믿으면 그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기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잃어버리고 고아원에서 자란 아들을 찾아낸 부모가 그 장성한 아들 앞에서 “얘야,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너의 어머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 아

15) 성경의 족보는 어떤 의미를 지닙니까?

16) 성경에서 족보의 기록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17) 성경에서 족보는 무엇을 증명하는 재료입니까?

18) 자기 존재 원인을 스스로 밝혀 본 결과는 무엇입니까?

19) 성경을 믿으면 존재 원인을 분명히 알게 됩니까?

들에게 부모의 계시가 전달되는 순간이며, 그 아들이 그 말을 믿으면 그는 부모를 찾는 것이고 그 부모의 자녀가 되며 자기의 존재의 근거를 알게 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그는 영원히 고아로 있다가 없어질 뿐입니다.

20) 성경의 족보는 모든 인류의 근본을 분명히 제시하며 맨 처음 시작까지 결코 끊어짐이 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맨 처음 사람 아담에게서 모든 족보가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분명히 밝혀 놓았습니다. 우주의 시작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하여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지적합니다. 21) 성경이 지적하는 족보는 적어도 네 가지 신앙적,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인류의 시작과 그 시작의 근본을 밝혀줍니다.

둘째, 각 개인의 존재 근거를 밝혀줍니다.

셋째, 민족의 발생과 그 계통을 밝혀줍니다.

넷째, 메시아 출현의 계통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존재 근거

우리는 22) “내가 있는 것은 부모가 있다는 증명이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있는 것은 나의 조상이 있다는 증명이다.”라는 말도 됩니다. 또한 그것은 나의 조상이 있게 된 근거가 있다는 증명이기도 합니다. **그 근거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23) 너무나 분명한 이런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기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되고 그렇게 계속 부인하면 결국 자기가 없어지

20) 성경의 족보는 무엇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까?

21) 성경의 족보가 지적하는 의미를 말해 보십시오.

22) 내가 있다는 사실이 증거하는 것들을 말해 보십시오.

23) 우리 존재의 근거를 부인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없다고 계속 고집해왔으니 없게 될 날이 이를 것입니다. 그날이 최후의 심판의 때입니다. ²⁴⁾심판은 하나님의 작위적 행위이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자기의 존재를 없다고 고집해온 사람들의 주장을 사실화시키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²⁵⁾그래서 성경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시 49:20)라고 분명히 말하고 ²⁶⁾“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시 14:1, 53:1)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람이 자기는 부모가 원천적으로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²⁷⁾만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 “나는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없는 사람은 태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그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참으로 부모가 없이도 존재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자존자(自存者)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과연 누가 자존자이겠습니까? ²⁸⁾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가 자존자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²⁹⁾성경이 지적하는 죄가 바로 이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없이 자기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30)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고 주장한 것이 바로 창조주 없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며. 그 결과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과 존재를 하나님께 돌려줄 수밖에

24) 성경의 심판의 성질은 어떠합니까?

25) 자기의 존귀성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26)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27) 원천적으로 자기 부모가 없다는 말은 무슨 뜻과 같습니까?

28)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까?

29) 성경이 가르치는 죄에 대하여 설명해 보십시오.

30)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행동은 무엇을 주장한 것입니까?

에 없게 되므로 그는 창조되기 이전 상태 곧 흠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창 3:1~19) 이것은 죄요 결국 그것은 바로 자기 존재를 부인한 것입니다. 이렇게 비존재(非存在) 즉 존재가 없는 자가 된 자에게는 행동에 책임이 없습니다. ³¹⁾이 책임 없는 행동이 도덕적 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 앞에서 “당신은 내 부모가 아니요. 왜냐하면 나는 부모 없이 스스로 있기 때문이요.”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큰 불효이겠습니까? 얼마나 바보이겠습니까? 집에서 그의 행동은 얼마나 방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³²⁾자신의 존재가 부모가 계신 증명한 것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이 계신 증명입니다.

³³⁾성경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나님의 계시와 감동을 체험한 사람들에 의하여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너무나 확실한 증명으로 있기 때문에 구태여 다른 증명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좇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롬 1:18~20)

심판

이 성경구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곧 심판을 가리킵니다. ³⁴⁾

31) 무엇이 도덕적 죄로 나타납니까?

32) 하나님이 계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33) 왜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34) 심판은 무엇을 그대로 실행시키는 것입니까?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 없이 자신이 있다고 주장해온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주장해온 사실 곧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대로 그들의 존재를 영원히 상실할 것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가 곧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명이라는 너무도 단순하고 평범한 진리를 계속 거절한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가 저희들 자신임을 그들은 일부러 부인해온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부모가 계신다는 증거가 자기 자신들임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원천적으로 없다고 부인하는 것이 불효인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들이 계속 “있을”수 있겠습니까. 35)죄가 처리된다는 말은 없는 것을 없도록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명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증명해야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집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할 뿐인 것입니다.(롬 1:28)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일입니다. 나는 진짜로 부모가 없이 태어났다고 고집한다면 그것보다 더 자신을 속이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 문제

그러나 아직도 문제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있게 되었는가 라는 해묵은 질문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성경 자체가 제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 관원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여 40년을 지난 후 어떤 날 시내산 밑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까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시키라는 엄청난 명령을 듣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35) 죄가 처리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
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출 3:13) ³⁶⁾이런 엄청난 분부를 들은 모
세는 이 명령을 하시는 분이 도대체 누구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세는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름은 그의 존
재에 대한 확인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성경에서는 그렇습니다. 당
신의 존재가 무엇이냐? 어떻게 존재하였느냐? 이런 모든 질문이 이름
을 확인하는 데서 해결됩니다. “죽은 자는 아무 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전 9:5) 이
름이 잊어버려졌다는 것은 존재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름을 확인하는 것은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요 그 존재의 근원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질문의 의미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의 존재에 대한 영원한 선언을 하십니다. ³⁷⁾“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
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
라.”(출 3:14)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근거는 하나님 자신입
니다. 하나님 외에는 생물 무생물 간 어느 것이라도 그 존재 근거를
하나님께 두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³⁸⁾그러므로 하나님은 여
호와이십니다. 곧 자신이 자기의 존재 근거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라
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회한한 대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스스로 있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
다. 하나님이니까 그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그럴 수 없다면 어찌 그가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존재 근
거를 다른 데 둘 수밖에 없다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

36) 모세의 질문의 근본 문제는 무엇입니까?

37)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했습니까?

38) 하나님이 여호와가 아니라면 하나님일 수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 그 존재 근거가 된 그것이 하나님이라야 합니다.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너무나 당연한 이름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 이름으로 당신을 모세에게 계시한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소름이 끼치도록 신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그는 여호와이십니다. 자존자이십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하나님이십니다.

기념 칭호 여호와

성경에는 이름을 기념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니라.**”(출 3:15)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의미를 계시해 줍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의 근거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 이름이 기억할 표호라고 말합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호니라.**”(호 12:5) “기억할 표호”라는 말과 “기념 칭호”라는 말은 원문에서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히 기억하여 기념케 하는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기억이라는 말이나 기념이라는 말은 어떤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무엇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는 것일까요? 누구에게 기억할 것을 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종종 하는 수수께끼에 “내 것인데 주로 남이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의 정답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면서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표호**”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영원히 기억해야 할 이름으로 계시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 여호와가 기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이름 여호와는 적어도 네 가지 기념이 있습니다.

다.

여기까지

39)첫째, **하나님의 존재 양식(樣式)의 기념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이 스스로 계신다는 사실을 이름으로 취하시므로 40)그 이름은 기억할 때마다, 부를 때마다 여호와라 이름 하신 하나님은 창조되거나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자존하신 분이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자는 자신의 존재 근거를 바르게 아는 자가 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그는 존재 근거를 모르는 족보 없는 자요 결국은 없는 자가 됩니다.

둘째, **창조주로서의 기념입니다.**

41)이 이름 여호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라 이름 하신 하나님 외에는 우주 만상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존재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 이름을 기억할 때마다 자기 는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자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으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42)이 이름이 기념하는 의미를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알았다면 어떻게 무신론이나 불가지론이나 진화론이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와 만물의 창조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이 2장에서 43)사람 창조하는 과정을 별도로 기록하게 하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계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 외에는 사람이 기억하는 것과 같은 기능으로 여호와를 기억할 수 있는 존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

39) 여호와라는 이름의 네 가지 기념에 대하여 설명해보십시오.

40)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게 합니까?

41) 여호와라는 이름이 무엇을 선포합니까?

42) 이 이름을 계속 기억하였으면 어떤 사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43)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계시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경외하는 것이 유일한 지혜입니다. 짐승에게는 이런 지혜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지혜를 가르치는 성경인 잠언은 하나님(엘, 혹은 엘로힘)이라는 칭호를 몇 번 사용하지 않습니다(6회 2:5,17, 3:4, 25:2, 30:5,9 원어). 정말 우리의 시조(始祖)는 이 이름의 의미를 잊어버리지 말았어야 하였습니다. 그랬다면 그는 영원히 지혜로웠을 것입니다.

셋째, 심판주로서의 기념입니다.

여호와라 이름 하신 하나님은 모든 존재에 대한 최종적인 근거입니다. 44) 그러므로 어떤 존재이든지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없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게 될 때에는, 여호와라 이름 하신 하나님은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해준 존재를 반납하라고 요구할 당연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이 바로 그런 주장을 한 장본인입니다. 비록 사단에게 유혹되어 선악과를 먹는 행동으로 그런 주장을 하였을지라도 그런 주장을 한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정당한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말로 하자면 다음과 같은 요구입니다.

45)“아담아, 네가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없이 네 스스로 생명을 가지고 존재한다고 주장하였구나.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한 것이 아니냐?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되어 보아라. 그런데 나 하나님은 여호와이다. 즉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러나 너는 내가 너를 있도록 했기 때문에 있게 된 자가 아니냐? 그런데 이제 너는 여호와와 상관없이 네 스스로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주어서 내가 가지게 된 것은 나에게 돌려 줘야지. 그리고도 네가 있으면 너도 역시 하나님이다. 내 말이 옳지 않니? 자,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준 생명

44) 여호와 하나님께는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45) 아담이 심판 받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 존재는 반납해야지.”

이것은 당연한 요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음을 받은 아담에게는 존재를 상실하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뿐만이 아닙니다. 우주 안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라도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에 의하여 존재하게 된 사실을 부인하면 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는 동일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심판의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넷째, 생명과 구원의 주로서의 기념입니다.

46) 여호와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모든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생명을 의탁하고 있으면 그분은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격적 존재들로서 스스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죽음이 되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은 또한 구원이 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엄청난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없이는 결코 존재도 생명도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시인하고 하나님께 그 존재와 생명을 의탁하고 돌아오면, 그는 그들을 구원하셔서 다시 생명적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신 말씀, 즉 말씀 하나님이(요 1:1)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47) 사람은 태초부터 창조주이신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하도록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구원과 영생이 예정되었다는 것은 이런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전, 또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했다(엡 1:4,5; 롬 16:25,26)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48) 구원은 재창조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46) 생명과 존재는 어떻게 지속되니까?

47) 구원이 예정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48)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고후 5:17) 이 말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죄로 없어져버린 사람을 다시 있도록 창조할 때만 비로소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임무를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49)“예수”는 히브리어 “여호수아”를 헬라식으로 적은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와 구원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구약의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표상적 인물에 불과 하였으나 예수님은 참으로 구원하는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얼마나 엄청난 계시입니까!

50)하나님은 참으로 계십니까? 계십니다. 내가 있고 여러분이 있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할 것입니까?

다음 장에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연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49) 예수라는 칭호는 어떤 의미입니까?

50) 나는 하나님이 계신 사실을 성경말씀과 나의 존재에서 확증하고 성경의 하나님을 성경대로 믿기로 결심하였습니다.

7.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목사님,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입니까?”

어느 날 한 여학생이 복도에서 갑자기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하지요?”

“구약성경을 읽으면 말입니다. 잔인한 하나님 같은데요?”

“그렇게 느꼈구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느낌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일까요?”

“만약 한 하나님이라면 다를 수가 없겠지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 계시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일은 참으로 중요하지요. 하나님은 1)‘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호 4:6)고 탄식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2)‘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호 6:3)고 호소하고 있지요.”

사단의 속임수 하나님에 대한 오해

오늘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면서도 그 심령 속에는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교인들을 자주 대하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3)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하나님을 무섭고 잔인한 하나님으로 인식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이런 사단의 속임수에 속고 있습

1)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왜 망한다고 했습니까?

2) 우리가 힘써 누구를 알아야 합니까?

3) 하나님의 대적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니다.

이러한 속임은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옛 뱀 사단(계 12:9)이 여자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창 3:1)고 한 질문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략하는 교묘한 속임수가 들어 있는 질문입니다. 4)사단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고 묻지 않고 “동산 안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고 물었습니다. 사단의 이런 질문은, 하나님은 동산 안에 많은 과실을 만들어 놓고도 먹지 못하도록 하신 인정 없는 분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말머리를 끌어낸 것입니다. 이런 속임수에 떨어져서 인류는 불신의 구렁텅이에 빠졌고 지금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온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5)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이런 오해를 풀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의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고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6)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하나님을 육신이 되게 하사(요 1:1,14) 7)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기업으로 주셔서(히 1:4,5)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런 일로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8)“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 9)“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

4) 태초에 사단은 여자에게 어떻게 질문했습니까?

5)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6) 누가 육신이 되었습니까?

7) 육신이 되신 분은 무엇을 기업으로 얻었습니까?

8) 하나님은 언제 어떤 일로 당신의 사랑을 증거하셨습니까?

9)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나눔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요일 4:9,10)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류에게 증거하는 최대의 증거입니다. 10)“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요일 3:16)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었으면 세상은 끝까지 하나님을 오해하게 한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타났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오해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세상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단의 속임은 깊고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약의 전쟁 문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요일 4:8) 그래서 이 하나님은 그냥 당신만 계시지 않습니다. 11)그는 사랑으로 행동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계신다는 것을 사랑으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계시가 바로 창조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술을 사랑하는 자는 예술을 창조하게 되어 있지 아니합니까.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의 창조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나타내 주셨으며 12)그 사랑의 나타나는 모습이 충만한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창조된 세계가 아름답지 아니합니까! 이것은 창조주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한 신학과 학생이 낯선 젊은이를 내 연구실로 데리고 왔습니다. 어떤 학생을 찾아 왔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는 동안

10)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까?

11)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12)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모습은 어떠합니까?

내 연구실에서 좀 기다리게 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이름이 기억이 되지 않으나 백군이라는 것은 기억이 됩니다. 그는 그림을 공부하러 파리로 떠나는 길에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학교에 있어서 왔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청년이 무료하지 않게 하려고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미술이 추구하는 것이 뭐지요?”

“미, 곧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해요?”

그 청년은 아주 곤혹스러운 얼굴로 나를 쳐다보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겁니까?”라고 반문하였습니다.

나는 좀 엉뚱한 이야기를 꺼내었습니다.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문화를 창달(暢達) 하는 데는 세 가지 방향으로 그것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¹³⁾그것은 도덕과 학문과 예술이 아니겠어요?”

“...”

14)“그런데 도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것은 사람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학문은 결국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진리의 탐구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예술은 이제 백군 말대로 아름다움을 찾는 것인데, 내 생각으로는 죽은 것은 아름답지 않아요. 생명이 있는 것이 아름답더군요. 결국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것은 생명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역대에 수많은 예술 작품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가치 있게 남아 있는 것은 생명이 있는 작품들만이 아니겠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13) 사람이 나타내는 문화의 세 방향은 무엇입니까?

14) 이것들이 추구하고 있는 궁극이 무엇입니까?

백군은 흥미 있게 내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나는 말을 계속하였습니다.

15)“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덕의 궁극이요, 학문의 궁극이요, 예술의 궁극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 없는 도덕은 도덕이 아니고, 예수님 없는 학문은 학문이 아니며, 예수님 없는 예술은 예술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백군은?”

“글쎄요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해 보지도 않았습시다. 그러나 이제부터 그런 방향으로 좀 생각해봐야 하겠습시다.”

16)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으로 나타납시다. 또한 그 생명은 심히 아름답습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을 잃어버린 세계는 심히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렸습시다. 다만 하나님의 생명의 아름다운 모습을 조금 반사하고 있을 뿐입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심을 부인하고 그 창조의 생명과 아름다움을 이렇게 파괴하는 세력과 싸우습시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결과인 존재를 상실하든지 하나님을 택해야 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적하는 세력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습시다. 17)그 기회까지 저버리게 될 때에 그들의 소망대로 죽게 하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이 멸망이나, 멸절 또는 진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한량없는 사랑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하나님이신 분을 사람이 되게 하셔서 창조주를 부인하고 떠나서 죽은 죄인이 된 사람들을 살리려고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18)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회복

15)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16)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17) 언제 멸망이 이르게 됩니까?

18) 누구 안에서 아름다움이 회복됩니까?

하고 사랑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와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사 35:1,2) 광야와 메마른 땅은 죽음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생명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9) 구약에 나타난 그 빈번한 전쟁의 모습과 잔인하게 느껴지는 진멸의 상황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모습과 인간을 생명과 아름다움으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진심을 이해할 때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위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끝까지 거절한 자들이 스스로 당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게 한 것은 영생과 영원한 평화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진멸 되는 것들은 그들이 고집한 결과를 스스로 거두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계 11:18)에 멸망하도록 하신 것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롬 1:28)신 것뿐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창조하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지 아니한 것이 사람들에게 신으로 추앙되는 것들은 다 망할 것입니다. 20)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렘 10:11)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증거합니다. 자신이 창조한

19) 구약에 나타난 전쟁과 진멸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20) 또 누가 망할 것입니까?

것을 끝까지 돌보시고 완전히 보존하십니다.

삼위일체 사랑의 본성

사라는 교제를 그 본성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창 1:27) 그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희망하셨습니다. ²¹⁾**그러나 실제로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이 동등한 사랑의 교제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때에 그 사랑이 완전하고 충족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홀로 있을 수 없습니다. 홀로 있는 사랑은 한 없는 목마름으로 외롭기만 합니다. 그런 사랑은 잔인합니다. ²²⁾그러므로 반드시 그 동등한 사랑의 대상을 가지게 되고 또한 가져야만 합니다.

사람이 동물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과 나누는 사랑과 동물과 나누는 사랑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동물만을 사랑하는 것으로 사람의 사랑은 결코 충족되지 않습니다. ²³⁾동등한 인격 사이에서 이루는 참된 사랑으로만 사랑은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였을지라도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사랑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²⁴⁾그러므로 하나님 곧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복수(複數)로 계시는 여호와가 아니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랑이 완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²⁵⁾이 구분은 하나님이

21)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그 자신에게 충족이 됩니까?

22) 사랑은 반드시 무엇을 원합니까?

23) 어떤 사랑이 만족을 줍니까?

24) 왜 여호와 하나님은 복수(複數)로 계십니까?

타락한 인간들에게 구원의 계획을 계시하면서 함께 계시해 주신 성경의 사상입니다. ²⁶⁾이것을 신학 술어로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이 계시를 삼위일체란 말보다 더욱 합당한 어떠한 술어로 표현할 수 있어서 사람이 바르게 이해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술어를 창출하는 것이 더 좋을지 모르지만 이 삼위일체란 술어도 엉뚱하게 오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²⁷⁾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이 술어를 가지고 진리 자체를 오해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을 오해하도록 괴상한 조각들을 만들어 마치 삼두(三頭)일체(一體)인 것처럼 표현하고 창세기 10장에 나타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니므롯의 괴상한 전설을 결부시키며 진리를 혼란시켜 왔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성을 오해하게 하기 위하여 거짓을 꾸며낸 것입니다. ²⁸⁾마치 사단의 사상에 의하여 삼위일체의 교리를 논리화시킨 것처럼 사람들을 혼란시키는 사단의 교묘한 술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가 삼위일체로 계신 것을 믿는 것은 사단의 주장을 믿는 것처럼 속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삼위일체성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기만인 것입니다. 사단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모방하여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적과 기사를 행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여 사람을 속이는 것도 그와 같은 기만술의 하나입니다.(마 24:23~25; 살후 2:9,10 등) 이처럼 신성의 삼위일체성도 사단은 모방합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사단은 자신을 삼위일체로 나타내어 사람들을 혼란시키고 이렇게 함으로 성경의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심을 믿는 일에 혼란을 초래하도록 교묘히 속임수를 행해 온 것입니다.

25) 신성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구분한 것은 누가 한 것입니까?

26)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시되신 하나님을 신학 술어로 무엇이래 합니까?

27) 진리의 대적들은 이 말을 어떻게 비판하고 있습니까?

28) 사단은 삼위일체의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어떤 술책을 썼습니까?

그러나 기독교 교리에서 삼위일체라고 표현된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계시는 그런 괴상한 이론으로 파괴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술어를 가지고 내용을 헐뜯는 사람들은 진리를 파괴하려는 세력에게 충동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신학술어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시는 것을 성경은 오해할 수 없도록 밝히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29)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인 것입니다. 이 말은 복수(複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존엄하신 한 분을 가리키는 존엄 복수(尊嚴 複數)라고 합니다. 아마 그런 사상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단일한 존재의 존엄성을 나타내기 위하여서만 복수를 사용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복수적 여호와라는 것을 믿지 않으려는 고집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성취는 동등한 인격 사이에서 완전하여지기 때문에 복수적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30)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의 사랑은 아버지에게 반응하며 이 사랑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롬 8:39)이라고 하였고, 예수님은 친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함”(요 15:9,10)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령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롬 15:30)시는 분이시며,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롬 5:5)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 자존자이신 신성간의 사랑은 완전하고 그 사랑은 넘쳐서 창조와 구속으로 모든 피조물에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31)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동일하게

29) 구약에서 하나님이란 히브리어말은 어떤 말입니까?

30) 삼위간의 사랑이 어떻게 실현되며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자존하신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모세를 통하여 계시하시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 (신 6:4)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란 말은 “엘로힘” 즉 복수 명칭입니다. **그 복수명칭을 쓰시는 하나님이 곧 오직 하나인 여호와 이십니다.** 여기 “오직 하나”라고 한 히브리말은 “에하드(אֶחָד)”입니다. 이 말은 복합적 단일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절대 단일을 나타내는 말인 “야히드(יָחִיד)”는 성경에서 오직 하나인 여호와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수 명칭인 엘로힘이신 그분이 바로 자존자이신 **오직 하나 곧 에하드**이신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라는 말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설명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신약성경에서 계시해 주신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로 계시는 엘로힘이신데 그 엘로힘이신 아버지, 아들, 성령은 다 자존자시라는 말입니다.** 이런 구분은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계시하신 사실일 뿐이며 이런 구분을 하시는 분께서 어떻게 동시에 자존하셨는가라는 문제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므로 우리에게 계시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것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신 29:29)

32) 3세기에 일어난 아리우스 주의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한 분 뿐이요 아들은 최초의 피조물이며 성령은 하나님의 감화력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지와 만물은 최초의 피조물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즉 아들을 시켜서 창조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금도 이 사상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으면서 이 문제를 보면 그렇게 보이고, 또 그렇게 보는 것이 쉽고 논

31) 어떤 부분은 우리에게 계시되지 않았습니까?

32) 아리우스 주의는 어떤 주장을 합니까?

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세히 읽으면 그런 논리에 모순이 있는 것을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홀로 창조하심

33) “네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뚫으며 땅을 베풀었고”(사 44:24)라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친히 그 입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이 선언은 바르게 인식되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분과 함께 한 다른 분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분은 홀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만일 그가 최초에 창조한 아들이 있다 하더라도, 만물을 창조하는 창조 사업에는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함께 할 수도 없고 함께 한 존재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라 이름 하신 그분에 의하여서만 만물이 존재하며 오직 그분만이 모든 존재의 유일한 근거이시기 때문입니다. 34) 만일 예수님 곧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되신 분이 창조된 피조물이라면 그는 창조에 참여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호와 곧 자존자가 아니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은 친히 선언하시기를 오직 자존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홀로, 그와 함께 한 자 없이 오직 홀로 만물을 창조했다고 분명히 선언 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여호와와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 주었느냐.”(사 40:13,14)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든지 결코 누구와도 의논하신 일이 없다는 것을 선언

33) 창조하는 일에 여호와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있었습니까?

34)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면 창조사업에 가담할 수 있습니까?

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35)아무리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된 피조물이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친히 하시는 일에는 의논에 동참 할 수 없다는 선언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어떤 형태의 피조물도 창조하는 일에 여호와와 함께 할 수 없고 또 함께 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선언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유사한 선언을 여러 곳에서 하셨습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사 45:12)는 말씀도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 큰 능과 나의 든 팔로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땅을 사람에게 주었노라.”(렘 27:5)는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은 오직 여호와만이 창조주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창조에 함께 참여한 분이 있다면 그도 여호와 하나님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여호와 외에는 창조하신 분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함께 창조하신 여호와이신 아들

그런데 신약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하나님,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말씀 하나님이(요 1:1,4)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요 1:1~3). 이 얼마나 명백한 말씀입니까?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의 “말미암아”라는 말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를 맨 먼저 지은 다음에 예수에게 창조하라고 시켜서 만물을 지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사야 44:24과

35)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일에 동참할 피조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대조하면 36)예수님이 친히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 틀림없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창조에는 여호와 하나님 과 함께 한 다른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창조에 함께 한 자는 여호와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님이 창조에 함께 하신 것처럼 성령도 창조에 함께 하셨습니다. 37)“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시 104:30) 온 땅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창 1:2)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창 1:26)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라는 복수로 계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이 복수 존재가 함께 자존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수 존재가 함께 천지와 만물을 창조 하였고 이들 복수 존재의 여호와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완전한 교제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찢으며 땅을 베풀었고**”라고 말씀하신 이사야 44:24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범죄하여 “흠이니 흠으로 돌아갈 것이니라.”(창 3:19)는 선 고가 내려진 후에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은 흠이 되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흠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한 새로운 사람을 빚어야 하셨습니다. 이렇게 빚어진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고 후 5:17)이라 하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엡 4:24)이라고 합니다. 38)이렇게 새로운 피조물,

36) 예수님이 창조주 여호와인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37) 37. 성령도 창조주이십니까?

38) 침례식은 무엇을 증거하는 예식입니까?

새 사람이 된 것을 증거하는 예식이 침례 예식입니다. 이것을 “죄 사함을 받게 하는”(막 1:4)예식이라 하고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것을 증거하는 예식이라고도 합니다.(롬 6:3~5) 죄 사함을 받는 것은 그의 흠 된 것을 흠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지요.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것을 표상하는데 이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39)이러한 사실을 증거하는 예식인 침례식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마 28:19) 행하라고 예수님은 친히 분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인이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는 일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계시입니다. 40)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면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이라고 하신 그 **우리가** 누구누구를 가리키는 **우리**인지를 밝히지 않았으나,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시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신 것을 미루어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운 피조물로 사람을 지으신 그 **우리가** 아버지, 아들, 성령이심을 아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손에서 갓 지음을 받았을 때는 그 역시 새로운 피조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성경에는 창조자가 복수(複數)이심을 분명히 계시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전12:1)

이 말씀에서 "너의 창조자"라는 말이 복수인 "보레이카(בֹּרֵאִים)"입니다. 단수는 "보레카(בֹּרֵא)"지요. 직역을 하면 너의 창조자들을 기억하

39)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40) 태초에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한 그 우리가 누구누구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이뿐만 아니고 너를 "지으신 자"라는 말씀도 복수가 몇 곳 있습니다.

[욥35:10]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사54:5]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시149:2]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민은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위의 세 성경구절에 있는 지으신 자,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지으신"이 다 복수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 "아사(אָסָא)"인데 복수인 "오세이(אָסְוִי)"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단어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들, 자기를 지으신 자들, 너를 지으신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다 창조주께서 복수 존재이심을 나타내는 말씀들입니다. 창조주 여호와라 이름 하신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개체로 계시는 것이 확실하고, 그 세분의 이름은 하나뿐인데 곧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마28:19)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아들, 성령 셋인데 이름이라는 말은 단수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아들, 성령이 오직 한 이름을 가지셨다는 것을 분명히 계시하신 것인데, 그 이름이 여호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홀로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스 14:9) 그 이름은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아버지, 아들, 성령이 다 자존하신 오직 한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실

수 있는 자존자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계시한 것입니다.

성령 인격적 개체인 하나님 여호와

성령이라는 헬라어가 “프뉴마(πνευμα)”인데, 이것은 중성(中性)명사(名詞)입니다. 그래서 3세기부터 성령은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또는 감화력이기 때문에 중성 명사로 표현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41)그러나 이런 주장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한 계시적 진리를 고의적으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요 4:24)요 “**주는 영이시**”(고후 3:17)라고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영이라는 말은 물론 프뉴마입니다. 앞에서 말한 그런 논리로 말한다면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하나의 능력 있는 감화력에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중성 명사인 프뉴마로 표현된 하나의 영이라고 하니까 말입니다(어떤 성경 번역에 고후 3:17의 “주”를 여호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상은 옳으나 번역은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문이 “쿠리오스(κυριος)” 곧 “주”이기 때문입니다.). 42)과연 여호와 하나님이 프뉴마이기 때문에 하나의 감화력에 불과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프뉴마일 지라도 개체를 가지신 인격적 존재임이 틀림없지 않습니까? 대답은 자명합니다. **성령을 “프뉴마”라 한 것도 하나님을 “프뉴마”라 한 것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한 개체를 그런 이름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인간의 43)언어가 하나님의 모든 본질을 완전히 표현하기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를 빌어 표현하는 불가피성으로 하여 그런 이름으로

41) 성령을 프뉴마라고 했기 때문에 감화력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잘못 되었습니까?

42) 하나님을 프뉴마라고 한 것과 주님을 프뉴마라고 한 것과 성령을 프뉴마라고 한 것은 어떤 진리를 가르쳐 줍니까?

43) 사람의 언어가 하나님의 본질을 표현하기에 완전합니까?

게시된 것일 뿐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와 신약성경에서 계시해준 대로 아버지, 아들, 성령 세 개체로 계시는 “주 너희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여호와

44) **이**러한 하나님은 당연히 구원의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소원하시고 온 우주를 죄와 죄의 영향에서 구원하시기를 소원하십니다.(골 1:20) 이것은 그의 이름 여호와 곧 자존에 포함된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기념하는 것 속에 영생과 구원이 포함된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을 결혼시켜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45) 부부가 된다는 것은 또한 부모가 되겠다는 약속이며 이것은 또한 아직 한 아이도 낳기 전에 낳을 자녀에 대한 책임을 예약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예약된 책임은 태어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예지(豫知)요 예정(豫定)입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가 된 부부는 그 자녀에 대하여 양육과 보호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교훈을 따라 잘하면 부모는 기쁨과 영광을 받을 것이고 잘못하면 부모는 자녀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이런 때에 부모는 고통을 당합니다. 자녀의 잘못을 보상하기 위하여 희생도 감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부모가 될 때에, 만일 자녀가 잘못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예정해 놓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46) 부모라는 말은 자녀들에 대하여 책

44) 여호와 하나님은 또 어떠한 분이십니까?

45) 부부가 되는 것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46) 부모가 되는 것은 무엇을 예정하는 것과 같습니까?

임진다는 예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의 허물을 보상하고 그들을 잘 되도록 훈육하는 것입니다. 훈육하는 과정에는 꾸지람도 있을 것이고 매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끝내 잘못하면 훈육을 포기하고 자기의 그릇된 길의 결국을 스스로 당하도록 둘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모로서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부모의 훈육을 잘 받아서 그가 바른 길로 돌아오면 그 자녀는 자기의 부모를, 자기의 방탕의 구렁에서 건져낸 구원자로 또 한번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는 그의 피조물에게 책임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책임은 피조물 중에 범죄하고 타락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구원할 것이라는 예정이 됩니다. 47)다시 말하면 **예정이란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지은 인격적 피조물들에 대하여 가지신 영원한 계획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 창조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예정하셨습니다. 48)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아름답게 지니고 영원히 살며 하나님과 영원한 즐거운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할지라도 그들을 구원하시고 예정대로 영생하게 하심으로 여전히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49)그러므로 구약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계속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출 20:2)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 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출 15:2)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니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47) 예정은 어떤 것입니까?

48)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에게 예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49) 구약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즐거워하리라.”(사 25:9) 이런 말씀을 다 쓰려면 지면이 모자랄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⁵⁰⁾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이 또한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 결국 아담이 창조를 거절하여 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그 모든 후손과 함께 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이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구원이 되어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으나 이것을 거절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에는 그들이 흠으로 돌아가되 다시 기회가 없이 영원히 흠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이라는 것은 이미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사 43:11~13) ⁵¹⁾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사 43:10)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인 줄 알고 믿는 자가 여호와의 증인인 것입니다(교파 여호와의 증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은 이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50) 창조주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합니까?

51)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없음이니라.”(행 4:12)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강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눅 2:11)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딤후 1:10)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앎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벧후 2:20) 등등.

복수적 존재인 여호와 하나님의 한 개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셨고 그가 바로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고한 그분이시며, 이것을 믿는 자는 그분의 손에 의하여 재창조되고 영생의 생명을 가지며 그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친히 밝히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52)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 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요 8:23,24)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요 8:28),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를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함이라.”(요 13:19)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내가 그인 줄”이라는 말씀은 바로 이사야 43:10,13에 나오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는 그니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함이라”는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사야 43:10,13에 말씀한 바로 그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망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더구나 요한복음에 “내가 그”라고 한 말씀은 원문대로는 아이 엠 히(I AM HE)가 아닙니다. 그냥 아이 엠(I AM)입니다.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ἐγώ εἰμι)”입니다. 이 말은 “나는 스스

52)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누구인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까?

로 있는 자” 곧 “여호와”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구원의 여호와 그분이 사람 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기입으로 취하시고(히 1:4,5)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마치 아버지가 잘못된 자녀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듯이 창조주이시며 우리들의 아버지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취하시고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가 저지른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죄를 처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책임을 지시고 희생하실 아들 되어 오실 아버지에 대하여 예언하셨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사 9:6) ⁵³⁾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원래 영존하시는 아버지 곧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취하여(빌 2:6) 아들 되어 오신 것입니다. 자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될 때 아들의 신분을 취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⁵⁴⁾그러므로 예수님이 이와 같이 구주로서 하늘로부터 오신 것을 믿지 아니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손에 의하여 재창조됨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존재하게 될 것을 스스로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마련된 구원을 아무도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지금도 수많은 그의 백성을 통하여 이 사랑의 기별, 생명의 복음은 전파되고 있습니다. 나는 이 글을, 하나님을 오해하는 시대에 사랑의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글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복수 존재로 계시는 여호와이시며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여호와라 이름 하신, 엘로힘 곧 복수 하

53) 예수님은 원래 어떤 분이십니까?

54) 왜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할 것입니까?

나님이 함께 일하셨고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에도 함께 일하십니다. 세상에 사람 되어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을는지 모릅니다. 이 사랑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役事)에 아버지, 아들, 성령께서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창조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며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을 이루어 영원한 영광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시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55)아멘.

다음에는 구원은 얻은 것인지 얻을 것인지를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의 참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장에서 그 대답을 들어보겠습니다.

55)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구원의 증인으로 생활하기로 결심합니다.

8. 구원은 얻었습니까?

얻을 것입니까?

불치의 병으로 알려진 암을 앓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의사의 사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뉴스타트 운동에 의한 생활 개혁, 특히 음식물 개혁과 운동으로, 그의 불치의 병은 차차 회복되는 기미를 보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뉴스타트 생활로

여러분들도 뉴스타트 운동에 대하여 들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구 박사가 이 운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것을 TV나 라디오 등의 매스컴을 통해 한국 사람들은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스타트는 영어로 NEW START입니다. 이것은 여덟 가지 사실을 말하는 영어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말입니다. 그 여덟 가지 말의 의미는 영양(Nutrition), 운동(Exercise), 물(Water), 햇빛(Sunlight), 절제(Temperance), 공기(Air), 휴식(Rest), 신뢰(Trust) 등입니다. 사람이 이 여덟 가지 원칙을 어떻게 실천하는지 배워서 잘 실행하면 건강을 유지 할 수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⁵⁶⁾성경이 가르치는 건강 원칙은 치료 의학이 아니라 예방 의학입니다. 그러나 비록 병이 들었을지라도 곧 이런 원칙을 깨닫고 알아서 생활 방식을 바꾸면 건강한 상태로 회복되도록 자비로우신 ⁵⁷⁾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56) 성경이 가르치는 의학은 어떤 것입니까?

의 신체 구조를 구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 원칙을 따라 생활 방식, 특히 식생활을 바꾸고 불치의 병이라는 암을 정복했던 것입니다. 그는 병을 발견하기 전에 육식을 아주 즐긴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단 것을 너무 좋아하기도 했습니다. 맵고 짜게 먹으며 자극이 없으면 맛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인 내가 말해 주었습니다.

“음식을 너무 그렇게 먹으면 건강에 해로우니 성경의 원칙을 따라 식생활 개혁을 하는 것이 어때.”

“꼭 목사 같은 말만 하는군. 성경에 육식하지 말란 말도 없고 맵고 짜게 먹지 말란 말도 없잖아. 괜히 율법주의적인 말만 해서 사람 겁주지 마.”

그 친구는 이렇게 편잔을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그만 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 그 친구의 참담한 모습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집으로 방문한 나에게 면목 없는 얼굴로 그는 말했습니다.

“김 목사 미안해. 진작 김 목사 말을 들었어야 하는 건데.”

나는 그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며 권고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우리가 늘 말해 온대로 지금부터라도 시작해보자.”

그는 결심하고 뉴스타트를 실천하기 시작했고 그의 아내는 신명을 다해 그 일을 도왔습니다. 그런 결과 근 1년 가까운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는 회복되었습니다. 누구나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가 회복된 모습으로 나타났고 의사는 세밀한 진단을 거쳐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단언했으며,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건강이 회복되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확인을 받은 후에 그의 식생활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딱한

57)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신체 상태는 어떠합니까?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내가 잘 아는 몇 환자들이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실천하여 병이 나았다고 의사에게 확인 받은 후 다시 옛날 생활 방식으로 돌아갔을 때, 그 병이 곧 재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병이 들지 않은 건강한 상태에서도 옳지 않은 생활 방식으로 인해 불치의 병이 들었는데, 뉴스타트 생활을 통하여 겨우 치료한 후에 다시 옛날 생활 방식을 따르면 원래 병이 없을 때 보다 쉽게 그 병이 들것은 너무나 뻔 한 이치가 아닙니까? 그래서 치료된 상태를 계속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뉴스타트식 생활을 계속 실천해야만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친구에게 충고하였습니다.

“이 사람아, 과거에 자네 생활 방법이 잘못되어 병이 든 것이 확실하지 않은가? 그래서 뉴스타트로 생활 방법을 바꾸니까 병이 물러갔어. 그런데 자네에게 병을 가져온 그런 식생활을 다시 하다니! 자네가 정신이 있나 없나?”

그는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 목사 말이 맞아, 그래도 일단 치료되었으니 팬찮을 수도 있지 않나. 나는 나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분으로 믿거든, 그래서 건강하게 해주신 것을 유지해 주시도록 기도한다네.”

“아이구, 이 딱한 사람 봤나, 자네가 어린아이도 아니고 이 나이에 그런 철딱서니 없는 소리를 말이라고 하나?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니까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바른 삶의 길을 가르쳐 주셨고 그 길을 따라 생활하니 치료되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른 방법으로 사는 길이 건강한 삶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자네에게 확인해 주신거야. 그런데 그 방법을 버리고 자네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 운운해? 그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야. 자기기만이야. 속히 바른 방법대로 생활하도록 하게나.” 나는 다그치듯이 소리를 쳤습

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웃기만 할뿐, 그 뉴스타트식 생활 방법이 직접 느껴지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삶이 어떻게 될까?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명확합니다. 그의 병은 재발하였고, 그는 마침내 아직도 젊은 나이에 먼저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죄의 병을 치료하시는 분

이 경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일에 대하여 너무나 분명한 이치를 가르쳐 줍니다.

58)예수를 믿기 전의 인간의 상태는 죄라는 암을 앓고 있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치료가 불가능한 병입니다. 성경에는 죄를 질병으로 표현한 곳이 많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가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내가 공활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마 9:12, 13) 여기서 병든 자는 곧 죄인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지붕을 뚫고 달아 내린 중풍 병자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도 **병이 죄를 표상하고 있음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마 9:2) 신·구약성경을 통하여 병이 죄를 표상하고 있음을 가르치는 말씀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병은 곧 영원한 사망으로 끝을 고합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류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치료하여 살게 할 수 있는 자는 아담의 후손인 사람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이런 인류의 불쌍한 처지를 그냥 둘 수 없습니다. 59)그래서 말씀이신 여호와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죄를 치료하는 의원으로 세상에 오신

58) 예수 믿기 전의 인간의 상태를 무엇에 비유할 수 있습니까?

59) 죄의 질병은 누구만이 치료할 수 있습니까?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께서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행하신 속죄의 희생을 믿으면 죄의 병에서 치료되는 것입니다. 인류는 아담 안에서 죽은 자요 썩어질 씨로 태어나 썩어짐의 종노릇 곧 썩어 죽는 병을 앓고 있다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사실에 의하여 우리가 죽지 않을 길이 열린 것입니다. 60)그러므로 이제는 썩어져 가는 생활 방식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게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엡 4:22~24)

다시 설명하면 암을 앓던 친구가 뉴스타트 생활을 실천하여 암이 치료된 것을, 죄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을 받은 것과 같은 것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내 친구가 암이 치료되어 더 이상 암환자가 아니며, 암을 앓을 때의 통증도 사라진 것과 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죄의 병을 앓지 않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암을 발생시킨 것과 같은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은 삶을 더 이상 살지 말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다시 그런 생활 방식을 좇아 산다면 그는 다시 죄의 병을 앓는 죄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죄 짓지 않는 생활

예수님은 38년 된 중풍 병자를 고치신 후에 경고하셨습니다. “보라 네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요 5:14)고 하셨습니다. 그 중풍 환자가 죄 된 생활 방식을 계속하면 다시 병을 앓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간음하다 잡힌

60) 구원 얻은 사람은 어떤 생활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까?

여자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요 8:10, 11) ⁶¹⁾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죄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결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수 안에서 얻은 새 생명이 당연히 그렇게 살도록 이끌게 됩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삶을 살면서도, 즉 구습을 그대로 행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은 그의 자유라 할지라도 이미 그는 다시 썩어짐의 종노릇하여 썩어져 가는 삶을 살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⁶²⁾한 번 구원을 얻으면 영원히 구원을 얻는다는 사단의 속임수가 오늘날 소위 그리스도인들을 그릇된 구원관으로 속아 살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으로라.”(고전 9:27) 한 번 구원 얻어서 영원히 구원 얻는다면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만일 저희가 우리 주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앎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⁶³⁾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벧후 2:20~22) 만일 한 번 구원받은 것으로 영원히 구원받는다면 베드로가 왜 이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 앞에 걸

61) 구원 얻은 사람이 죄 짓는 삶을 계속할 수 있습니까?

62) 한 번 죄에서 구원 얻었으면 영원히 구원 얻은 것입니까?

63) 베드로는 어떤 것이 더 낫다고 말합니까?

린 친구는 재발했을 때 치료하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구원의 도리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이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치 말라.**”고 경고하셨고 그 여자에게도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⁶⁴⁾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에는 반드시 두 가지 면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치료되는 면이고 다른 하나는 그 치료된 상태를 계속 최선의 상태로 유지하는 면인 것입니다. 이것을 유지하는 방법은 나의 친구의 경우 계속적으로 뉴스타트식 생활을 하는 것이고, 믿음에 대하여 말하면 결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 3:36) 그래서 주께서 재림하실 때,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살후 1:7~9)라고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야 불신자들임을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⁶⁵⁾**하나님의 말씀 곧 주님의 말씀인 성경의 분부한 것과 그와 같은 사상으로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순종하는 정신으로 사는 것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며**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 뉴스타트식 생활로 계속 사는 것입니다.

64) 구원의 두 가지 면은 어떤 것입니까?

65)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런 사실을 알고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에는 구원이 세 단계로 제시된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성경의 설명으로도 그렇고 옛날 이스라엘을 통하여 주신 역사적 실물 교훈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첫째, 죄의 정죄에서 구원받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사실은 본 책 3장에서 분명하게 말하였습니다. 곧 썩어질 씨로 태어났고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⁶⁶⁾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정죄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한 사람에게 의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며”(롬 5:16), 한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습니다.(롬5:18) 그래서 사망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친히 이 정죄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을 이 정죄에서 놓이게 하셨습니다. ⁶⁷⁾“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고후 5:21)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죽을 것을 대신 죽으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벧전 2:24)신 것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 10:9, 10) “시인한다.”는 말은 고백한다는 말과 같은 원어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렇게 고백할 때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이 회개는 모든 도덕적 잘못들을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도덕적으로 아무리 선하게 살

66) 정죄 아래 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67) 어떤 상태에 있는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정죄 되었습니까?

아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의 바른 뜻

68)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 대부분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회개의 전부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신의 존재와 생명이 없다는 것을 정직하고 솔직하게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만 존재와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그렇게 생활해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한번은 어떤 그리스도인 가정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부친이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함께 이야기하면서 신앙을 배우게 해 달라는 요청에 서였습니다. 칠순이 넘은 어른은 자녀들의 신앙을 완전히 도덕적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아주 도덕적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선생님, 예수를 믿는 것은 교회에 다니며 착한 일을 한다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일은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그럼 뭐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신의 생명의 본질을 바꾸어야 합니다.”

“허허, 참 죄 진 것이 있어야 회개를 하지, 내가 70이 넘도록 살아왔어도 남 해롭게 한 일도 없고 회개해야 할 만큼 죄를 지은 적도 없소. 그런데 무슨 회개는?”

“선생님, 예수를 믿는 데 하는 69)회개는 그런 도덕성에 대한 것보다

68) 참된 회개에 대하여 설명해 보십시오.

더욱 근원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인생관, 나의 가치관, 나의 선악관,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상식 등등 이런 것이 아무리 좋고 훌륭한 것이라도 그것이 성경 말씀의 사상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성경 말씀에 굴복시키고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의 교훈대로 살기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서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예수 없이는 자신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구, 그게 어디 쉽소.”

자신이 도덕적으로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 때에는 차라리 회개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히 잘못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회개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70) 그런데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고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명망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도덕성이 탁월한 것으로 자타에게 인정받기 때문에 회개를 생각한다는 것은 어렵도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이렇게 회개할 때에 그는 정죄, 곧 아담 안에서 죽어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구원을 얻습니다. 더 이상 그의 존재가 죄의 존재도 아니요 아담 안에서 죽은 생명도 아니라는 인정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죽은 생명, 곧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상태에서 구원받아 예수의 생명으로 태어났으며, 이제 더 이상 사망의 종이 아니라 생명에게 종노릇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암이 치료되고 질병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71) 이런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하여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경험을

69) 도덕성에 대한 회개보다 더 중요한 면이 무엇입니까?

70) 어떤 사람이 회개하기가 어렵습니까?

제시합니다. 그것이 출애굽의 경험입니다.

72)애굽은 죄의 세상을 상징하고 그 곳에서 사는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받아야 할 인류를 상징합니다.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계 11:8)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을 영적으로 애굽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의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오기 위하여 유월절(逾越節)양을 잡았습니다. 73)이 유월절 양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을 표상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고전 5:7)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오기 위하여 유월절 양의 희생의 피를 문에 바르는 것 외에 다른 아무 것도 할 것이 없었습니다. 것처럼 우리 죄에서 구원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믿고 회개하는 것 외에 아무 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나의 선행이 필요 없습니다. 아니 선행을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것밖에 아무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대신 죽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롬 10:9,10)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74)유월절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楔柱)와 인방(引枋 - 인방은 상하 인방이 있다. 우리가 문지방이라고 하는 것이다.)에 바르기만 하면 애굽에서 나오

71) 출애굽 사건에서 구원 얻는 경험을 설명해 보십시오.

72) 애굽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73) 유월절 양은 무엇을 표상합니까?

74) 유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므로 나의 죄를 대속하신 것을 믿는 믿음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양 설주와 상하 인방에 피를 바르는 동작은 곧 십자가를 그리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75) 그들은 애굽의 라암세스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로 와서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건넌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고 회개하며 침례 받는 것을 표상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고전 10:1,2) 그리고 그들은 광야로 나왔습니다.

76) 광야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행 7:38) 77)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은 교회 생활 곧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정죄에서 구원을 얻은 단계**인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으니 확실히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것처럼 예수를 믿고 진정으로 회개하였으니 죄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내 친구의 암이 치료된 것과 같이 확실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엡 2:8) 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쁜 일이요 찬송할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소고 들고 춤추며 모세의 노래를 불렀고 이스라엘이 기쁘게 화답하였습니다. (출 15장)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으로 기뻐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광야에 있는 것이지

75)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은 무엇을 표상합니까?

76) 이스라엘이 지나온 광야는 무엇을 표상합니까?

77) 진정한 회개로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은 구원의 어떤 단계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둘째, 죄의 세력에서 구원받음

그들은 광야를 안전하게 통과해야 합니다. 이 광야는 건조한 땅이요, 사람이 살기에 부적합한 땅이요, 불 뱀이 나오는 땅(신 8:5 ; 렘 2:6)입니다. 언제 뱀의 공격으로 죽을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여 순종하므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보호받아야 합니다. 78)그래서 죄의 세력에서 구원을 받는 생활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종(信從)하는 삶을 사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79)그분의 말씀은 그의 백성의 행복과 죄의 권세에서 완전히 안전하게 보호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를 다 몰라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80)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의 말씀을 순종할 것입니다. 그것이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내 친구는 암이 나았을 때에 뉴스타트 생활 방식이 건강을 확실하게 한다는 확증을 얻었기 때문에 암이 나은 후에도 계속해서 뉴스타트 방식으로 생활을 하여 건강을 계속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순종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세력에서 자기를 지키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계명을 주심

81)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율법과

78)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다 것은 어떤 뜻입니까?

79) 무엇이 우리를 보호하는 능력이 됩니까?

80)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게 됩니까?

81)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주셨습니까?

계명을 주셨습니다. ⁸²⁾그리고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와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신 10:13)고 말씀 하셨습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동안 안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질병과 고통과 사망을 당하였습니다. ⁸³⁾그들의 이러한 경험은 바로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경험을 들어 신자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이만 삼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⁸⁴⁾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전 10:5~12) 애굽에서 겨우 광야로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같이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⁸⁵⁾스스로 선 줄로 생각하는 것, 곧 구원이 완성된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기 직전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빌

82)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83) 이스라엘의 광야 경험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84)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것은 누구를 경계하기 위한 것입니까?

85) 어떤 사람들이 넘어지기 직전에 있는 자들입니까?

2:12)고 권합니다. ⁸⁶⁾예수를 믿는 생활은 매일 항상 구원을 이루는 생활이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빌 2:13)십니다. 그러나 “이미 구원을 얻었는데 뭘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그저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면 되지 않아요.”라고 말하고 주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광야에서 망한 사람들의 본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⁸⁷⁾**그리스도인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죄의 권세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매일 이렇게 삶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구원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광야에서 순종하는 것은 근본적인 죄에서 구원을 받기 위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굽 곧 죄에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으로 하는 순종인 것입니다. ⁸⁸⁾이것은 얻은 구원을 날마다 확실하게 지키는 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너희가 애굽에서 구원을 얻으려면 이것을 지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렇게 종 되었던 데서 해방되어 구원을 받았으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출 20:1~3) 등 십계명과 기타 율법들을 주신 것입니다. ⁸⁹⁾이것은 애굽의 종들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지키는 법이 아니요 애굽에서 구원을 얻어 자유인이 된 사람들이 얻은 구원을 계속 지켜나가기 위한 자유인으로서의 생활 방법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생활은 감사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86) 예수를 믿는 것은 매일 어떤 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87)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88)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무엇을 지키는 일입니까?

89)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계명을 주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은 구원 얻은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넘치는 감사의 반응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일 뿐입니다. 90) 그러므로 이 자유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얻은 구원이 전혀 감사하지 않다는 것이며 이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다시 죄의 멍에를 메고 사망의 종이 되겠다고 고집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약 2:10~12) 91) 그러므로 이 자유의 법 곧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한 십계명은 자유의 율법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종되었던 데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자유로운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법(신 10:13)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2)고 말씀하시고 “내가 곧 진리요 생명”(요 14:6)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곧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고 자유의 율법대로 순종하게 되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요 15:10)고 말씀하시고 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요 14:15)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세력에서 자기를 지키는 안전한 자유의 길인 것입니다. 92)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90)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무엇을 고집하는 것과 같습니까?

91) 왜 십계명이 자유의 법입니까?

92)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말은 결국 누구의 종노릇을 한다는 말입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롬 6:15~18).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말은 의를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셋째, 죄의 존재에서 구원받음

93) **이**와 같이 죄의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이 죄의 세상에 처하여 사는 동안 계속 잘 지켜나가면 그는 죄라는 것이 결코 없는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됩니다. 죄의 존재가 없어진 세계에 이르렀으므로 다시는 죄와 싸워야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 이르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우리는 장례식에서 오래 “며칠 후 며칠 후 요단 강 건너가 만나리”를 노래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아닙니다. 94) 다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행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잘 지켜서 마침내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을 표상하는 데서 그런 가사를 지은 것일 뿐입니다. 이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반드시 건너야 하는 강이었습니다. 이 강을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

93) 언제 구원이 완성됩니까?

94)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무엇을 표상합니까?

는 것입니다. 이 땅은 영원한 나라 신천지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에는 모세의 지팡이로 충분하였습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는 때는 법궤를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95)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 강 물에 들어서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 강을 건너는데 법궤를 멘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강을 다 건너도록 강 북편에 서 있어야 했고 백성들이 건너기를 마쳤을 때에 멘 나중에 법궤를 멘 제사장들이 강을 건너 언덕에 올라 오게 하셨습니다.(수 3:1 ; 4:11) 이런 모습은 백성들이 법궤와 법궤 사이에 들어가 강을 건너는 것과 같은 형상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완전히 앞뒤를 법궤가 호위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이른 것입니다. 이것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순종하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여 죄와 전혀 상관없는 인격들이 되었는지 살피는 것을 표상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세상에서 죄와 싸워서 언제나 승리했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 승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순종하는 삶을 산 사람에게 당연히 이루어지는 승리인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법궤 앞을 지나서 강을 건널 때에 그들은 법궤 위 시온좌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계명에 의하여 옳다는 판정을 받은 셈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앞에서 봐도 뒤에서 봐도 하나님의 법만 보이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으로 나타내는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直告)하리라.”(롬 14:10, 12) 96)“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후 5:10) 아

95) 법궤로 요단강을 건너게 한 뜻을 설명해 보십시오.

96)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까?

무도 심판을 피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 심판은 계명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97)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약 2:10~12) 그러므로 법궤 앞을 지나서 요단강을 무사히 건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에서 살 자격이 완전하다는 판결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98)**이와 같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한 사람들 곧 온전히 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심판은 영원한 구원을 확증하는 기쁜 심판인 것입니다. 이 심판으로 영원한 구원이 확정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함께 있을 것입니다. 결코 죄의 시달림이나 공격이 없는 세계에서 안식과 사랑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 곧 죄의 존재에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얻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 구원은 미래에 있을 것입니다. **99)**“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벧전 1:5)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한 구원**”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입**”은 사람에게만 이를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것이 죄의 권세에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히 9:28)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

97) 그들을 심판하는 표준은 무엇입니까?

98) 승리한 그리스도인이 받는 심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99) 셋째 단계의 구원은 언제 나타낼 것입니까?

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 나타날 때는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실 때 곧 재림하실 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므로 구원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100)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에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지 않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오십니다.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구원하여 영원한 나라 신천지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101) 죄와 상관없이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받는 삶이요 하나님이 당신의 기쁜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삶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이 구원을 완성한다는 사실을 옛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 변경 요단 동편에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면서 102)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이십 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녕히 보시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민 32:10~12 ; 신 1:35,36 참조)고 분명히 증거하였습니다. 두 사람 외에 온 이스라엘 백성은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온전히 순종하였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구원의 완성 곧 죄의 존재에서 구원을 얻은 것을 표상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100)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무엇과 상관없이 오십니까?

101) 죄와 상관없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102) 어떤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일 곧 애굽에서 구원 얻은 사실을 광야를 지나는 동안 순종으로 지킨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죄에서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때에 영원한 나라의 땅이 기업으로 주어지고(마 5:5)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 즉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103)“**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 3:36)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을 얻었습니까? 얻을 것입니까?

104)대답은 자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든지 죄의 정죄에서 구원을 얻어 영적 애굽인 죄악 세상에서 광야로 상징된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애굽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얻은 이 구원을 결코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끝까지 굳게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이 재림하셔서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나라로 영접하고 죄와 죄에 속한 모든 것을 온전히 소멸할 때에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105)그러므로 **아직도 얻을 구원이 있습니다. 이런 구원의 실상을 아는 자들은 지금 얻은 구원을 온전히 지키는 삶을 날마다 이룰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넉넉히 영원한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로 구원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구원을 얻**

103) 누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습니까?

104) 구원의 단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보십시오.

105) 장래에 있을 구원을 위하여 확실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을 것이면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마 24:13)

다음에는 이적을 행하는 것이 정말 틀림없이 성령을 받은 표인지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9. 이적을 행하는 것은 성령 받은 표입니까?

모세는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바로는 그의 술객들을 불러서 모세가 한 것과 같이 해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애굽의 술객들은 바로와 모세 앞에서 그들의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그것도 역시 사람이 보기에 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적이라는 것을 바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신들도 역시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출 7:8~13 참조)

¹⁾이것은 사람이 보기에 이적인 것들이 언제든지 반드시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에게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 주는 사건의 하나입니다.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한 것 외에도 애굽의 술객들은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것이나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는 것들도 할 수 있었습니다.(출 8:7)

오래 전에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내가 다니는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일말의 회의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 때 그는 박태선 장로교에 좀 다니다가 회의를 느끼고 이 교회 저 교파를 전전하면서 진리를 찾아 방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사이에 바르게 신앙하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하여 열띤 대화가 오고 갔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우리 교회의 장로님은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²⁾“신앙은 철저히 성경으로 검토되어야 하고 신조와 교리 중 어느 하

1) 애굽의 술객들이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한 사건은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나라도 성경과 일치되지 않으면 그것을 따르는 것은 성경적 바른 신앙이 아니지요.”

“장로님, 장로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요, 개인적으로 강한 신앙적 체험을 한 사람에게는 그런 말씀이 설득력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성경의 진리가 어떻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박태선 장로에게 안찰(按擦) 기도를 받으면서 자신이 숨겨 놓고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않은 죄를 박 장로가 입으로 술술 말하면서 그 숨겨 놓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데는 항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분은 틀림없이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일한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 받은 사람의 코에 죄가 타는 냄새가 술술 나고 기도가 끝난 후에 박 장로의 손을 얹은 가슴을 보면 시커멓게 죄가 탄 자국이 나 있다는데요.”

“그게 바로 문제이지요.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체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면 성경적으로 바른 신앙을 하기는 아주 힘듭니다.”

“이론은 그렇지요. 그래도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자기 자신 속에 숨은 죄 하나 모르고 아무런 나타난 표적도 없이 성경만 말하는 목사는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박씨가 죽었고 그가 한 일의 종국적 결과를 알고 있는 건전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별 관심거리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하던 당시는 아직도 박씨가 전국을 돌며 이적을 행하고 그의 추종자들이 가을마당 새떼처럼 몰려다니던 때의 이야기고 보면 그 상황에서는 심각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이적과 기사는 참으로 성령으로만 오는 것입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이적과 기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이 대화의 내용에 대한 그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총 두목인 사단을 바보로 생각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3)사단은 스스로 하나님과 같다고 주장할 만큼 지혜롭고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닙니까. 그는 원래 하나님의 보좌에 시중드는 뿔은 그룹이었습니다.(겔 28:14) 그는 지혜가 충족하고(겔 28:12) 영화로우며 완전한 인(印)이었습니다.(겔 28:12,16)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같은 체 하였고(겔 28:2)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사 14:12~14) 그러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자입니다. 그는 하늘의 천사 1/3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여 자기를 추종하게 한 존재입니다. 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일을 흉내 내면서 사람을 속여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4)그래서 악의 세력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능력과 재주를 기울여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고 자기가 경배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것도 자기의 이름으로 경배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배를 받으려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주장을 사실화하려는 사단의 의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을 따르는 것은 이미 사단 자신에게 복종하는 자이므로 그들을 유혹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속여서 사단 자신을 하나님으로 알고 숭배하게 하는 일에 모든 노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된다면 사단은 하나님께 나아가 이 세상은 온전히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태초에 사람에게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충동했습니다. 이 충동에 사람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을 섬기는 자가 된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아는 사실이지요.

3) 사단의 원래의 상태는 어떠하였습니까?

4) 사단은 어떤 일을 하려고 속이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지구는 사단의 영지(領地)가 되었습니다. ⁵⁾예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 사단이 시험하러 와서 천하만국과 그 영화를 보이며 만일 예수께서 자기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준다고 제안하면서 “이것은 내게 넘겨 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눅 4:6)고 당당히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담이 지구를 사단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이며, 또한 사단은 이 사실을 하나님 아들 앞에서 과시하여 예수님을 낙심시키려는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⁶⁾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는 은혜의 약속을 하셨을 때에 사단은 이 지구가 자기 손에서 탈환, 해방되어 지구와 그 거민이 영원히 하나님께 속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되자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온 지구 거민을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영원히 자기에게 복속(服屬) 시키려고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어떤 형태로든지 유혹하여 우상을 섬기게 하고 안식일을 잘못 지키게 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최대의 노력을 기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어김없어서 예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속죄를 이루사 구원의 사업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한 사업에 의하여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⁷⁾그런데 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主)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전 12:3) 그리고 성령은 오셔서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증거하십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

5)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단의 주장은 어떤 근거에 의하여 정당한 것처럼 보였습니까?

6) 여자의 후손의 약속은 어떤 의미를 지녔습니까?

7)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업은 무엇입니까?

도하시리니 그가 자의(自意)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요 16:13, 14)

8) 성령은 자기 뜻대로 말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은 성경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것을 예수님의 것이라고 주장하게 될 때 그는 성경에 가감(加減)하는 자가 되며 하나님이 그를 거짓말하는 자로 보십니다.(잠 30:5,6) 그리고 누구든지 이 말씀에 가감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특권을 잃게 된다고 성경은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계 22:18, 19) 9)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이 하라고 준 것 외에는 아무 것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요 8:28)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 외에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요 5:19) 그리고 그는 “내가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요 5:30)고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 곧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도 스스로 무엇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의 주시는 것만을 행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또한 성령 그분 자신의 뜻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롬 8:27) 10)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감하지 말라고 하신 성경 말씀과 어긋나는 일을 성령께서는 결코 행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11) 그런데 성경에는 성령께서 보이는 형체로 사람들에게 임하신 사실을 기록한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는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의 심령에

8) 성령은 누구의 뜻대로 역사하십니까?

9)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의 언행은 어떠했으며 성령의 일은 어떠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 성령은 어떤 일을 결코 행하지 않으니까?

11) 사람에게 역사하는 영을 분별하기 어려운 까닭은 어떤 것입니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역사하는 영이 성령인지, 악령이 성령처럼 가장하고 역사하는지 사람들은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을 분별하는 성경의 표준을 알아야 합니다. 이 표준에 맞지 아니하면 어떤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은사는 아닙니다.

이적을 행하는 것이 반드시 성령 받은 표일 수는 없습니다.

12) **시**몬이 마술(魔術)을 행하여 자칭 큰 자라고 했을 때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중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대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행 8:10)하였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시몬이 마술을 행하면서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알려지도록 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인 것입니다. 사단은 마술로 큰일을 행하여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난 이적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존재입니다.

특히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 그런 속임수가 심할 것을 예수님께서서는 미리 경고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케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마 24:24, 25) 13)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지만 그것은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기 위한 속임수로 사단이 그의 종들을 통하여 행하는 이적일 수 있다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세에 나타날 이적과 기사가 특히 사단의 속임수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아무도 속지 않도록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또는 성령의 역사임을 빙자하여 행해지는 이적과 기사

12) 시몬의 어떤 일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보였습니까?

13) 예수님은 무엇을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까?

에 너무 매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14)“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꾀활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고후 11:13~15) 오늘날 기독교계는 사단의 이런 속임수로 인한 이적과 기사에 속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소위 부흥하는 교회, 뜨겁다는 교회는 이적과 기사가 있다고 선전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열심히 특심한 것같이 보입니다. 열심히야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지식을 좇은 열심이어야 합니다. 15)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의 속임 당한 체험으로 성경의 하나님의 진리를 거절하는 결과를 낳을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옛날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열심이였으나 그것이 지식을 좇아 나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를 열심히 대적하는 꼴이 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롬 10:1~3 참조) 이러한 열심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한 자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경고 하셨습니다. 16)“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마 7:22,23) 왜냐하면 그들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단에게 속아서 자기가 의의 일꾼인 줄 알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믿고 이적과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였으나 결국 사단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14)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가장합니까?

15) 무엇이 진리를 거절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까?

16) 이적과 기사를 예수 이름으로 행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 것입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을 했기 때문입니다.

17)계시록에도 말세에 사람들을 미혹할 세력에 대하여 예언하면서 그들이 **이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계 13:13,14)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계 16:13,14)

18)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은 누구든지 이런 속임수에 속을 것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살후 2:9,10)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적을 행한다 할 지라도 그 이적 행하는 자체가 진정한 성령의 역사라는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19)사단은 지혜롭고 옛날의 역사를 잘 아는 자입니다. 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가 하면 엘리야 때의 경험 때문입니다. 그 때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라는 증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때는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여 여호와가 참 하나님임을 증거하셨습니다.(왕상 18:20~40) 그래서 말세에 사단은 이 사실을 상기시키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이적을 행하여 그 이적을 행하는 자는 참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결코 속을

17) 말세에 특히 어떤 일이 심하게 나타날 것을 예언했습니까?

18) 어떤 사람들이 속을 것입니까?

19)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이적을 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 없도록 모든 것을 미리 말씀하여 계시록에 기록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속을 필요가 없고 이적에 현혹되거나 이적을 너무 좋아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병 고치는 이적, 소위 ‘신유(神癒)’를 무척 탐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불치의 병이 들어가면서 믿음으로 병을 고쳐 보려고 그렇게 이적 곧 신유를 찾아 동분서주하는 신자들이 처처에 양산(量産)되는 것은 서글픈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그들은 말씀의 정로를 배워 말씀대로 생활할 생각은 뒷전에 두고 우선 몸이 아프기 때문에 그 아픈 몸을 낫게 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단이 예수 이름으로 다가와서 병을 고쳐주었을지라도 병 나은 사실에 감격하여 “아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절을 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병이 치료되는 것은 그리 중요한 사실이 아닙니다. 20)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이적은 그것이 비록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 계실 때 친히 하신 것일지라도 그것은 임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이 말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죽은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죽은 상태에서 살리신 이적은 일반적으로 볼 때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적 중 제일 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사로도 다시 죽었습니다. 예수님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께 직접 병 고침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도 세월이 지나면서 다시 병들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병이 치료되는 일이 무슨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는 일은 참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이기적인 신앙의 노예가 되는 길을 열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이적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은 그 신앙의 기초를 **자기의 이기심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20) 세상에서 행하여진 이적은 비록 예수님이 친히 하신 것이라도 어떤 의미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이기심을 믿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21)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여간 몸이 병들고 불구가 되더라도 진정으로 영생을 얻었으면 그것이 최고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눅 10:20)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이 대단한 것인지는 몰라도 사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마 18:8,9) 이 말씀들은 사지백체가 건강하고 멀쩡하면서 멸망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 비록 불구가 되어도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 바른 선택이란 교훈이 아닙니까? 22)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적을 행하신 것은 그것을 통하여 죄의 질병에서 치료되는 길을 실물 교훈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이적도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적을 행하는 그것을 마치 믿음이 더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상표 달듯이 선전하고 다니는 것은 그 자체가 벌써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바울의 경우 그의 손수건을 병자에게 얹기만 하여도 병이 낫게 되었지만(행 19:12),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훗날 자기의 수종자 에바브라디도가 거의 죽게 될 지경에 이르도록 이적으로 병을 치료하지 않았습니다.(빌 2:25~27). 또한 그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의 병을 위해서는 성령으로 병 고침을 받으라고 하는 대신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비위(脾胃)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

21) 예수님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가르쳤습니까?

22) 예수님과 성령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참된 의도는 무엇입니까?

도주를 조금씩 쓰라”(딤후 5:23)고 권고하였으며, 전도 여행에 동역자였던 드로비모는 “병들므로 밀레도에 두”어 둘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딤후 4:20) 그 뿐 아니라 바울 자신도 사단의 가시가 있었으나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는 도구가 되었다고 고백하였고(고후 12:7~10) 전도 여행 때에는 병이 들어서 갈라디아에 머물게 되었으며 그 때문에 갈라디아에 전도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갈 4:13) 결국 바울도 이적을 항상 사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병들어서 고생하였다는 말입니다. ²³⁾이적을 행하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을 때, 성령께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실 그런 때에, 바울이 이적을 행했을 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와 같은 이적의 진정한 뜻을 이해한다면 이적을 행하는 것이 성령 받은 표라고 숙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적이 과연 성경적이며, 그리스도적이며 성령적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하여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것은 이적을 행하는 것이 성령이 임한 참된 증거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속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일 뿐입니다.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때 성령께서 물론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면서 행해지는 모든 이적을 반드시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긴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방언을 하는 것이 반드시 성령 받은 증거일 수는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에는 반드시 방언을 했습니까?

23) 실제로 있어서 이적은 언제 누가 행합니까?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 라고 생각하고 성령 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방언(方言)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교단도 있습니다. 과연 그러합니까?

이것을 알기 위하여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성경에서 방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초의 방언에 대한 기록은 바벨탑을 쌓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때는 구음(口音)이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었습니다. 즉 우리에게 익숙하게 알려진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이런 탑을 쌓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들의 행사를 이루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창 11:1~9) 이렇게 하여 세상에 방언이 생긴 것입니다. ²⁴⁾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중지시켜 그들이 더 깊이 멸망의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구원의 사업을 이루신 것은 세상의 모든 족속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사업을 이룬 지리적 언어적 현장은 유대 땅이요 유대 방언이었습니다. 바벨탑 때에 언어를 흩어지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방지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으나 그 흩어진 언어는 방언이 되었고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장애 요소가 되었습니다. ²⁵⁾이제는 이 장애 요소를 극복하여 구원의 복음을 모든 민족이 모든 방언으로 다 듣도록 해야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복음을 아는 제자들, 그러나 유대 방언밖에 모르는 제자들에게 각 민족의 방

24) 바벨탑에서 생긴 방언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25) 오순절 때의 방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언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에 각자의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표로 나타난 것입니다. 혀는 말할 수 있게 하는 지체(肢體)가 아닙니까. 그래서 적어도 15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유대에 사는 유대인인 제자들에게 각각 자신이 사는 지방의 언어로 예수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성경에 기록된 방언의 시작이요 의의와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에 일어난 이 사건의 확실한 의미를 바르게 연구, 이해한 후에 신약성경 전반에 나타난 방언을 이해해야 합니다. **26) 방언을, 소위 방언하는 사람의 자기 체험을 기초로 하여 성경 말씀을 그 체험에다 맞추어 이해하려는 태도는 결단코 용납할 수 없고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27) 그러므로 신약성경의 방언을 오순절의 방언에 준하여 이해하면 그것은 사람들의 언어인 것입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있었는데 방언이라고 번역한 헬라 말은 바로 혀라는 말과 똑같은 “글로사(γλῶσσα)”입니다. 또한 바울은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말하는 중에 방언에 대하여는 각종 방언(고전 12:10, 28)이라고 말하여 오순절에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의 방언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28) 그렇기 때문에 지구상에 사는 어떤 나라 사람도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는 하나의 소리일 수는 있어도 방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소위 방언이라고 말하는 소리는 성경에 기록된 성령으로 주시는 방언의 근본 목적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의 표가 아니라 다른 영에게 속고 있는 표일 수밖에 없습니

26) 방언에 대한 어떤 태도를 용납할 수 없습니까?

27) 오순절의 방언은 지구상의 사람들의 언어였습니까?

28) 지구상에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 방언을 진정한 방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에 있는 방언의 목적과 일치합니까?

다. “혹 저나 거문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거문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글로사<방언>)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니라.”(고전 14:7~9) 요즘 교회들은 소위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허공에다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성령으로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속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혹시 방언이 진짜로 어떤 외국어일지라도 그것이 그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이지 아니하고 혼자 성령 받았다는 자족감에 빠지게 하는 황홀경으로 몰아가는 것이라면 그것도 결코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방언일 수 없습니다.

이들은 방언에 대하여 말할 때마다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고 고전 14:2 을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하늘 방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9)그러나 고전 14:2 을 기록한 바울은 또한 **혀(글로사<방언>)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것은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만일 영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아무런 뜻 없는 소리가 아니요 어떤 언어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어는 하늘 언어일 수는 없습니다. 30)왜냐하면 하늘 언어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가히 말할 수 없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체험을 통하여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고후 12:4) 하늘 방언은 사람이 가히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뿐만

29)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중얼거리는 일에 대하여 바울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30) 세상에서 사람이 하늘 방언을 말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까?

아니라 가장 좋은 은사를 소개하는 고전 13:1에서 방언은 “**사람의 방언**”인 것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전 14:2에 영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방언이 결코 하늘 방언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만 어떤 사람이 방언(외국어)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소리를 듣는 사람들 중에는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알아들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전 14:2의 이 말을 방언은 알아듣는 사람이 결단코 없다는 식으로 이해하려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면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통역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통역하는 사람이 없을 때 혼자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없이 영으로 하나님께 말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고전 14:28)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고전14:2)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³¹⁾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닐까요. 누가 자기만의 비밀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기를 위하여 예배당에 왔는데 다른 사람들도 예배당에 나와 있을 경우, 그는 만일 다른 방언 즉 외국어를 말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즉 외국어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기도를 알아들을 수 없어도 그는 자신의 비밀을 하나님께 아뢰는 일은 충분히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방언으로 비밀을 하나님께만 아뢰는 기도를 한 것이 되지요.

그러므로 요즘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중얼거리는 것은 결단코 성령의 역사로 행하는 방언이 아니라고 단언해도 좋을 것입니다. ³²⁾ 더구나 온 교회가 통성으로 방언 기도를 한다는 것은 완전히

31) 고전 14:2 은 어떤 경우를 뜻하는 것입니까?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지시하기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과(多不過)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고전 14:27,28)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온 교회가 소위 방언으로 떠들면서 성령 받은 표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가증스런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전 14:33)입니다. 물론 성령도 어지러움의 영이 아니십니다. ³²⁾성령이 지도하시는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고전 14:22)입니다. 다른 방언하는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국어를 잘 합니까. 그리고 이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각각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다 들을 수 있고 성경도 이천 방언 이상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초대 교회에 있었던 것과 같은 방언의 은사가 초대교회와 같은 형태로 반드시 주어진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도들도 오순절 이후에 방언을 계속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는, 오순절에 복음을 전한 주역 중에 한 사람인 ³⁴⁾베드로도 전도 여행을 다닐 때 마가를 통역으로 데리고 다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복음이 다른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각 족속들은 다 자기 방언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오순절에 일어난 것과 같은 형태의 방언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는 베드로가 그들의 방언을 직접 말하지 않고 통역을 세워 복음을 전해도 괜찮을 때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고린도서에 나타난 방

32) 온 교회가 함께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은 성경에 일치합니까?

33) 방언은 누구를 위한 은사입니까?

34) 베드로는 계속 방언으로 전도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언은 외국어가 아니라 이상한 현상의 소리라고 해석하는 주석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방언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에 이것도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곧 “사람의 방언”으로 보는 것이 성경적 이해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어느 민족도 사용하지 않는 말 즉 사람들의 언어가 아닌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는 것을 성령 받은 표라고 주장하는 것은 언어도단(言語道斷)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를 소위 이적이나 신유(神癒)나 방언을 하는 데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사단의 영이 이 일을 통하여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사람들을 진정으로 회개케 하여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요 14:16)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요 14:26) 35)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가를 물을 때에 이적이나 방언이나 혹시 가슴에 뜨겁게 느끼는 느낌이나 또는 불이 자신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다거나 하는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같은 일이 내 생애에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찾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35) 성령을 받은 확인을 어디서 찾아야 성경적입니까?

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요 16:7~11)

이 말씀은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신 내용이 아닙니까. 이 말씀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죄를 깨닫게 합니다.

36)죄가 무엇인지는 이미 우리가 공부하였습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가 이미 죽은 사람이 된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도 생명도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만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예수 없이 살아온 모든 것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순종하며 살도록 우리를 주장하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전 12:3) 예수를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께서 나를 예수의 종으로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살 수 있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37)오늘날 기독교의 병폐는 예수를 구주(救主)로 인정하나 주(主)로는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데 있습니다. 구주는 원어로 “소테르(σωτήρ)”입니다. 이 말은 “치료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죽은 죄의 병에서 완전히 치료하신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죽을병이 든 사람을 치료해 준 의사가 있다면 그는 생명의 은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의 종이 되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감사하고 칭송하며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면 되지요. 그러나 주는 “쿠리오스(κύριος)”로서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의 종이라는 것을 시인

36) 성령께서 하시는 첫째 일은 무엇입니까?

37) 오늘날 기독교의 한 병폐는 어떤 것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주종 관계는 지시와 순종이 있을 따름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게 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참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한 사람은 이와 같은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아직도 이런 경험이 없이 성령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속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둘째로 **의의 생활을 하게 합니다.**

의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의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데 이 자리에서 그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 유감입니다. 그러나 그냥 지나칠 수도 없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려고 요한에게 나아왔을 때에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마 3:14)라고 사양하였습니다. 그 때에 예수님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마 3:15)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는 것이 어떻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일까요? (이 말씀에 대하여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필자의 지은 책 “예수님 이야기” 7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8) 침례는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는 것을 상징합니다.(롬 6:3~6)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대답은 예수님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일로 모든 의를 이루시겠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함이요.”라는 말씀, 곧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함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이루실 구속 사업을 완성했다는 것을 뜻하고 구속 사업이 완성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38) 의의 삶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성령께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그리스도인들로 예수님이 의롭게 사신 것과 같이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사단이 영원히 심판을 받아 진멸 될 것을 가르치지만, 또한 개인적으로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³⁹⁾성령을 받은 사람 곧 성령께서 주관하는 성도에게는 그 심령을 사단이 결코 지배하지 못합니다. 사단은 그에게서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천국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인격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그의 주인이 되어 그를 다스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사신 것 같이 살 수 밖에 없는 인격이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마 12:28)

그러므로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를 알기 위하여 이적을 행하거나 소위 방언하는 현상이 있는가를 물을 것이 아닙니다.

넷째로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사실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진리를 따라서만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 지적한 말씀대로 ⁴⁰⁾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진리대로만 살게 하십니다.(요 16:13)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

39)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세상 임금의 심판을 설명해 보십시오.

40) 성경을 받은 사람들이 진리대로만 살게 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요 17:17)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조금도 거스르려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자는 결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행위를 삼가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주장하시는 분은 성령이신 것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시 119:9, 11) ⁴¹⁾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사람이 명백한 성경 말씀을 무시하며 자기의 체험을 내 세우는 데는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계명이 진리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시 119:142)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시 119:151) ⁴²⁾그런데 하나님이 계명을 폐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주장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과연 진리로 인도되고 있는가를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고후 13:8)

다섯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흔히 여기 ⁴³⁾“권능을 받고”라는 말을 병

41)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42) 계명을 폐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일 수 있을까요?

43) 여기에 받으리라는 권능은 어떤 권능입니까?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방언하는 능력을 받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 자체는 명백합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는 권능을 받는 것을 가르칩니다. 물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방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능의 주 임무는 예수를 증거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모태에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눅 1:15) 그러나 그는 아무런 이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방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소리로 살았을 뿐입니다.(요 1:23) 그는 예수를 증거하는 자였을 뿐입니다.(요 1:6~8, 15)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삶이 성령을 받은 사람의 기본적인 삶이요 병 고치는 것이나 이적을 행하는 것이나 다른 방언을 하는 것은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필요하다고 성령께서 생각하실 때에 그 필요를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는사로 주시는 것일 뿐입니다. 44)그러므로 소위 이적이나 방언 같은 것에서만 성령 받은 표를 찾는 것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요즘은 계시를 받은 사람이 왜 그리 많은지요! 그 계시가 성령계로부터 온 것이라고 외치면서 성경 내용과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은 경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마 24:4, 11, 24, 25)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夢事)를 얻었다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의

44) 이적과 기사에서 성령 받은 표를 찾는 사람은 어떠한 가능성이 큼니까?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⁴⁵⁾그들이 서로 뭇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뭇사를 얻은 선지자는 뭇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렘 23:25~28)

오직 성경, 성경만이 성령이 일하시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며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말할 것이고 자의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얼마나 명백히 말씀하셨습니다. ⁴⁶⁾이 명백한 말씀을 떠나서 이 시대의 기독교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을 바울은 경고하였습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딤후 4:1, 2) 우리는 이런 현상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필요하다면 성령께서 필요한 은사를 우리에게 필요할 때에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어떤 이에게는”이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또 “다른 이에게는”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⁴⁷⁾이 어떤 이와 다른 이는 누구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사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들게 하며…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명한 것을 만들게 할지니”(출 31:1~6)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각자는 천부적

45)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계시를 말하는 자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46) 요즘 기독교의 현상에 대하여 성경의 경고를 말해 보십시오.

47) 고전 12장의 어떤 이와 다른 이가 누구인지 말해 보십시오.

인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 달란트를 따라서 성령은 하나님의 필요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은사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인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을 받는 것 자체를 혼동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48) 성령을 받은 가장 확실한 표는 진정으로 회개하여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요 주님으로 믿고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것이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성경이 너무나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속을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적과 소위 방언하는 데서 성령 받는 것을 찾는 사람은 진정으로 속임수에 걸릴 위험한 자리 아주 가까이 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겨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 구원받은 어떤 표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8) 성령을 받은 가장 확실한 표에 대하여 말씀해 보십시오.

10. 구원받은 표가 있습니까?

로스앤젤레스에서 목회 하는 한국인 목사님들 십여 명이 샌디에고에서 개최되는 목회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한차를 타고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때에, 이왕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에 멕시코 구경을 한 다음에 회의에 참석하자고 의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행은 새벽 일찍 출발하여 신나게 고속도로를 질주하여 미국과 멕시코 국경 가까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때 한 목사님이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내가 출발 전에 말했지만, 시민권과 영주권을 확인해 보시오. 뭐, 시민권자야 괜찮겠지만 그래도 시민권 번호라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을 것ियो.”

이 경고에 모두 자기 주머니를 살피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는 중에 차는 국경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멕시코로 넘어가는 곳에서는 별 조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올 때에는 조사가 아주 세밀합니다. 반드시 영주권이나 시민권으로 합법적 입국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불법 입국자로 간주되어, 그가 합법적인 미국 입국 체류자라는 증거가 될 때까지 국경 경비소에 억류되어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멕시코의 엔세나다까지 갔다가 회의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하여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드디어 국경에 다다랐을 때에 이미 자동차가 수 백 미터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운전을 하던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자, 모두 영주권을 보일 준비를 하십시오.”

모두들 영주권이나 미국 여권을 꺼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목사가님이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난감한 얼굴과 주눅이 든 목소리로 끝말을 어물거렸습니다.

“나는 영주권을 안 가지고 온 모양인데...”

순간 모든 목사님들이 긴장하였습니다. 회의 시간은 거의 다 되었는데 그가 조사를 받게 되면 2시간은 족히 붙들려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출발할 때 경고했던 목사가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소.” 그리고 딱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늘나라의 입국 사증

1) 구원은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경험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골 1:13,14)

2)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의 시민권 자라는 표가 있습니까? 표가 있어야 합니까? 성경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3) 계시록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계 7:1~8) 그리고 만일 짐승의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며 **밤낮** 쉬지 못하고 멸망 받을 것이고(계 14:9~11), 오직 하나님의 인 곧 하나님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과 그의 성전에서 **밤낮** 섬기게 될 것입니다.(계 7:9~17) 하나님의 인 곧 구원을 확인하는 표가 무엇입니까?

1) 구원은 어떤 경험입니까?

2) 구원 얻은 사람에게 "하늘나라 시민권 자라"는 표가 있다고 말합니까?

3) 계시록에는 어떤 표들에 대하여 말합니까?

만일 그런 것이 있다면 구원 얻은 사람들은 반드시 지녀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국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경에서 억류되고 추방되는 수치를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천로역정에서 변연은 무지가 표 없이 천국 문 앞에 왔다가 쫓겨나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결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는 절대로 받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짐승의 표는 이야기할 계제가 아니므로 생략하고 구원 얻은 표에 대하여 성경의 증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4) 우리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과 다른 것이 있어야 하고 또 있게 마련이지요. 5) 그래서 구원 얻은 믿음은 그 믿음을 보여 주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사람들은 흔히 믿음은 보여 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라야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약 2:18)

예수님은 과연 믿을 만한 분인가라는 문제를 우리는 공부하였습니다. 그 때 예수님은 “내가 행하거든 그 행하는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요 14:11)고 요청하신 것을 공부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인 것을 보여 준 행위가 그의 부활이었지요.(행 17:31) 그래서 우리는 확증을 가지고 예수님을 확신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죄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국할

4)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5) 성경은 구원 얻은 믿음에 대하여 어떻게 말합니까?

것이며 반드시 입국해야 합니다. 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6)그 표는 그때 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구원을 얻었을 때 주어지는 표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얻은 사람은 항상 가지고 있는 표인 것입니다. 미국에 영주할 자격을 얻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영주권이 주어지고, 입국 자격을 얻은 자에게는 입국 사증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 된 사람들도 표가 있고 비록 죄의 세상에 살아갈지라도 그 표는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하고 지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표가 무엇입니까?

7)이 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인 인격과 생활의 표이고, 하나는 성경이 말하는 제도상의 표입니다.

썩어질 씨, 썩지 않을 씨

인격과 생활상의 표라는 것은 이 말만으로도 무슨 뜻인지 우리는 알 것입니다.

이미 여러 번 말한 것처럼 아담의 후손으로서 자연인은 썩어짐의 종 노릇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심성과 사상과 행위가 썩어져 가는 구습(엡 4:22)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8)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범죄함으로 육체가 되었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창 6:3)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육체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6)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언제 얻는 것입니까?

7) 구원 얻은 표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8) 사람은 왜 육체가 되었으며 그 육체의 일은 어떤 것입니까?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갈 5:19~21)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단언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요 3:6,7)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아담 안에서 썩어질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면서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아 현저한 육체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성령이 열거한 육체의 일을 행하지 않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도덕적 교훈이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꽤나 큰 공헌을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아무런 근본 치유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9) 즉 썩어질 씨로 태어난 것을 썩지 아니할 씨로 태어나게 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도덕은 잠시 동안 방부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지만 아담 안에서 죽어서 썩어질 씨로 태어난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사람에게 썩지 아니할 씨로 태어나게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10)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이 썩어질 씨로 태어난 것에서 건져내어져서 썩지 아니할 씨로 태어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썩어질 성질에서 구원되어 썩지 아니할 씨의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11)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썩어질 씨로 태어난 육체의 현저한 일 곧 썩어질 씨의 생태(生態)를 나타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중생 혹은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썩지 아니할 씨의 생명이 나타내는 생태(生態)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9) 도덕이 하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0) 구원은 어떤 씨로 태어나는 것입니까?

11) 중생은 어떤 것입니까?

다. 이것은 얼마나 현저한 인격의 변화입니까? 과학적인 말로 표현하자면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 변화인 것입니다. 그 성질이 달라진 것입니다. 전에는 사망이더니 이제는 생명입니다. 전에는 사망의 생활이더니 이제는 영생의 생활인 것입니다. **결국 사망과 생명이 다른 것만큼이나 그의 인격과 생활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과 생활에 구원 얻은 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의 성질을 개선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성질, 곧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그 성질에서 구원받는 것이 참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찔레

한 국 시골에서는 오리 알도 암탉에게 품게 하여 계란과 함께 부화하게 합니다. 병아리들과 함께 오리 새끼도 종종 걸음으로 어미 닭을 따라 다니지요. 그러다가 도랑 곁에 다다르면 오리 새끼는 재빠르게 물속으로 달려듭니다. 그것을 본 어미 닭은 죽는다고 꼬꼬댁거립니다. 그러나 오리 새끼는 전혀 상관 않고 물을 즐깁니다. 씨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되게 한 그 생명이, 더 전문적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되게 하는 유전 인자가 그것을 오리처럼 살게 하지 닭처럼 살게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닭의 생명은 닭을 닭처럼 살게 하고 오리의 생명은 오리를 오리처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꼭 같이 썩어질 씨로 태어난 자는 썩어질 씨가 나타내는 삶으로 살수밖에 없고, 썩지 아니할 씨로 태어난 사람은 썩지 아니할 씨가 나타내는 생태(生態)로 살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2) 이런 이치를 예수님은 친히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12) 각 생물이 나타내는 생태는 무엇에 의해 결정되니까? 중생의 이치를 이 사실 의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마 7:16~18)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고 찔레 덩불은 가시가 돋치고 찔레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찔레 덩불이 스스로 포도나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엉겅퀴가 스스로 무화과나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것이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창조주의 창조적 능력에 의하여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것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후 5:17)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가시와 엉겅퀴이더니 이제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로 재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전에는 죄의 나무이더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나무가 된 것입니다.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와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사 61:3) 의의 나무에는 의가 열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인격과 생활의 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포도나무에 포도가 맺히는 것이 당연한 것과 꼭 같은 이치입니다.

13) 예수님은, 우리의 처지에서 표현하면, 모태에서 태어나시면서 거듭난 생명으로 나신 것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담 안에서 죽은 생명인 썩어질 씨로 탄생하신 것이 아니고 당신 자신의 영생의 생명 곧 생명 자체로 탄생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중생하는 경험

하여 이해 할 수 있습니까?

13) 왜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중생한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과 비추어 표현할 때에는 탄생부터 중생하신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 곧 중생한 아담이라는 뜻이 됩니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14)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고전 15:45~49)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 곧 둘째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 사람 아담에게 속하였던 것처럼 마지막 아담에게 속하게 되는 것을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난 사람의 시조이며 그분을 거듭난 아담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인격은 썩지 아니하는 생명의 인격이요 그의 생활은 썩지 아니하는 생명이 나타내는 생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된 사람을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요3:6)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셨기 때문에 영이신 분입니다. 우리가 썩지 않을 씨로 나는 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며 그렇게 난 사람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하신 말씀에 해당되어 영의 사람이 되고 영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롬 8:9) 영의 사람이 된 인격은 생활을 통하여 보이게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얻은 사람의 인격은 그 생활이 증거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14) 흙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는 어떻게 다릅니까?

본성이 된 성경 말씀

15)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 얻은 표가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담으로 두 가지 표를 말한 중에 그 첫째 것인 인격과 생활의 표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연구함으로 분명히 알게 됩니다.

16) 예수님은 중생한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세상에서 사실 때 당신의 모든 생활을 통하여 분명히 보여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히 4:15)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처지에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에 떨어져 죄를 지으신 일이 없습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꾀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벧전 2:22,23) 결코 죄를 짓는 일이 없이 사신 것입니다.

¹⁷⁾ 예수님이 이렇게 사신 것은 그의 신성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중생의 생명 곧 아담의 생명과 상관없는 생명인 썩지 아니할 씨의 생명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18) 이 생명의 성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요 5:30)고 하였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요 5:19)고 하시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요 8:28)고 하셨습니다. 종합하면 예수님은 자

15) 구원 얻은 첫째 표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16) 예수님이 사신 모습을 설명해 보십시오.

17)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18) 썩지 않는 씨의 생명은 어떤 성질을 가졌습니까?

기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길로만 걸어가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히 5:8, 9)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9)그러므로 **구원 얻은 사람의 구원 얻은 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되어지는 생활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구원 얻은 사람의 성질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20)구원 얻었다고 공언하면서 기록된 말씀을 가감(加減)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순종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것은 결코 구원 얻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그의 성질이 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런 사람은 예수 이름을 빙자(憑藉)하여 자기의 감정이나 체험이나 자기의 욕망을 믿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기심으로 믿는 예수

21)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이런 예수꾼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이적을 찾아 여기저기 몰리는 소위 신앙 군중과 또는 자기 마음의 유쾌한 감화를 위하여 동서남북을 왕래하면서 그런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려는 신앙꾼들은 결코 구원 얻은 사람이 아닙니다. 깊이 성찰하면 그런 마음의 밑바닥에는 자기를 위한 이기심이 깊이 도사리고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기심을 버리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런데 소위 신앙의 바탕이 이기심으로 놓였다면 그것이 어찌 구원 얻은 믿음이겠습니까?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마 7:21)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무슨 선한

19) 구원 얻은 첫째 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20) 구원 얻은 사람이 아닌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21) 오늘날 유행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 이유를 말해 보십시오.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라는 청년에게 예수님은 먼저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다고 대답하였지요. 그것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바르게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자기를 위한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관심을 타인의 필요에 돌리기를 요청하셨습니다.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마 19:21) 이것은 이기심을 버리라는 요청이요 봉사하는 삶을 살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김진홍 목사의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책에는 한 장로님의 철공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장로님은 여러 개의 교회를 세운 분이라고 했던가요? 그런데 그가 운영하는 회사의 종업원들의 복지 사업에는 철저히 외면하고 오히려 더 많은 시간동안 일을 시키고 시간당 임금은 적게 주는 일로 착취하면서, 교회에서는 신령한 장로님이요 교회 여러 개를 개척한 분으로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결코 신앙도 아니요 구원과는 너무나 먼 거리에 있는 사기 신앙일 뿐입니다. 오늘날 크게 작게 대부분의 소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사기 신앙에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모습은 아직도 가시나무요 영경귀임을 그 생활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열심히 출석하고 연보 많이 하고 마음이 잘 감동되고 눈물 많이 흘리는 것이 구원 얻은 믿음의 표가 아닙니다. 오직 성경, 성경이 그의 생활의 유일한 지침이 되어 최선을 다해 그 말씀대로 순종되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구원 얻은 표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중생(重生)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요 3:5) 그런데 이 말이 실제로 무엇인지 아는 일은 구원 얻은 것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지면 관계로 자세히 설명할 수 없으나, 22)베드

22)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하여 설명해 보십시오.

로의 설명은 쉽게 이해하게 해줍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벧전 1:23) 그러므로 중생 곧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항상 있는 썩지 아니할 씨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과 성령을 연결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요 6:23)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요 생명인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난 사람은 말씀이 그의 생명이 되었으니 말씀대로 살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찌 다른 삶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중생한 생명의 생태(生態)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적 지식이나 자기의 체험이 끼어 들 자리가 없습니다. ²³⁾“기록되었으되” 또는 “성경이 무어라 말하느냐”는 말씀 앞에는 아무런 변명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중생한 생명의 생리가 예수의 생명인 썩지 아니하는 씨가 나타내는 말씀 그 자체의 생리이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하거니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중생한 사람의 성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과 자기의 말씀을 전적으로 같은 것으로 가르치셨습니다.

²⁴⁾“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요 15:4)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예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동시에 예수님이 어떻게 내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

23)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 앞에서 변명이 없어야 합니까?

24)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해 보십시오.

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 15:7)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곧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요 15:10)고 하신 말씀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 곧 그의 모든 말씀을 전적으로 지키는 것 곧 순종하는 것임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죄 안 짓는 생활

이렇게 사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아니합니다. ²⁵⁾결국 구원 얻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된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것은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는 삶이 아니라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할 마음과 힘을 얻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자는 그렇게 산다고 성경이 보증하고 있습니다. ²⁶⁾“하나님께서로써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었어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로써 낳음이라.”(요일 3:9) 하나님의 씨는 썩지 아니할 씨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시 119:11)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하여 편치 않을 독자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도 생활상에 죄를 짓는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지라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은 틀림없는 말씀이요 진리이며 확실한 설명이 있습

25) 구원 얻은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입니까?

26)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기서 다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양해하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면이 허락하면 그 문제를 다시 다루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치를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으로 나를 전적으로 주장하시며 내 안에서 예수님 당신의 삶을 사시는 데 어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이 곧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요 1:12, 13)는 말씀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질로 사는데 어찌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므로 중생 곧 구원을 얻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서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인격이 되고 **그런 생활을 사는 것으로 구원 얻은 표를 세상에 드러내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제도적 표

그런데 이런 순종의 생활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적 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인격과 그 순종하는 생활의 많은 부분은 세상이 지향하는 도덕적 선과 일치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도덕적 종교나 도덕가들에게서도 현상적으로는 구원받은 인격과 같아 보이고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과 같아 보이는 생활 태도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예수 안에서 구원 얻은 사람의 생활인지 혹

은 도덕적 수양의 결과나 다른 종교를 통하여 이룬 인격의 모습인지를 때때로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는 사람들 보다 더 나은 도덕적 삶을 사는 사람들을 추앙하고 그렇게 살면 되지 구태여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라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이미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서 말하였으므로 재론할 필요가 없지만, ²⁷⁾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제도적 표를 통하여 그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여부에 대한 시금석을 삼으시고 그들이 참으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들이라는 표를 삼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인의 역할을 합니다.

이런 제도적 표는 성경에 몇 가지로 나타납니다.

침례

침례는 그런 제도의 하나입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막 16:16)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침례를 받습니다.

“믿으면 되었지 뭐 꼭 침례를 받아야 하나? 십자가의 강도가 뭐 침례를 받았나?”

이런 논리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려는 논리이고 자기의 생각대로 편의를 따라 예수를 믿으려는 태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 얻은 믿음이 아닙니다.

²⁸⁾ 침례는 예수를 믿음으로 중생하고 구원 얻은 사실을 하나님과 온 우주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는 예식적 표현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

27) 구원 얻은 제도적 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8) 침례의 의미를 설명해 보십시오.

의 죄인인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사되어 없어졌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썩지 않는 씨로 태어난 나는 새 생명으로만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인 것입니다.

29) 성경은 노아 홍수의 사실로 침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벧전 3:20, 21) 왜 침례가 노아 홍수 때의 사건으로 표상되며 부활과 관계되었을까요? 산 사람은 물속에서 숨을 쉬지 못합니다. 숨을 쉬지 못하는 것은 죽은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창 7:22)고 말합니다. 것처럼 침례를 행할 때 물 속에 잠기는 것은 숨을 쉴 수 없는 존재, 즉 죽은 자라는 사실을 뜻하고,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숨을 쉴 수 있는 존재, 즉 산 자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숨을 쉴 수 없이 죽은 자가 물 밖으로 나와 숨을 쉬게 되는 것, 이것이 부활입니다. 30)부활은 영원히 숨을 쉬며 살게 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는 존재로 다시 지음을 받았으며, 그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호흡을 영원히 계속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식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실제적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마 3:17)는 선언을 듣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념일이라면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은 부활에 대한 바른 개념을 모르는 소치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기념으로 날을 제정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침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구원 얻은 사람이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생활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한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적 표가 되는 것입니다.(롬 6:1~11)

29) 노아 홍수로 침례를 표상한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30) 부활은 어떤 상태를 나타냅니까?

³¹⁾침례냐? 세례냐? 하는 논의를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물속에 잠기는 예식을 분명히 세웠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설명한 의미로도 물에 잠기는 예식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당연히 물에 잠기는 예식을 말할 수밖에 없지요.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서** 침례를 주고받았습니다.(행 3:38, 39)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침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요 3:23) 물에 잠그기 위하여 많은 물이 필요한 것이었지요. 물속에 잠기는 것은 바로 죄의 몸이 죽어 장사되는 것을 표상하면 물속에 나오는 것은 부활을 표상하는 이런 영적 의미를 이해할 때에 당연히 물에 잠기는 침례가 성경적인 것을 확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발 씻는 예식과 성만찬

성만찬 예식과 세족 예식(洗足 禮式)도 표로 주신 제도의 하나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성만찬 예식은 대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족 예식은 거의 행하지 않습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요 13:12~15) 진정으로 거듭나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세족 예식도 행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³²⁾이 예식들은 주님의 봉사와 겸손과 구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재림하실 때까지 전하는 기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

31) 침례의 형식은 어떠해야 성경적입니까?

32) 성만찬 예식과 세족 예식의 의의를 설명해 보십시오.

주로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므로 나의 죽은 것을 영원히 처리하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호흡이 있는 산 자로 만들어주셨으며 이런 부활의 생명이 영원히 고정되는 때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예식을 행하는 일로 다시 확인하는 경험인 것입니다.(고전 11:26) 이런 일들은 세상에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이라도 하지 아니하며 또 할 필요도 없고 그러므로 할 수 없는 예식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원 얻은 제도적 표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배지(badge) 안식일

그러나 이 모든 예식 보다 더욱 분명한 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라는 표로 달아준 배지(badge)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하여 말하려면 십계명 전체를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런 지면이 없습니다. ³³⁾그러나 구원 얻은 사람에게 십계명 곧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이나 하는 문제를 간단히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십계명은 구원 얻은 사람의 본성 곧 성질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얻은 사람에게 계명은 본성이 되었기 때문에 전부 지켜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 14:15)고 말씀하여, 구원 얻어 중생한 사람에게 계명은 지켜지는 것이지, 지키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질이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³⁴⁾그런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출 31:18) 십계명 중에 넷째 계명에 기록된 명령이요 또한

33) 구원 얻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명 곧 십계명은 어떤 관계를 가집니까?

34) 제칠일 안식일의 의미를 설명해 보십시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칠일에 쉰히 쉬신 창조의 기념일로서 인류에게 주셨고 쉰히 복 주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날을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언약의 표징(배지)으로 삼으셨습니다.(출 31:16, 17) 그래서 안식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증거의 날이 된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할지라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지 아니하면 그는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줄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겔 20:20) 이 말씀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다는 것은 단순히 한 날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정해 놓는다는 뜻 이상인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안식일은 기식(氣息)있는 사람이 숨을 쉬는 날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사람이 숨을 쉬지 못하면 죽습니다.(창 7:22) 물속에서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숨을 쉴 수 있는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앞에서 침례를 설명할 때, 노아 홍수의 물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표인데 곧 물속에 잠기는 것은 숨을 잃어버려 죽는 것을 뜻하고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숨을 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을 뜻하는데 영원히 숨을 쉴 수 있는 자는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 뿐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³⁵⁾성경은 이렇게 영원한 숨을 쉬는 사람의 생명의 호흡이 안식일에 확인된다고 말합니다. **“너는 육일 동안에 네 일을 하고 제칠일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출 23:12) 숨을 돌린다는 것은 쉰다는 말이요 그

35) 안식일에 숨을 돌린다는 말을 설명해 보십시오.

것은 살아 숨 쉬는 사람들만의 특권입니다. ³⁶⁾곧 하나님의 살게 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살아 있는 모습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안식일을 사람이 지키면 살 율례로서 강조하고 있습니다.(겔 20:12, 13, 20, 21) 그러므로 ³⁷⁾안식일은 단순히 지켜야 할 하나의 율법이 아니라 생명과 사망에 대한 표로서, 생명의 법이요 살았다는 확인인 것입니다.

³⁸⁾예수님은 친히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막 2:27, 28)고 말씀하셔서 예수님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 곧 안식일의 제정자임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제정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바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안식일이 태초부터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제정되었다는 것도 가르칩니다. 자식이 부모와 함께 있고 자기의 부모가 누구인줄을 분명히 알아서 서로 사랑하며 효도하고 살 때에 행복한 것처럼, ³⁹⁾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분, 곧 사람에게 생명을 주어 살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알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 효도하는 행복하고 즐거운 사랑의 관계를 항상 유지해 주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바른 관계의 표지(標識)로서 생명의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품에 의지하여 있는 자녀는 행복하고 쉽습니다. 것처럼 안식일은 우리를 창조하여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쉼에 참여한 쉼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의 쉼의 증거인 것입니다.

36) 안식일을 지키므로 무엇이 증거됩니까?

37) 결국 안식일은 어떤 법입니까?

38) 안식일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그러므로 주일은 어느 날이 분명합니까?

39) 안식일은 우리에게 무엇을 분명히 가르칩니까?

영원한 복음

오늘날 이 세상은 쉼을 잃어버린 세상이 아닙니까? 우리는 쫓기고 있습니다. 40)시간에 쫓기고, 일에 쫓기고, 그래서 피곤하고 고달픕니다. 물질을 얻기 위하여 생명과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잃은 물질은 다시 마련할 수 있을지라도 소비한 시간과 생명은 다시 찾을 수가 없는 것이 죄의 세상에 사는 인간들의 불쌍한 모습이 아닙니까? 이것을 바꾸어 말한다면 사람들은 시간에게 순간순간 정복당하고 있다는 말이 되지요. 그것은 또한 생명을 순간순간 잃어 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온전히 시간에게 정복당하는 때가 죽는 때입니다. 그 때가 되면 그렇게 허위단심 모은 물질은 어디로 갑니까? 여기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시간에게 정복당하면서 쉼을 잃어버린 사람은 결국 그가 그렇게 아끼며 소유하기를 위하여 모은 물질도 결코 소유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고 초청하신 것입니다. 안식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주일(主日)은 주일(週日) 중 첫째 날인 일요일이 아닙니다. 제칠일 토요일 안식일이 주일(主日)입니다. 오늘날 일요일을 주일이라 부르며 예배드리는 날로 생각하는 것은 비성경적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경배 드리기 위하여 거룩히 지켜야 할 날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안식이 있는 사람들어요 이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만이 그 안식을 누리는 배지인 참 안식일을 지킬 수 있습니다.

41)“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40) 시간성과 안식에 대하여 말해 보십시오.

41) 사바티스모스에 대하여 말해 보십시오.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히 4:9, 10) 여기 “안식할 때”라고 번역한 말은 “사바티스모스(σαββατισμός)”인데 제칠일 안식일에 쉬는 안식을 뜻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안식이라는 말이나 쉼이라는 말이 열 한번 나오는데 9절 외의 안식이라는 말은 “카타파우시스(κατάπαυσις)”입니다. 이것은 휴식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9절의 사바티스모스는 사바타(안식일)에 쉬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바울이 창안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만 제칠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설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을 넉넉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여 경배의 날로 삼고 있는 것을 보시고, 42)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을 기록하도록 계시를 주실 때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계 14:6,7) 이 말씀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경배하는 것이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말씀이 틀림없지 않습니까.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한 것을 거절하는 범죄와 타락으로 썩고 죽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 곧 아버지로서의 사랑 때문에 이것을 그냥 두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주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류를 구속하심으로 재창조하여 주신 것입니다. 43)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재창조에 의하여 이루

42)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43) 구원을 얻는 것은 어떤 역사(役事)입니까?

어지는 은혜와 창조의 역사(役事)인 것입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생명을 얻었다는 말이 아닙니까. 죽어 있었는데 즉 숨을 쉬지 못하는 자였는데 이제는 숨을 쉬는 자가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고, 영생을 얻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⁴⁴⁾ 바로 이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죽은 자가 살게 된다는 기별이야말로 영원한 복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 얻은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창조와 구속의 기념일, 곧 생명의 숨을 돌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므로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소식은 **영원한 복음**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경은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라고 분명히 계시합니다.(사 45:8) 그러므로 구원의 기념일이나 창조의 기념일은 같은 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제칠일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시오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 “복음”이라는 말 앞에 “영원”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것은 오직 이곳 한 곳 뿐입니다. 왜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것이 영원한 복음이 될까요?

잠깐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진화론적 사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사상은 기독교 안에도 침투하여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 신학자와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는 사실이 아니고 하나의 설화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11장까지를 설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코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다만 히브리 종교를 설명하기 위하여 설화를 적어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인간의 타락 이야기는 설화일 뿐이요 사실이 아니지요. 그렇다면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구주 예수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구주가 여자의 후손이라

44) 왜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소식이 영원한 복음입니까?

고 말합니다.(갈4:4) 그것은 바로 창3:15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기록들을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구주가 필요 없고, 그것을 기록한 성경도 사실이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은 죄인을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구주가 오셨다는 기별이 아닙니까?

만일 창세기의 창조 기록과 타락의 기록을 믿지 않으면 복음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말은 창세기의 기록된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구주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는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창조로부터 연관되어 있고 영원한 하늘나라에까지 연관됩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우리는 피조물이며 예수님은 구주 곧 재창조주시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관계는 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이 사실 곧 창조와 구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며 그분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사 43:7)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 10:31)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재창조한 자들인 것입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신 사실 곧 재창조하여 다시 부자의 관계를 확정하여 준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창조와 재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지키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창조주, 우리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를 알고 공경하며 살아 숨쉬는 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간을 정복한 사람들

구원을 얻은 것은 곧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은 옳습니다. 그러나 영원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무궁한 세월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월 곧 시간은 죄의 세상의 질서이지 영원의 질서는 아닙니다. 시간 속에 살면서 영원을 표현하려고 하니 무궁한 세월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영원은 안식의 세계입니다. 시간 세계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시간을 소비하므로 생명을 소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5)그러므로 **영원은 시간을 정복한 것이요 영생은 시간을 정복한 생명을 소유한 것**입니다. 즉 영원토록 숨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얻은 사람들은 시간을 정복한 자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46)이렇게 시간을 정복한 사실을 시간 세계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된 구원 얻은 자들에게 달아 준 배지가 제칠일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구원 얻은 백성들에게 제도로서 주신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금배지를 답니다. 그것을 다는 것은 그들에게 명예요 영광이요 국회의원이라는 표도 됩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그 표지(배지)인 안식일을 어찌 거룩히 지키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거룩한 백성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과 구별된 것을 보여 주는 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을 삼았었노라.”(겔 20:12, 출

45) 영원과 영생에 대한 개념을 말해 보십시오.

46) 구원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실을 보여주는 배지가 무엇입니까?

31:13) 47)그러나 제칠일에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안식일을 다 지킨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자들은 안식일을 참으로 지키는 자들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도 금배지를 주워서 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가짜가 되어 국회의원 사칭(詐稱)혐의로 법에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같이 제칠일을 지킨다고 다 구원 얻은 표가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짜도 있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구원 얻은 사람은 제칠일을 안식일로 지키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태어난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의 자연스런 생태(生態)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괴로워집니다. 그것은 그 성질이 아닙니까? 성질을 거슬리는 일은 어디서나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구원 얻은 표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인격과 생활로 나타나는 표가 있고 그 생활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상의 표를 준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활의 표는 인격이 말씀의 인격으로 중생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사신 것같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생활로 나타나며, 48)그렇게 생활할 때에 구원 얻은 사람들이 마땅히 그렇게 하도록 제정해 놓은 제도상의 표도 생활로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침례와 세족 예식과 성만찬 예식과 그리고 제칠일을 안식일로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47) 표를 달면 다 진짜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를 말해 보십시오.

48) 제도로써 주신 구원 얻은 표를 말해 보십시오.

그날 목사님들 일행은 국경에서 표 때문에 긴장했습니다. 그 동료 목사님은 집에 두고 온 영주권 때문에 초조했습니다. 물론 그는 불법 체류자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조사 현장에서 그 표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입니다. 결국 무사히 통과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 얻었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구원 얻은 표를 보자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떤 표를 내어 보이겠습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인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인친 인격과 생활의 표이며, 그렇게 된 사실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참된 안식의 표로서 하나님이 제정하여 우리에게 달아 준 배지인 안식일이 제도상 하나님의 인이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여호와를 아는 표징(표)이라고 하였고 거룩하게 하는 표징이라고 한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마 7:21, 23)

이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구원 얻은 자인 줄 알았는데 **그 날 즉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야 할 그날에** 결국 불법을 행하는 자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보기를 원하는 구원 얻은 백성의 표를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표는 곧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법은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 생리가 된 영생의 법이요 하나님이 영생 얻은 사람에게 지킬 수 있도록 디자인 해 놓은 그 법인 것입니다. 그 법안에는 제칠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법도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

라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롬 3:31)⁴⁹⁾

다음에는 구원 얻은 우리가 언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인지 성경이 말하는 그 때에 대하여 연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49)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생활과 제도상의 구원의 표를 다 지니기로 결심하셨습니까?

11. 우리는 언제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까?

박선생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도리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증거되었으며,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어 영생하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희망찬 이야기를 듣고 머리를 끄덕거렸습니다. 그리고 만일 예수의 이 희생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지옥에서 영원토록 유향불로 고통을 당한다는 공부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19~31에 기록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할 때와 다르게 좀 이상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 좀 으스스하기도 하였습니다.

박선생은 가정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생활과 마음이 공허해지며 어떤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 친구를 통하여 예수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죄됨에 대하여 그 깊은 이유를 잘 몰랐어도 현실적으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인식 때문에 쉽게 동의하게 되었고 속죄에 대한 도리를 수궁하며 십자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구원 얻은 자의 미래를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는데 지옥과 영원 고통설을 배우며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석연치 않은 느낌이 슬며시 고개를 들고 뇌리에 엉겨 붙는 것이 아닙니까?

박선생의 의문

그는 공부에서 돌아온 후에 누가복음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납득이 안 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공부 시간에 자세히 물어 보리라고 생각하고 우선 덮어두었습니다.

다음 공부 시간에 그는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님에게 의문점을 더듬거리며 묻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목사님, 지난번에 지옥에 대하여 공부한 것에 대하여 좀 여쭙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이제 금방 성경을 배우는 사람이 되어서 그런지 납득이 잘 안 되는 점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진지하게 의논하고 풀어보지요.”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님은 흥미를 보이며 진지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저, 음, 저 말입니다. 누가복음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천국과 지옥의 실제적인 상태를 가르치는 말씀인지를 잘 몰라서요.”

“예, 그럼요, 실제적인 상태를 가르치는 말씀이지요.”

“그래요, 그렇다면 좀 문제가 있는데요.”

“무슨 문제입니까?”

“목사님, 너무 나무라지는 마십시오. 지난번에 공부한 후에 집에 가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나사로가 있는 천당과 부자가 있는 지옥은 서로 빨리 내려다보고 올려다보는 곳이던데요.”

“예, 그렇지요. 거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예, 저에게는 조금 문제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가르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지극히 동정적이며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목사님, 천당은 그렇지가 않다는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나사로가 천당에서 지옥에 있는 부자를 내려다봅니다. 부자는 불꽃 중에서 나사로를 올려다보면서 물 한 방울만 혀끝에 찍도록 해 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런데 나사로도 아브라함도 한 톨의 동정도 없이 거절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나사로와 부자가 아니고 나와 내 어머니나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천국에 있는데 부모가 지옥에서 날마다 나를 보고 뜨거워 죽겠으니 물 한 모금만 보내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있는 곳이 과연 아무런 근심 걱정도 없는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나는 그것은 큰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에는 동정도 원수에 대한 사랑도 없는 곳입니까? 아무런 감정도 없는 존재들이 모이는 곳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기독교가 가르치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의 구원은 모든 인류에게는 결코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

“공부를 더 계속해 보면 어떤 대답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목사님의 석연한 대답을 후에 기대하고 공부는 계속하겠습니다.”

1)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선생의 생각이 지나친 생각일까요? 그 생각이 바른 생각일까요?

1) 박선생의 의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 보십시오.

미국 동북부 지역 큰 도시에서 부흥 전도 집회를 할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부인이 꼭 만나서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원하는 시간에 맞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부인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됩니까?”

“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죽자마자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한 후에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됩니까? 어떤 분은 죽자마자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된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그렇지 않다고 하니 막 헷갈리는데요. 좀 확실한 대답을 주십시오.”

“아주머니는 어떤 대답을 기대하십니까?”

“나야 바른 대답을 기대하지요.”

“어떤 것이 바른 대답일까요?”

“글쎄요.”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해야 바른 대답이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진리처럼 설교되는 오류

2)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가 사람이 죽으면 몸은 땅 속에 묻혀도 그 영혼은 천당이나 혹은 지옥으로 가서 영생이나 영벌을 누리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또는 어떤 영혼은 연옥으로 가서 연단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교단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어서 천당이나 지옥에 갔다 왔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한 때 펄시 콜렛의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정말 낙양의 지가를 올리는 일까지 있었

2) 대부분의 기독교는 사후 상태를 어떻게 가르칩니까?

습니다. 얼마나 생생한 묘사인지! 누구든지 읽으면 현장감이 넘치는 내용이었습시다. 그러나 펄시 콜렛이 신앙의 이름으로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것 같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그 책의 성가도 퇴색하고 만 것 같습니다.

3)그런데 이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정확 무오한 계시의 말씀인 성경과 호리의 오차도 없이 일치하는지를 검토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검토해 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베뢰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행 17:11, 12)라는 말씀은 성경의 신앙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그 다음으로 그 전해들은 말씀이 성경과 일치하는지 검토하여 확인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은 철저히 성경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체가 성경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은 속이는 자의 속임수일 것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말씀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연구에서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이적과 기사를 예수 이름으로 행하면서 택하신 자들이라도 미혹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공부하였습니다. 이적이거나 기사를 행하여 사람을 속이는 것보다, 4)인간의 사후 문제에 대하여 사람을 속이기는 훨씬 쉽습니다. 죽은 그 후의 세계를 진짜로 보고 온 사람은 이 세상사람 중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지나흘이나 되어 썩어 냄새가 나는 지경에 이르렀다가 5)예수님의 생명의 부르심으로 살아난 나사로는 죽은 후의 자기의 경험에 대하여 일언반구 한 말이 없습니다. 그의 영혼은 과연 어디에 갔다가 왔을까요? 왜 그는 자신이 나흘 간 죽어서 썩다가 살아났는데도 죽은 후의

3) 사람들이 봤다는 계시나 환상이나 체험은 어떻게 검증되어야 합니까?

4) 사후 문제에 대하여 사람이 잘 속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5) 나사로는 왜 죽은 후의 경험에 대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요즘은 진짜로 죽은 것도 아니면서 꿈꾸듯이 어떤 환상을 보고 와서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선전하면서 거창하게 천당이 어떻다느니 지옥이 어떻다느니 부산하게 간증하고 다니면서 사람을 들뜨게 미혹하고 있는데 나사로야말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최적임자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는 아무 것도 모르니까요.(전 9:5)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1~3) 진정으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는 때는 예수님이 다시 와서 그들을 예수님 있는 곳에 함께 있도록 영접하여 가는 때입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실제적인 상태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있을 사람은 없습니다.

6)우리가 언제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예수께로 영접하여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도록 해주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이런 사실은 데살로니가전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6)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까?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살전 4:16, 17)

이 글을 읽는 분 중에서 “그렇다면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일으킬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천당이나 혹은 지옥에 가서 세상에서 그들이 한 대로 보응을 받고 지낸다고 배워 왔고 믿어 왔습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설교단에서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정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의식적 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행동을 의식적 자각 없이 할 때에 무의식적으로 했다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을 찬찬히 살펴보면 일상생활에 있어서 거의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인 사상들에 의하여 지배되는 것이 너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어린이에게 물어보십시오. 자동차는 우측통행을 해야 하는가? 좌측통행을 해야 하는가? 이구동성으로 우측통행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배워 왔고 자동차가 그렇게 다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일본의 어린이나 영국의 어린이도 그러할까요? 그 나라들의 자동차는 좌측통행하도록 만들어져 있고 좌측이 차량 주행 방향입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교통에 대한 인식은 나라와 사회와 교육이 그들에게 만들어 준 의식입니다. 만일 사회와 교육이 그렇게 의식화하지 않았으면 그런 대답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7) 이러한 것이 문화적, 역사적, 사회적 의식이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각 개인에게는 무의식적 수용이 아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역사와 문화가 만들어 준 의식을 당연한 것으로 믿어버리고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기독교에도 교회가 역사적으로 만들어 놓고 당연한 것으로 믿게 해 온

7) 사회적 문화적 무의식에 대하여 말해 보십시오.

교리들이 있습니다. 8)사람이 죽으면 천당이나 지옥을 간다는 교리는 그야말로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만들어 놓은, 모든 교인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믿게 해 온 교회의 의식(意識)이며 그것은 또한 믿는 교인들에게는 무조건 받아들여져야 하는 무의식적 신앙의 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번 무의식적 의식이 형성되면 그것을 부인하기가 여간 힘 드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에 부딪치면 논리적인 합리화를 시도하기도 하고 논증되지 않는 억지를 부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지요.

나는 제2장에서 성경은 믿을 수 있는 책인가를 다루었습니다. 9)성경은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험해 볼 수 있도록 모든 여지를 제공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요 여유가 있는 분이요 합리적으로 설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라고 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최대한으로 합리성 있는 논리적 증거를 요청합니다. 성경 자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후 문제에 대하여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근거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교리는 성경적 교리가 아니고 그것을 믿는 기독교 신앙은 결코 성경적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10)오늘날 대부분의 종교가 사람의 구조를 몸과 영혼의 이원론적 구조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삼분 구조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삼분 구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살전 5:23)는

8)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어디를 간다는 것은 어떻게 형성된 교리입니까?

9) 성경은 무엇을 통해 확증하기를 요구합니까?

10) 대부분의 종교가 사람의 구조를 어떻게 가르칩니까?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영은 무엇이며 혼은 무엇이며 몸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한 사람을 이루는 세 요소로서 서로 독립적인 것입니까? 이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몸과 영혼을 구별합니다. 몸은 무엇이며 영혼은 무엇입니까? 몸은 우리의 신체를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론의 여지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무엇입니까?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살게 하는 하나의 독립된 인격적 개체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은 영혼이 몸에서 떠나가기 때문이라고 가르치며, 몸을 떠난 영혼은 인격적 개체로서 감각과 의식이 있으며 천당이나 지옥에 가서 행복이나 고통을 당하며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와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흠 + 생기 = 생명(산 사람)

11) **사**람에 대하여 알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흠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창 2:7) 이 말씀에서 인간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흠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므로 사람이 생령이 되었습니다. 12) 그러므로 흠으로 만들어진 사람과 코에 불어넣은 하나님의 생기로 오늘날 우리와 같은 생령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령이란 살아 있는 사람이지만 사람 속에 불어넣은 생기가 생령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생령이란 말이 히브리어로는 “네페쉬 하야”인데, 창세기 1:20, 21, 24 등에는 꼭 같은

11) 사람의 창조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설명해 보십시오.

12) 생령에 대하여 설명해 보십시오.

“네폐쉬 하야”를 “생물”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물고기, 새, 모든 동물들이나 사람까지 포함하여 모두 “네폐쉬 하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이라는 말을 가지고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월등하다는 이유로 설명하려는 것은 순전히 인간적 발상이지 성경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를 없애기 위하여 성경은 13)“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의 죽음 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전 3:18, 19)고 분명히 계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생명, 곧 살게 하는 기능이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짐승이나 사람을 입 막고 코 막으면 다 호흡이 끊어지며 지금 누리는 생명을 잃게 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짐승과 사람이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그의 영혼이 떠나가므로 사람이 죽는다면 영혼이 없는 짐승은 무엇이 떠나가므로 죽습니까?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식물(植物)은 생혼(生魂)만 있고 동물은 생혼, 각혼(覺魂)이 있고 사람에게서는 생혼, 각혼, 영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식물이 생혼만으로 산다면, 또 동물이 생혼과 각혼만으로 산다면, 그리고 사람에게 생혼, 각혼, 영혼이 있다면 영혼이 떠나가도 생혼, 각혼만으로 동물적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마 영혼이 떠날 때에 모든 것이 같이 떠난다고 말하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짐승과 사람이 다 동일한 호흡이 있다고 말하고, 그 호흡이 떠나가면 죽는 것이 다 같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의 코에 불어넣은 것은 생명의 기운 곧 살게 하는 하나님의 호흡이었던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호흡은 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13) 전도서 3:18 ~ 21을 설명해 보십시오.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사 2:22)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 홍수 때에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창 7:22)던 것입니다.

생령(산 사람) - 생기 = 흙

¹⁴⁾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만든 몸엔 영혼을 넣은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은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살아 활동하게 하셨던 그 생명의 호흡이 떠나가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짐승이나 사람이 일반입니다.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전 3:21)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전 3:20)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전 3:18)고 오해할 여지가 없도록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에 말한 21절을 가지고 사람의 혼은 위로 간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불신자의 혼은 어느 위로 갑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위에는 지옥과 천당이 함께 있습니까? 그 주장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것을 바로 볼 줄 아는 눈이 얼마나 아쉬운지요!

¹⁵⁾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그 구조와 기능상으로 짐승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날 말로 말하면 뇌의 구조를 짐승과 다르게 만들었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생명력을 그 만든 사람에게 불어넣었을 때, 사람은 그 뇌에 의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하므로 죽게

14) 창조 때에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코에 영혼을 불어넣었습니까? 아니라면 불어넣은 것은 무엇입니까?

15) 사람이 짐승들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되었을 때에는 생명의 호흡이 끊어지면서 뇌 기능도 정지되는 것은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가 없지요. 사람이 나타낼 수 있었던 모든 기능이 정지하고 썩게 되는 것입니다. 16)죽음은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호흡이 끊어지는 것이며 그 결과로 그의 모든 생명적 기능이 중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창조되기 이전 상태는 흙이었고 그 호흡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생기였습니다. 17)그래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생기, 호흡<루악호>)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전 12:7) 그리고 그가 산 사람으로서 나타낼 수 있었던 모든 생각과 행동과 그의 인격들은 호흡이 끊어지면서 소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圖謀)가 소멸하리로다.”(시 146:4)

그리고 다시는 선이나 악을 행할 기회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을 기회도 회개할 기회도 없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 것도 모르”(전 9:5)기 때문이지요. “무릇 네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전 9:10) 18)음부는 히브리어로 스올인데 무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이나 베냐민을 위하여 슬퍼하며 자기가 죽어 무덤에 장사될 것을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창 37:35, 42:38, 44:29, 31)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땅속에 계신 예수

19)예수님도 죽으신 후에 “밤낮 사흘을 땅 속에”있었습니다.(마

16) 죽음의 실제 상태는 무엇입니까?

17) 전도서 12:7의 “그 주신 신”은 무엇입니까?

18) 음부(陰府)는 실지로 무엇입니까?

12:40) 낙원에 가신 것이 아닙니다. ²⁰⁾누가복음 23:43에 있는 강도에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날 그 강도와 함께 그 영혼이 낙원에 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지만 예수님이 친히 당신의 입으로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마 12:40)고 하신 말씀으로 그의 영혼이 낙원에 간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은 그날 강도의 영혼이 낙원에 가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해 주실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그런 상태로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때는 결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도 그 강도가 구원 얻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있을 것을 **그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사 53:12)한다고 하셨으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 그 영혼이 죽은 것을 확실히 가르치는 말씀이며, 그러므로 그 영혼이 그날 낙원에 가지지 않은 것을 확정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는 시편 16:10의 예언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행 2:27~31 참고)고 해석하여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묻혔으나 무덤에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은 후에 몸은 무덤에 갇으나 영혼은 천당이나 지옥이나 비슷한 음부에 갔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음부는 무덤을 가리키는 말 이상이 아

19)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그날 천당이나 지옥에 가셨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있었습니까?

20) 눅 23:43의 “네가 오늘 나의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에 대하여 바른 설명을 해 보십시오.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히 9:27) ²¹⁾심판이 있을 때까지 죽은 사람들은 아무 것도 모르는 중에 무덤에서 썩음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심판하시고, 재림하실 때 마침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요 5:28, 29)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고전 15:22~24)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롬 14:10).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롬 14:12)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후 5:10)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벧전 4:5)

주님의 심판으로 영생에 들어갈 사람들과 영벌에 들어갈 사람들이 분명하여집니다.(마 25:46, 31~45 참고) 그리고 그렇게 정해진 순서를 따라 영생에 들어갈 자는 주님 재림하실 때에 생명의 부활로 무덤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전 15:55)고 외칠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계 20:5) 그리하여 그들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여 그로부터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됩니다.(살전 4:16, 17) 이것이 예수님을 믿은 믿음의 진정한 결론입니다. ²²⁾그래서 성경은 부

21) 부활과 부활의 차례에 대하여 설명해 보십시오.

22) 부활이 없으면 왜 믿음이 헛것이 됩니까?

활이 없으면 믿음이 헛것이라고 단정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고전 15:12~19) 지금 죽자마자 당장 그 영혼이 천당을 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일 그럴 수 있다면 부활이 없어도 결코 믿음이 헛것이 아니지요. 믿음의 결국으로 그 영혼이 천당을 갔으니깐요. 그러나 성경은 부활이 없으면 믿음이 헛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거절한 자들은 천년 후에 부활하여(계 20:5) 영벌에 들어갑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영벌에 이르게 되는데 그 영벌이 바로 불 못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 못에 던지우더라.”(계 20:15) 그리고 이 불 못에는 “사망과 음부도 불 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계 20:14) ²³⁾이 둘째 사망은 모든 죄와 죄에 속한 것을 완전히 불살라 영원히 없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마귀도 없어질 것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히 2:14)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불 못을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 불 못 지옥이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며 악한 영혼이 그곳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그날 모든 심판이 끝난 후에 그 심판의 판결을 집행할 때 모든 죄와 악을 불로 소멸하게 되는데 그 소멸하는 불이 불 못을 이루고 그것이 지옥(게헨나 = γέεννα)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것입니다. ²⁴⁾그 불은 태울 것을 다 태울 때까지 결코 꺼지지 아니하며 아무도 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태울 것

23) 둘째 사망이 무엇이며, 마귀는 어떻게 됩니까?

24) 성경의 영원한 불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을 다 태워서 그 목적을 달성했을 때는 꺼질 수밖에 없는 불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에서 이것을 분명히 보여 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유 7) 이들이 받은 **영원한 불의 형벌**의 결과가 어떠하였습니까?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가 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다 타고 그 영원한 불은 꺼지고 없습니다. 그것들이 다 타서 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습니다.(벧후 2:6)
25) 그러므로 후세의 모든 불경건한 자들 곧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모든 자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영원한 불의 형벌로 재가 된 것과 같이 불 못에서 타서 재가 되어 없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을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개같은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말 4:1)며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말 4:3). 그래서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시 37:10)

이리하여 우주에는 죄와 악과 그것에게 속한 것은 흔적도 찾을 수 없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바다처럼 넘쳐흐를 것이며(사 11:9), 불 못이 되었던 이 지구는 예수님의 손에 의해 새 하늘, 새 땅으로 재창조되어 모든 구원 얻은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은 예수 안에서 통일이 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엡1:10) 만일 우주 어느 한 구석에 지옥이 있고,

25) 모든 악인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거기에 악인들이 있어서 밤낮 하나님을 원망하고 고통의 울부짖음을 그치지 않는다면 우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없지요. 우주가 오직 생명과 사랑과 행복 등 이런 것들로 충만할 때에만 예수 안에서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영원 지옥 설은 엡1:10의 통일의 정신과도 전혀 맞지 않는 비성경적인 발상인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말

26) **지**옥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지옥이라는 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에는 지옥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신약성경에만 지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한글 성경에 “지옥”이라고 번역한 말은 두 가지 헬라어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렁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벧후 2:4) 여기서 “지옥”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탈타로스(τάραρος)”입니다. 신약성경에서 단 한 번 사용된 말인데 “흑암의 깊은 구렁이”라는 것이 본래의 뜻입니다. 이곳에 범죄한 천사를 가두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천사들이 갇힌 곳이 어딘지를 알면 “탈타로스” 지옥이 어딘지도 알 수 있지요. 계 12:7~12 을 읽어보면 하늘에서 반역한 사단이 내어 쫓긴 곳이 바로 “땅”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 12:4에는 용이 “하늘별 1/3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고 기록했습니다. 결국 범죄한 천사가 내어 쫓겨 갇힌 곳은 땅, 곧 이 지구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어두움의 세상이 되어 사단 곧 범죄한 천사가 주장하는 곳이 된 것이지요.(엡 6:11, 12 ; 골 1:13 ; 사 14:12~15 ; 겔 28:1~18 참고) 그래서 범죄한 사람이 사는 이 지구 세상이 탈타로스 지옥입니다.

26) 성경에 나타난 두 가지 지옥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다. 사단은 그의 부하인 타락한 천사들을 동원하여 귀신 노릇도 하게 하고 죽은 자의 영혼처럼 보이게도 하여 사람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 사단과 그의 부하들은 언젠가 그들이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때가 얼마 쯤 알고 크게 분 내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계 12:12) 그래서 거라사 땅의 귀신은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마 8:29)라고 울부짖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옥이라고 표현되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러나 죄의 세상은 참으로 어두운 지옥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옥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이라고 번역된 또 하나의 말은 “게헨나”인데 뱀후 2:4 외에 한글 신약성경에 “지옥”이라고 번역된 모든 말은 이 “게헨나”의 번역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의 “힌놈의 골짜기”를 헬라어로 음사(音瀉)한 것입니다. 힌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이곳은 유대왕 아하스와 므낫세가 이방인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이방신인 몰록에게 분향하며 그 자녀를 불사르던 곳입니다.(대하 28:3, 대하 33:6) 그래서 하나님은 요시야 왕을 통하여 “왕이 또 힌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사람으로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그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하지 못하게 하고.”(왕하 23:10) 거름 터를 삼도록 하였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예루살렘시의 쓰레기 처리장이 된 곳입니다. 모든 쓰레기들이 이곳에 쌓이자 그것이 썩기 시작하였고 악취를 풍기게 된 것은 당연하지요. 그래서 불을 놓아 그것을 태우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게헨나에는 쓰레기를 태우는 불과, 한편에서 미쳐 타기 전에 썩는 쓰레기에서 구더기들이 득시글거렸습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 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막

9:47, 48)

27)여기 “지옥”이라고 번역한 말이 “게헨나”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던 바로 그 당시에는 게헨나가 어떤 곳인지 누구든지 알고 있었습시다. 바로 예루살렘의 쓰레기 처리장이며 그래서 불이 항상 타고 있고 한편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꿈틀대고 있는 것을 말만 듣고도 다 알았던 것입니다. 이곳이 원래는 물록의 성지(聖地)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요시아 왕에 의하여 예루살렘의 쓰레기 처리장이 되었습시다. 것처럼 사단이 세상을 범죄로 타락케 하여 자기의 성지를 삼았으나, 마침내 예수께서 세상에 재림하셔서 모든 죄와 거기에 속한 죄의 쓰레기들을 불살라 처리하실 때에 이 세상이 그 쓰레기 처리장이 될 것을 표상하는 말로 게헨나를 사용한 것입니다. 게헨나 곧 힌놈의 골짜기의 불이 사를 쓰레기들을 다 사르고 더 사를 것이 없을 때에는 꺼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잠 26:20 참고) 모든 죄와 죄에 속한 모든 것을 완전히 불사르고 꺼질 때까지 이 지구는 게헨나 곧 지옥이 되며 그 후에는 우리 주님이 이 지구를 새롭게 창조하여 영원한 천국 낙원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 위에서 말한 것과 같습니다.

28)그러므로 악인은 지옥에서 고통 중에 영원히 살고 의인은 천당에서 행복한 중에 영원히 산다고 가르치는 교훈은 성경적 교훈이 아닙니다. 만일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실제 그대로라면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은 지옥의 고통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일 수 있을까요? 앞에 예를 든 박선생의 의문이 아니라도 이런 의문은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이 세상에 광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예수교인

27) 지옥에서는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말의 실상이 어떤 것입니까?

28)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실제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들을 통하여 실로 교묘하게 속임수로 그렇게 선전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영원 지옥설을 굳게 믿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실제적인 것으로 소개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9) 성경은 죄라는 말을 하기 전에 죽음이라는 말을 먼저 하였습니다.

죄는 창세기 4:7에 처음 나오는데 그것은 죽음의 성질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죽음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라는 말은 죽은 자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은 이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창 2:17) 그런데 이 죽는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오해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네가 얼굴이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인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창 3:17, 19) 죽는 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30) 이미 앞에서 말하였듯이 하나님이 창조하기 이전 상태로 온전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31) 하나님이 아담을 사람으로 창조하시기 전에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아담이 산 사람 곧 생령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람 곧 아담은 비로소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는 창조되기 전 상태인 흙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가 흙으로 돌아갔는데 그가 어디 있습니까? 흙은 자기의 죽음에 대하여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부지런히 찾으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욥

29) 성경은 무엇을 죄 보다 먼저 말합니까? 왜 그랬습니까?

30) 죽음의 실상은 어떤 것입니까?

31)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아담의 영혼은 이미 있었습니까?

7:21)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찾으실지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다고 시편은 말한 것입니다.(시37:10)

사단의 속임수

32) 사람이 죽을지라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주장한 자는 거짓말쟁이인 마귀(요 8:44)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의 말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아담이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아담은 죽었습니다(창 5:5). 그래서 마귀는 또 다른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말이 그것입니다. 이 거짓말을 실감나게 하려고 사단과 그 부하들이, 죽은 자들의 영혼이 살아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려고 귀신 짓거리도 하고, 성경 해석상으로는 생령이라는 말을 그릇되게 이해하게 하여 오늘날 기독교로 하여금 마치 영혼 불멸설이 성경의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도록 교묘히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속임수에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합니다. 1960년대의 어느 부활절에 강원용 목사는 부활절 기념 설교에서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인은 죽음을 인정하는 불신자보다 훨씬 더 이교적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참으로 성경적인 말입니다. 죽음 그것은 참으로 사람이 영원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33)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의 생명 곧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만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존재하며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거절하고 사망의 성질인 죄의 상태대로 세상을 지나간 모든 사

32) 영혼 불멸설을 주장한 자는 누구입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33) 어떤 사람들만 영원히 살아 있을 것입니까?

람은 그 결과인 흠으로 돌아가 영원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귀와 그를 따른 타락한 모든 천사도 영원히 없어집니다.(히 2:14) 마귀가 없어지는 데 타락한 천사들이 어찌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있게 한 대로 있기를 원하는 자들만이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겔 18:4)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일 영혼이라는 것이 몸을 떠나 따로 있는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범죄한 영혼 그것은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은 창조되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지요.

34)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비유입니다. 비유는 어떤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예화입니다. 이것은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것이 사실이나 아니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하여 가르치려는 진리가 무엇이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는 육체를 떠나 영혼이 천당을 갔다거나 지옥을 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다만 나사로는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고 말할 뿐입니다. 그러면 천당이 아브라함의 품입니까? 그리고 천당과 지옥은 그렇게 서로 보면서 지옥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듣고도 동정 한 번 할 수 없는 그런 천당입니까?

이 비유가 가르치는 진리는 이런 것입니다.

- ① 구원의 기회는 죽은 후에는 다시없다.
- ②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의 빈부가 구원 얻는 일에 관계가 없다.
- ③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도하는 것보다 기록된 성경 말씀(모세와 선지자)이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 ④ 믿는 자는 종국적으로 영생에 들어가고 불신자는 종국적으로 지옥불인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 마침내 없어진다.

34) 부자와 나사로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보십시오.

앞에서 설명한 모든 성경 말씀과 종합적으로 이것을 살펴보면 이 해설이 성경적인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접하여 예수님 계신 곳에 함께 있도록 해 주실 그 때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35) 그러므로 이런 결과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시면 이런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심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이 예언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할 것”(창 3:15)이라는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로 마귀를 이기신 후에(골2:15) 승천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의 일을 하시고 마치신 다음 친히 재림하셔서 뱀 곧 마귀 사단을 없이하시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36)이렇게 예언된 재림의 예언은 신약 성경에서 단연코 가장 많이 언급된 예언입니다. 신약만 해도 318회 기록되어 매 25절마다 한번 꼴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예수께서 재림하시므로 모든 것이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아주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37)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날과 때는 하나님 아버지 외에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 24:36) 그러나 그 때가 가깝다는 것을 알리

35) 왜 예수께서 재림하십니까?

36) 어떤 내용이 성경에 가장 많이 언급되었습니까? 신약성경에 몇 번이나 말했습니까? 그 평균은?

37) 재림의 날과 때를 알 수 있습니까?

는 표(징조)는 누구든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 24:3~31)
 38)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하신 십대 징조 곧 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며 이적과 기사로 사람들을 미혹한다.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자주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② 난리와 난리 소문이 꼬리를 물고 들린다. ③ 나라간의 전쟁과 민족 간의 전쟁이 계속된다. <이런 것은 지면을 할애하여 열거할 필요가 없도록 우리가 다 아는 일이지요.> ④ 처처에 기근이 있다. <북한이나 소말리아나 방글라데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기아 상태에 있다면 우리 국민은 놀랄 것입니다. ⑤ 처처에 지진이 있다. ⑥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있을 것이다. ⑦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며 사랑이 식으므로 불법이 성해진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시대가 아닙니까?> ⑧ 천연계에 징조가 있다.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떨어진다. <이런 천연계의 징조는 역사적 사건들로 이루어졌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 빛같이 되어 빛을 내지 않은 사건은 1780년 5월 19일에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별이 떨어지는 것도 1833년 11월 13일에 역시 미 동부 뉴잉글랜드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왜 그곳에서만 일어나야 하느냐고 항의할지 모르나 징조는 징조를 볼 줄 아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때 청교도들이 뉴잉글랜드 지역에 살면서 얼마나 예수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래서 그들에게 징조가 주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이것이 천연계에 일어난 실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도가 되고 지금 우리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⑨ 노아 때와 같은 사회 현상이 일어난다. ⑩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기 위하여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 이런 징조들은 거의 다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졌고

38)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징조를 설명해 보십시오. 이것들은 역사상에 실제로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말로 노아의 때와 같고 룻의 때와 같은 시대입니다.(눅 26~29) 정치적 상황이 그렇고 종교적 상황이 그렇고 경제적 형편이 그렇고 사회적 불안이 그렇습니다. 누가 복음에는 처치에 온역(질병)이 있다는 말씀을 더하고 있습니다.(눅 21:11) 암, 에이즈, 광우병 이 외에도 계속하여 전에 듣지 못한 무서운 질병 정보가 보도를 바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 전반에 예언한 재림 전에 있을 징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계시록은 더욱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39)그 중에 현재 성취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산권의 붕괴와 그 붕괴를 미국과 천주교가 주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13장을 연구하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백년도 더 전에 이 사실을 전파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성취를 우리 시대에 보게 된 것입니다. 더 알기를 원하는 독자는 각시대의 대쟁투 상하권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무도 모르게 공중에 와서 예수 잘 믿는 사람만 살짝 데려가는 비밀휴거로 재림하시지 않습니다. 40)그분은 웅장하게 우레 같은 소리로 장엄하고 영광스럽게 오십니다. 그때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 알 수 있고 볼 수 있게 오십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는데(벧후 3:10)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팔로 오는데(살전 4:16) 누가 못 들겠습니까? 41)도적 같이 오신다는 말은 그 오실 때를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 지 오는 광경을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39) 최근에 성취된 예언에 대하여 말해 보십시오. 어디에 그 예언이 있습니까?

40) 예수님의 재림 광경에 대하여 말해 보십시오.

41) 도적 같이 온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이렇게 재림하시므로 주님이 시작한 구원의 일은 완성되고 모든 구원 얻은 사람은 비로소 예수님과 현실적으로 함께 있으며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된 소망입니까!

그릇된 소망으로 속지 맙시다. 신앙이 자기를 속인다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정말 천국이 있습니까? 그것은 정말 현실적인 것입니까? 다음 장에서 이것에 대한 성경의 대답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12. 천국은 실제적(實際的)입니까?

영국의 작가 해거어드(Henry Ride Haggard 1856~1925)가 쓴 “솔로몬의 동굴”이라는 이야기를 간단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죽을 고비를 몇 번이고 넘으면서 그 목마른 사막을 지나고 태풍처럼 달려드는 야생 동물 떼들의 질주를 피하며 독사와 독거미의 숲과 식인종의 마을을 가까스로 피하면서 아프리카 오지의 알려지지 않은 토인의 나라에 도착합니다.

거기 솔로몬의 동굴이 있고, 솔로몬의 그 많은 보화가 그 동굴 속에 감추어 있다는 정보 때문에, 그 보물을 찾기 위하여 그렇게 허위단심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토인들과의 우여곡절을 겪은 후 그들은 마침내 그 소망의 솔로몬의 동굴로 안내됩니다. 횃불을 들고 동굴 안으로 들어서서 몇 발자국을 걸어갔을 때, 그들의 눈앞엔 횃불 빛에 보석들의 번쩍임이 눈부시게 휘황하였습니다. 아, 이제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된 것입니다. 이 엄청난 보화를 보십시오!

그들이 보물에 정신이 팔려 그 많은 다이아몬드를, 루비를, 금은을 부산하게 챙기고 있는 동안 동굴 안내인은 슬며시 빠져나가 자기가 한번 닫으면 자기 외에는 결코 아무도 열 수 없는 그 동굴의 돌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돌문이 닫히고 있는 요란한 소리에 문득 정신이 든 탐험 대원들이 돌아보니 안내인은 막 문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급히 달려갔으나 문은 기어이 닫혔고 문을 열 줄 아는 유일한 안내인은 그 육중한 돌문에 깔려 죽고 말았습니다. 아, 이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들 탐험 대원들은 갑자기 죽음 직전에 있는 자신들의 처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보물이 이제는 더 이상 보물이 아니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루비도, 금은들도 그것은 결코 그들의 보물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다는 자랑스러움도 삼시간에 죽음의 절망 앞에서 무겁고 고통스러운 짐이 되었습니다.

보물, 진짜 보물은 무엇입니까?

가장 귀한 보물 생명

세상에서 귀하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사람이 살아 있다는 사실 앞에서만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모든 것들이 죽은 사람에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⁴²⁾그렇고 보면 모든 가치는 사람이 살았다는 사실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사람이 살아서 그것의 가치를 인정할 때만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은 사람의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죽습니다. 그 가장 귀중한 보물을 아무도 영원토록 보관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 생명을 영원히 보존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방법을 안다면 누구든지 그것을 한 번 시도해 볼만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⁴³⁾“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 11:25, 26)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이라고 주장하였고 그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으로 그의 주장을 증명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사람들은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지만 역사적으로 한 번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부정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미 5장에서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

42) 가치는 무엇을 결정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가장 큰 보물입니까?

43)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증명했습니까?

래서 예수님은 이 부활한 사실에 근거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믿으라고 당당히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 부활의 생명 곧 영생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 현실화하는 것입니까?

⁴⁴⁾그 때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는 그 얻은 영생이 그 얻은 개인에게 현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취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중에 나타나리라.”(골 3:3, 4)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⁴⁵⁾“무덤 속에 있는 자들”에게 그의 부활시키는 음성을 듣게 하실 때에 듣는 자들은 다 부활하여(요 5:28, 29), 세상에 살아 있을 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어놓았으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취었던 그 영생의 생명으로 예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고 행복하게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 얻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새로 창조한 세상 곧 사랑과 행복만으로 하나님의 통치만이 있는 나라에 있게 되는 그 나라를 성경은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⁴⁶⁾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이 없으면 이런 천국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궁극적인 소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복스러운 소망”(딤후 2:13)이라고 하였습니다. 죽을 때 당장 그 영혼이 천당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11장을 참고하십시오). 그러므로 천국이 실제적이 아니라면 성경의 가르침도 실제적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일어난 구원 사건들도 실제적인 것일 수 없습니다. 천국은 실제적인 것이어야 하고 또한 분명히 실제적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사

44) 언제 영생이 현실화합니까?

45)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은 언제 부활합니까?

46) 예수님의 재림은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며 왜 그렇습니까?

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물, 사람에게 가장 귀한 보물인 생명이 영원히 생명으로 보존되며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이 그 생명 때문에 영생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사회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상 천국을 건설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천국은 마침내 지상에 건설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런 상태의 지상에 이런 상태의 사람들을 가지고는 지상 천국이 건설될 수 없습니다.⁴⁷⁾ 그리고 천국이라는 말은 전혀 성경의 말입니다. 그 사상과 내용도 전적으로 성경의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평화와 행복으로 영원히 살게 된 영생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영생할 수 있는 실제적인 나라를 하나님이 친히 건설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생명을 가지고 이런 천국에 가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천국에 가기 전에,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자격이 어떤 것입니까?

⁴⁸⁾“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 7:21) 이 말씀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간단히 규정 지어 놓았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천국은 떼어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알게 해 줍니다.

천국의 뜻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오늘날 주기도문이라고 알려진 말씀이 그것이지요.(마 6:9~13) 이 기도문 중에 “나

47) 천국에 대한 사상은 전적으로 어디에 근거합니까?

48)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습니까?

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마 6:10)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⁴⁹⁾예수님은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관계가 있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여기에 “나라”는 “헤 바실레이아(ἡ βασιλεία)”인데 “왕국”이라는 말입니다. 헬라 말로 왕을 “바실류스(βασιλεύς)”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바실레이아”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이 누구이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시오, 천국은 그가 다스리시는 나라인 것입니다.

⁵⁰⁾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천국이라는 말이 38회 나오는데 한 번(딤후 4:18)을 제외하고는 모두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이라는 말을 일상 언어로 자주 쓰면서 성경에 그 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천국이 성경의 가르침 중에 최종적인 소망인데 어찌 마태복음에만 그 말이 나타날까요? 다른 복음서들이나 편지서들에는 왜 천국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까? 원어 성경에도 그렇습니까?

⁵¹⁾우리말 성경 마태복음에 37회 나오는 천국이라는 말 중에 5회는 “헤 바실레이아”를 천국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마4:23, 9:35, 13:19, 38, 24:14) 나머지 32회는 “헤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ἡ βασιλεία τῶν οὐρανῶν)”을 천국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한 대로 “바실레이아”가 주기도문에는 “나라”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신약성경에 “나라”라고 번역된 말이 거의 다 “바실레이아”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5회를 “천국”으로 번역하였는데 이 말들은 “나라”라고 번역해도 같은 뜻이 됩니다. 그러나 32회는 정말 “천국” 혹은 “하늘나라”라고 번역해야 하는 말입니다. “헤 바실레이아 톤 우라

49)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50) 우리말 성경에 천국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며, 어디에만 나오니까?

51)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이라는 말의 두 가지 원어를 설명해 보십시오.

논”은 “하늘의 왕국”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원어 성경에도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말입니다.

⁵²⁾이 마태복음이 천국이라고 쓴 나라를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헬라말로 “헤 바실레이아 투 떼우(ἡ βασιλεία τοῦ θεοῦ)”입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하는 것만으로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 갈 수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하나님의 뜻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천국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인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의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⁵³⁾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 청년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염려하며 그냥 돌아갔습니다. 이 일 후에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마 19:23, 24)고 하심으로 마태복음의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동일한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⁵⁴⁾그러므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52) 마태복음에 천국이라고 한 것을 다른 복음에는 어떻게 기록하였습니까?

53)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같은 것임을 어떻게 확인 시켜 주셨습니까?

54) 성경이 가르치는 천국을 정의(定義)해 보십시오.

을 뜻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⁵⁵⁾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입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아도나이(אֲדֹנָי)” 곧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후기에 오면서 하나님 곧 “엘로힘(אֱלֹהִים)”이라는 말도 거룩하다고 여겨 잘 부르지 않고 대신에 하늘 곧 “샤마임(שָׁמַיִם)”이라고 부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⁵⁶⁾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하여 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읽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습관과 덜 일치하는 말을 사용하므로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하늘나라라는 말을 골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말이 마태복음에만 사용된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은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했다가 뒤에 헬라어로 고쳐 쓴 복음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인 것입니다.

주권, 가장 중요한 것

일 반적으로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 기본적인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국민, 국토, 주권이지요. 이 셋 중에 하나만 없어도 나라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면 어느 것이 첫째 순위가 될까요? 이런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셋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없도록 비중이 동일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면? 많은 경우 국민을 말할는지 모릅니다. 아니

55)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졌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56) 마태복음에 천국이라고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면 국토를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으로는 주권이 첫째 자리를 차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제 36년의 쓰라린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때 우리 배달민족은 삼천리금수강산이 있었고 이천만 배달겨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없었습니다. 주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립 운동가들은 상해에 임시 정부를 세우고 세계에 주권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국토와 겨레를 일본에게 빼앗겼어도 주권을 선포하며 세계에 주권 있는 나라임을 알리려고 한 것입니다.

⁵⁷⁾하나님의 뜻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통치의 방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 통치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통치 철학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결심이 없고 그 뜻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천국 곧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부자연스러운 것이 되고, 그 부자연스러운 생활은 그에게 천국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에서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마 6:10)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 나라 곧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에 대하여 대개의 주석가들은 하늘에서 삼위일체의 하나님 사이에 온전한 일치와 수종드는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적으로 순종하여 틀림없이 수행하는 것과 같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되게 해 주시기를 구하는 내용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57)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말해 보십시오.

이해는 보편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을 다 용납하는 관점에서라도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중요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 말씀에 대하여 위의 주석들을 살펴보면서 무언가 허전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삼위일체가 하나가 되고 천사들이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이루어진 과거의 일만이 아닙니다. 현재에도 미래에도 언제나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말씀하려면 문법상 현재형을 써야 하지 않을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라든지, 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룬 것 같이**”라고 말하여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사실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과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어떤 사건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요한 계시록을 읽으면 하늘에서 있었던 전쟁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쫓기니라.”(계 12:7~9)

⁵⁸⁾하늘에서 사단의 반역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 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미가엘에게 패하여 땅으로 내어 쫓겼을 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58) 하늘의 전쟁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설명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계12:10)라고 선포합니다. 즉 하늘에서 하나님을 반역하여 전쟁을 일으켰던 사단이 더 이상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하여 땅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그리스도의 나라와 권세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땅으로 내어 쫓겼으므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땅은 천국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인류의 시조를 에덴동산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에덴은 하나님의 동산입니다.(겔 28:13) 그러므로 이 세상은 천국 곧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행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사단에게 꾀임을 받으므로 아담도 꾀임에 넘어가 지구의 다스리는 권세를 사단에게 넘겨주고(눅 4:5, 6)⁵⁹⁾이 지구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은 속임수로 이 지구를 아담에게서 빼앗고, 이 땅 지구를 내려 와서 이 지구를 자기의 권세로 다스릴 사단의 왕국으로 건설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것을 사단에게 넘겨진 대로 버려두실 수 없었습니다.⁶⁰⁾그래서 하늘에서 사단과 싸워서 사단을 하늘에 있을 곳이 없도록 하여 사단을 쫓아낸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 번 사단과 이 땅에서 전쟁을 하여 이 땅에서도 사단을 온전히 쫓아내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루어지게 하여 나라(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시려고 사람 되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제자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사정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59) 왜 지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습니까?

60)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⁶¹⁾그런데 사단은 죄인들에게 역사합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죄짓게 하여 죄인이 되도록 하려고 활동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인격에 예수님의 인격을 온전히 이루게 될 때 사단은 발붙일 곳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 땅에서도 사단은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이 땅에서 쫓겨날 때가 영원한 지옥 불에서 온전히 소멸되어 없어지는 때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지구에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는 나라가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사람에게서 갑자기 스스로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단에게 자리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에게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여 내어 쫓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⁶²⁾그러므로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전적으로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인격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입으로만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며 하나님의 뜻을 인격화하지도 않고 생활화하지도 않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훼방꾼들일 뿐입니다. ⁶³⁾만일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사단이 그에게서 쫓겨났을지라도 예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여 예수님을 철저한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사단은 다시 들어 와서 주인 노릇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집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를 주관하는 것이 사단인 줄 모르고 예수님의 성령인 줄 착

61) 어떻게 사단이 우리에게서 쫓겨나게 됩니까?

62)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63) 예수님을 전적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을 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왜 그렇게 될 것입니까?

각하면서 실은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기 때문에 전보다 칠 배나 나쁜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마 12:43~45 참고) 그래서 어떤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고 결정적인 것에는 변명과 체험을 내세우며 순종하기를 거절하게 할 것입니다.⁶⁴⁾ 그렇게 된 사람은 자기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사실은 다른 영이 자기를 지배하는데도 마치 성령께서 자기를 주장한다고 그것을 고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에게 전혀 자연스럽지 못할 것이고 자연스럽지 못한 것은 또한 자유스럽지 못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천국에 들어오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가 천국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차라리 진짜로 죽어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라고 진정으로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들을 없게 해달라고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있을 곳이 하늘에나 땅에나 아무 데도 없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단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없어질 때 함께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히 2:14 ; 계 20:9, 10, 14) 이렇게 그 존재를 완전히 없어지도록 하는 것이 불 못 곧 영원한 지옥인 것은 이미 앞 장에서 말하였습니다.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마다 자기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⁶⁵⁾ 예수님은 천국 즉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일에 대하여 확

64)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왜 천국에 올 수 없습니까?

실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 12:28) 예수께서 성령으로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에게서 귀신 곧 사단의 세력과 역사(役事)와 감화가 완전히 쫓겨 나가는 것이 그 사람에게서는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귀신이 성령으로 심판 받았다는 뜻이 됩니다. 귀신은 정죄되고 사람에게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여 쫓겨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요 16:8~10) ⁶⁶⁾“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요 16:11)는 말씀은 성령께서 사람에게 역사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에 의하여 사단과 그의 추종하는 사자들과 그 세력은 이미 그 있을 자리를 잃게 되었다는 것이며, 성령은 그 세력이 개인에게서 역사하는 것을 완전히 소탕하시겠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전적으로 성령의 주장을 받게 됨으로 천국의 인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눅 17:20, 21) ⁶⁷⁾이 말씀에서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 안”은 누구의 안입니까?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신 상황을 보면 “너희”가 “바리새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

65) 어떻게 우리 각인에게 천국이 임합니까?

66) 요 16:11절 말씀의 뜻을 설명해 보십시오.

67) 눅 17:21의 말씀을 바르게 설명해 보십시오.

께 나아와 묻는 말에 대답하시면서 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말은 바리새인 마음에 있다는 말이 됩니다. 과연 바리새인 마음에 천국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하여 틈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찌면 이 질문도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하여 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천국이 그런 사람들 마음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 “너희 안”은 “너희”는 바리새인이나 “안”은 마음이 아닙니다. 여기 “안”이라는 말은 원어로 “엔토스(ἐντός)”입니다. 이 말은 “가운데” 또는 “중에”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을 뜻하는 말이기보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즉 “무리 중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뜻은 “천국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외형적으로 화려하게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자리 가운데 이미 와 있다.”는 것입니다.⁶⁸⁾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이 질문하는 그들 중에 있는 천국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은 천국이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인격과 생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인격 천국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천국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그 사람도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찬미가에 “내 비록 산과 들이나 혹 초막 속에 거해도 내 주를 모신 곳이면 그곳이 천국 되도다.”라는 말은 아주 성경적입니다.

인격 천국

그래서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먼저 자신이 인격 천국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⁶⁹⁾ 성경은 여러 곳에서 사람을 나라

68) 너희 안에 있는 천국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69) 성경이 사람들을 가리켜 나라라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떤 나라들이 될 수 있습니까?

곧 “바실레이아”라고 하였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계 1:6, 5:10) 여기에 “나라”라고 한 것이 “바실레이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나라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벧전 2:9)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 “나라”는 “바실레이아”가 아니고 “에프노스(ἔθνος)”인데 그냥 “국가”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라”라고 하는 궁극적인 사상은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든지 사단의 나라가 되든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정신이 되어 있지 않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비록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⁷⁰⁾ 그래서 예수 재림하실 때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마 7:23)고 하실 뿐 아니라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살후 1:7~9)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존재와 생활을 통하여 사람이 천국이 되는 사실을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인격이 천국이었고 그의 생명도 천국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요 8:23)다고 하신 것입니다.⁷¹⁾ 천국이신 사람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것만 행하였고(요 5:19) 하라고 주신 말만 말하였습니다.(요 8:28) 그는 스스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요 5:30)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70) 예수 재림하실 때에 어떤 사람들이 형벌을 받습니까?

71) 인격 천국들은 어떻게 생활합니까?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이 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천국이 된 사람만을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영원한 천국 곧 우리가 들어가야 할 환경과 제도(制度)도 천국이 된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적이신 것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의 인격을 이루는 우리가 실제적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만 모일 수 있는 것이 실제적인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환경과 제도가 이루어진 천국도 실제적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처하여 사는 현세적 세상은 흑암의 권세가 다스리는 죄의 나라입니다.(골 1:13, 엡 6:12) 이 나라의 성질은 천국과 정반대입니다.⁷²⁾ 그래서 인격 천국들은 이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결코 저버리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마침내 환경 천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행 14:22) 그러므로 먼저 이 땅에서 사람 천국이 안 된 사람은 영원한 환경 천국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롬 14:17)

⁷³⁾ 이러한 인격 천국의 수가 차면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계 6:11) 이 수가 언제 찰 것이며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십사만 사천이 그 수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계시록 7장의 이 수는 어떤 충만을 나타내는 상징 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 하라.”(창 1:28)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중(意中)

72) 인격 천국들은 왜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까?

73)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입니까?

에 있는 충만한 수가 인격 천국을 이룰 때 예수님은 그들을 거두어⁷⁴⁾ 환경과 제도도 천국인 곳으로 영접할 것입니다. 이 천국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 된 나라”(마 25:34)입니다. 구원 얻는 사람을 위하여 지금 건설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그것을 상속받을 인격 천국이 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수가 차서 준비 되면,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 된 나라를 상속하라.”(마 25:34)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수행하는 삶으로 죄의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께만 충성한 자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복 받을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국이 되는 세상 나라

천국인 하늘나라는 어디에 건설되니까?

⁷⁵⁾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이 하늘나라라고 하기 때문에 하늘 어디에 건설되는 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하늘에 가서 행복을 누리며 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허구임을 11장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연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대하여 사람들이 오해 없이 밝히 알기를 원하셔서 그 나라가 건설되는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밝혀 주셨습니다. 성경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연구하면 오해하거나 잘 모를 일이 없습니다.

다니엘 2장에는 아이들이 좋아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마침내 약관에 총리가 되는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74) 환경과 제도의 천국은 언제 예비 되어 있었습니까?

75) 천국의 위치에 대하여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⁷⁶⁾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위에 있는 지 2년에 세상의 장래를 생각하다가 잠이 들어서 꿈을 꾸입니다. 그는 한 두려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깨어난 후에 중요한 꿈을 꾸었다는 인상 외에 꿈의 내용을 완전히 잊어 버려서 고민하다가 마침내 다니엘을 만나서 그 꿈과 그 해석을 듣게 됩니다.

그 꿈은 이렇습니다.

왕이 한 큰 신상(우상)을 보았는데 심히 두렵고 광채가 특심하였습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며 종아리는 철이요 발의 열마는 철이요 열마는 진흙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보는데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한 산에서 뜨인 돌이 날아와 발을 치매** 진흙, 철, 놋, 은, 금이 산산조각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그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습니다.**

⁷⁷⁾이 꿈의 해석은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하셨습니다. 그 금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으로 대표되는 바벨론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은과 놋과 철은 바벨론의 뒤를 이어 역사의 현장에 명멸할 대체국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철로 표상된 제국의 끝에 이 제국이 분열될 것입니다. 그 분열된 나라들은 열마는 철처럼 강하고 열마는 진흙처럼 약할 것입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 나라는 세상 모든 나라를 쳐부수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할 것입니다.(단 2:1~45 참고)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벨론의 뒤를 이은 세계적 제국은 페르시아입니다. 그 다음은 헬라(그리스)요 그 다음은 로마입니다. 이 예언대로 로마는 게르만 민족의 대 이동으로 망하고 그 판도는 분열되어 유럽 각국들이 건설되었습니다. 그 후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같은 통일된 대 제국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76) 다니엘 2장에는 누가 꿈을 꾸었으며 그 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77) 이 꿈의 해석을 말해 보십시오.

그런 제국이 없습니다. 분열되어 건국된 국가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⁷⁸⁾바로 이렇게 된 역사 진행의 어느 시점에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산에서 뜨인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역사를 종결짓고 이 나라들이 서 있던 지구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이 설명한 이 우상은 바로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사람 형상의 우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세상 역사는 사람의 손이 엮여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표상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일이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고 인격 천국이 된 사람들의 수가 찰 때에 하나님이 친히 또 한 번 종국적으로 역사에 개입하시면서 이 세상의 세상적 역사는 종결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⁷⁹⁾그래서 사람이 통치하던 세상의 역사는 끝나고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여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천국, 환경과 제도도 천국적으로 되는 그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에 건설됩니다. 지구를 떠나서 어떤 우주 공간에 천국이 건설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이 지구가, 환경과 제도가 천국으로 새롭게 창조되고 거기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통치하는 사랑과 행복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로다.”(계 11:15)고 단언합니다.

그러므로 이 다니엘 2장의 예언은 천국 건설에 대하여 미리 가르쳐 주신 예언입니다. 이 우상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로마가 어떻게 망하고 분열된 나라들이 세워질 것인지를 보여 주는 것

78) 뜨인 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79) 영원한 천국은 어디에 건설됩니까?

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세상에 세워질 것인지를 보여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⁸⁰⁾①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적 사건으로 건설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건설되고 패망한 것이 역사적 사건인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도 이 세상 역사의 종말에 역사적 사건으로 이 지상에 건설되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가 건국된 것이 분명히 역사적 사건인 것처럼,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가 건국된 것이 분명한 역사적 사건인 것처럼,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와 분열된 유럽 제국(諸國)들이 건국된 것이 분명한 역사적 사건인 것처럼 ⁸¹⁾하나님의 나라도 이처럼 확실하게 역사적 사건으로 건설되는 것입니다.

② 하나님의 나라의 위치는 지구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분열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표상하는 그 우상을 쳐부수고 **그 자리에 태산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서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이 지구입니다. 혹 좁은 소견으로 유럽 대륙이라고 할는지 모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는 유럽이 아니고 아시아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이 세상에 세워졌던 나라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들이 선민 이스라엘과 관계되었기 때문에 예언 선상에 부상(浮上)한 것입니다. ⁸²⁾그러므로 이것들이 세워진 곳은 지구를 대표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지구를 떠난 다른 어떤 우주 공간에 건설되는 것이 아닙니다.

③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80) 다니엘 2장이 가르치는 중심 내용을 설명해 보십시오.

81)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적 사건으로 건설되는 것을 설명해 보십시오.

82) 천국의 위치가 지구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 공화국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군주 국가입니다. 그 군주는 삼위 일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선하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나라는 절대적으로 사랑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인 것입니다.(단 2:44) 이 주권에 절대적으로 그러나 자원하여 사랑으로 순종하는 생활을 하여 인격 천국을 이미 이룬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그 뜻이 시행되는 데 털끝만한 방해도 없는 나라인 것입니다.

④ 하나님 나라의 연한은 영원무궁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난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나 1:9) 사단의 반역과 지구의 타락으로 재난의 모습이 온 우주에 공개되었습니다.⁸³⁾ 모든 우주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어떤 결과인지 골수까지 깨달은 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거나 불순종할 생각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 자기들의 절대적 행복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그 주권은,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말미암는 자원하는 즐거운 순종만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국민이 영생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어찌 영원하지 않겠습니까!

⑤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돌의 성질인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금, 은, 놋, 철, 흙으로 표현되지 않고 돌로 표현되었습니다.⁸⁴⁾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벧전 2:4 ; 고전 10:3) 그러므로 그 나라의 국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지닌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이 돌의 속성을 지니는 것이 바로

83) 다시 재난이 없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84) 돌의 의미에 대하여 말해 보십시오.

인격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의 예언이 가르치는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 다섯 가지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신천지

⁸⁵⁾ 그러나 이 일이 이루기까지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는 때가 이르러야 합니다. 이 때는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땅 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느(마 24:15) 그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격 천국을 이룬 사람들의 충만한 수가 찼을 때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재림하십니다. 그는 먼저 공중에 오셔서 모든 천국 인격들을 공중으로 끌어 올려 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먼저 부활시키고, 그 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 있는 인격 천국들을 변화시켜서 공중으로 데려갑니다.(살전 4:16, 17 ; 고전 15:51, 52) 요새 흔히 말하는 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⁸⁶⁾ 이때 예수님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십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지상에 거하는 자들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그 재림하시는 광경을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봅니다.(살전 4:16 ; 벨후 3:10, 11 ; 계 1:7 ; 마 24:30, 31) 아무도 모르게 살짝 데려간다는 휴거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⁸⁷⁾ 도적 같이 오신다는 말은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에 오신다는 말씀이지, 오시는 광경조차 모르게 비밀리에 오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 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벨후 3:10) 이 말씀을 보면 도적 같이 오시는 **바로 그 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85) 영원한 천국이 이루기까지의 순서를 말해 보십시오.

86)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은 어떠합니까? 자세히 말해 보십시오.

87) 도적 같이 오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고 했습니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 오시는 것을 아무도 모를 수 있었습니까? ⁸⁸⁾ 그리고 그 오시는 광경을 각인의 눈이 반드시 봅니다.(계 1:7 ; 마 24:30) 그런데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조차도 데려가는 줄 모르게 사람을 살짝 비밀로 데리고 가는 그런 휴거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공개적이며 장엄하고 웅장하고 요란합니다. ⁸⁹⁾ 이렇게 하여 모든 인격 천국들을 공중으로 영접하여 하늘 새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곳에서 그들은 천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왕 노릇하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 심판합니다. 이것을 천년 왕국이라고 합니다.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한 천사들과,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으로 구원하려고 했으나 그 구원을 마다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과 예수를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들로써 ⁹⁰⁾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죽은 자들입니다.(계 20:4~6) 성도가 천사와 세상을 심판한다(고전 6:2, 3)는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⁹¹⁾ 이런 일이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안 죄의 지상은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는데, 이유는 의인들은 다 하늘로 올라갔고 악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영광의 광채에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살후 1:7~9 ; 습 1:2, 3, 17, 18) 그리고 땅은 말로 표현할 수 없도록 황폐하여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기 전의 상태처럼 혼돈하고 공허하며, 죽은 사람을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시체로 가득 찹니다.(렘 4:23~28 ; 사 24:3 ; 렘 7:32, 33) ⁹²⁾ 이러한 지구에 사단과 그 부하들이 유혹할 대상이 전혀 없으므로 갇힌 상태가 되어 천년을 지나며 자기의 반역의 비참한 결과를 봅니다. 이것이 무저갱입니다.(계 20:1~3). ⁹³⁾ 그러나 천년이 지나면 예수께서 구원 얻은 모

88)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광경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볼 것입니까?

89) 공중으로 끌어 올려간 성도들은 어디서 얼마 동안 무엇을 합니까?

90) 성도가 심판하는 심판의 대상들은 누구입니까?

91) 이 천년 기간 동안 지구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92) 천년기 동안 사단은 어떤 상태에 있으며 그런 상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든 성도들과 그의 천사들과 함께 황폐한 지상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는 감람산으로 오십니다. 그의 발이 감람산에 닿으면 산은 갈라져서 큰 골짜기를 이루고 그 골짜기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앉습니다.(슥 14:4 ; 계 21:2) 그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을 선두로 하여 모든 성도와 천사들이 들어가고 성문이 닫히면 악인들이 부활합니다.⁹⁴⁾그러면 아무도 유혹할 사람이 없어 갇혀 있던 사단은 새로 유혹할 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미혹의 활동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 즉 세상 최초의 악인으로부터 세상 최후의 악인까지 부활한 그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선동하여 새 예루살렘과 성도들의 진을 공격합니다.⁹⁵⁾이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계 20:7~9)⁹⁶⁾그러나 심판하여 확인된 사단과 모든 악인들의 죄상이 하늘에 공개되고(시 50:6), 그것을 보는 자들이 자기들은 죽어 없어져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고 참된 것을 시인하여(계 11:18, 15:4)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 무릎을 꿇어 절하고(빌 2:6~10), 자기들을 죽어 없어지게 하는 것이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임을 요청하므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처럼 내려 사단과 타락한 그의 부하 천사들과 구원의 기회를 틀림없이 주었으나 거절한 모든 악인들이 그 불에 타서 소멸되는 것입니다.(계 20:9, 10, 14 ; 말 4:1~3) 이것이 지옥입니다.⁹⁷⁾ 그들이 완전히 소멸된 후에는 악인을 자세히 찾을지라도 없습니다.(시 37:10)

⁹⁸⁾그 후에 예수께서는 이 황폐하여 혼돈하고 공허한 지구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사 65:17, 18 ; 계 21:5) 모든 구원 얻은

93) 언제 예수님이 지상에 오십니까? 그때의 광경을 설명해 보십시오.

94) 사단은 어떻게 활동을 시작하여 사람들을 미혹합니까?

95) 곡과 마곡은 누구이며, 그 전쟁은 무엇입니까?

96) 곡과 마곡의 전쟁의 결과는 어떠하며, 왜 그런 결과에 이릅니까?

97) 악인들은 마침내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98) 어디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며, 그곳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자세히 말해 보십시오.

성도들은 말씀으로 새로 창조하는 광경을 목도하면서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기뻐하며 찬양할 것입니다.(사 65:18) 그리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합니다.

거기에는 다시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합니다.(계 21:4)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계 22:3) 땅에는 사막이나 황무지가 다시 있지 않을 것입니다.(사 35:1~10). 그리고 사나운 짐승이 다시 없을 것입니다.(사 11:6~9) “내가 금을 가져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져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을 삼으며 의를 세워 감독을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네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비취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고 네 하나님께서 네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영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사 60:17~22 ; 계 21:10~27)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의 본향입니다. 처음 창조가 실제적인 것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있지 아니합니까.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도 실제적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아담까지라도 천지를 창조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⁹⁹⁾ 그러나 구원 얻은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새로 창조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치 아니합니까? 이 놀라운 구원에 참여하여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적으로 순종하여 인격 천국을 이루지 않으시겠습니까?

¹⁰⁰⁾ 천국은 실제적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 있다는 것보다도 더 실제적

99) 구원 얻은 성도들은 무엇을 목도할 것입니까?

입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유럽 제국의 역사가 실제적이
라면 천국은 그와 같이 실제적이며 확실히 역사적으로 마침내 이 땅
에 건설될 것입니다.

¹⁰¹⁾ 그 곳에 여러분과 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
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벧후
3:11~13). 할렐루야 아멘.

2001. 3. 16(금) 교정 완료

100) 천국이 실제적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까? 그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101) 그 실제적인 천국에 꼭 가기로 결심하십니까? 결심하시고 인격 천국을 꼭 이
루시기를 바랍니다.